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마음씨가 온화하면서도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이는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8호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기업명상 확산, 불교발전 '디딤돌' 될까

삼성 등 명상산업 전개에 불교계 관심 목소리 높아

2013년부터 본격화된 기업 명상연수가 이제 명산산업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불교 명상 현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명상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중인 영덕연수원은 공정률 20% 속에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영덕연수원은 21만 삼성전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상교육 등이 진행되는 명상힐링센터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내 라이프코칭센터를 두고 심리상담을 진행해 왔다. 2013년에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명상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삼성전자 연수원의 롤 모델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다. 대웅제약이 대주주로 투자한 힐리언스 선마을은 이시형 박사가 2009년 설립한 자연치유센터로 10개의 트레킹 코스와 친환경 시설 등을 활용한 명상 · 힐링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곳은 2011년 문광부 치유여행지, 2014년 민간1호 치유숲에 선정된 바 있다.

동화그룹도 경기도 남양주에 '동화컬처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2월 건립된 동화컬처빌리지는 지난해부터 명상호흡과 집단상담 등을 진행하는 '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국산업도 최근 비영리재단인 재단법인 중도를 출범시켜 경주에 황룡원을 개원했다. 황룡사 9층목탑을 재현한 황룡원은 기업체를 위한 CEO명상코스 등이 운영된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명상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체 초청강연에 나서고 있는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 소장은 "경쟁격화로 인한 직원 휴식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미래문화콘텐츠 발굴 차원에서도 명상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감지된다"며 "2003년 타임지 표지에 '마음챙김과학'이 2013년에는 '마음혁명'으로 보도됐다. 해외에서는 명상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명상산업 투자, 불교계 영향은?

기업들이 명상마을, 명상센터 등을 직접 지어 운영하는 명상산업 시대에 불교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불교계는 2008년 12월 한국문화연수원을 개원해 기업연수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사찰에서도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문화연수원 박희승 교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명상경영의 효과를 맛본 기업들이 이제 직접 센터와 마을, 관련 연수원을 짓고 운영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격차가 상당하다. 전통사찰이 가진 한계 등 인프라 문제를 불교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하지만 기업들의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심신치유 등 명상의 효과에 국한돼있다. 부수적인 것에 치중하다보면 본래 불교에서 나온 마음공부에 대한 목적이 전도될 수 있다"며 "기업 명상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불교체험 등을 통해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영덕에 명상연수원 건립
동화 · 대웅 · 동국 등도 투자
직원 휴식+미래산업 개발 진행

불교계 인프라는 상대적 열악
전문가 "입문자 증가는 기회"
지도자교육 등 심화 보급 주문

관련 전문가인 김재성 능인불교대학교수는 "이미 불교계는 위빠사나의 국내 도입으로 간화선이 한층 더 발전한 것을 경험했다"며 "또 하나의 저변확대로 볼 수 있다. 입문자들이 늘면 명상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심화된 명상을 추구하는 이들도 증가할 것이다. 불교계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저변확대에 맞춰 2015년 4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구성하고 지도자 교육과 양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스님은 "지도자 양성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한국불교계가 가진 명상전통을 살려, 현대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 전에 올릴 꽃, 참 곱구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월 21일 칠석과 백중 등을 앞두고 사찰 꽃 공양 및 장식 꽃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양재동 aT센터 로비에서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이 전시된 꽃을 유심히 보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회 천태어린이 찬불동요 합창제

본선 9월 24일 개최… 8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천진불들에게 동요를 통해 맑은 심성을 심어주는 한편 찬불동요 보급과 불교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찬불동요 합창제를 마련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9월 24일 오후 1시 금강대 대강당서 '제2회 천태어린이 찬불동요 합창제'를 개최한다.

만 4세 이상~만 16세 이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참가 부문은 △유치부 독창 · 중창 · 합창 △저학년 독창 △고학년 독창 △저 · 고학년 중창 △저 · 고학년 합창 등이다. 대상에는 상금 200만원, 합창 · 중창 · 독창 최우수상에는 상금 각 50만원, 합창 · 중창 우수상에는 상금 각 30만원, 독창 우수상에는 상금 20만원, 합창 · 중창 장려상에는 상금 각 10만원, 독창 장려상에는 상금 5만원이 주어진다.

합창제 접수는 8월 31일까지 천태종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pko2013@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본선 진출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며, 본선 진출시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으로 중 · 합창에 10명 이상일 경우 10만원으로 일괄 산정된다. 참가문의 (043)420-7267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RUSH'

원주시- 폐사지 · 충남- 서산 백제 불교권 잇달아

원주 흥법 · 거돈 · 법천사지 3곳
보편 가치 알릴 심포지엄 개최
국내 잠정목록 등재 우선 추진
"지역 문화 진흥 · 홍보에 도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재 ·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원주시는 흥법사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폐사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고, 충남도는 서산 불교문화 유적들을 추가 등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원주시다. 원주시는 지난해 흥법사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3곳 폐사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하고 올해부터는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폐사지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 첫 심포지엄이 열렸고, 7월 15일에 2번째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인재 연세대 교수는 '원주 세 폐사지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발제를 통해 원주의 폐사지가 세계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그 가치를 세 폐사지에서 활동한 충담 · 지종 · 해린 스님에게서 찾고, 이들이 남긴 △개경 역사지구 △해인사장경판전 △팔만대장경 등 고려시대 유산과 깊은 문화적 연대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원주 세 폐사지의 인물과 그들의 업적은 한국 문헌에 잘 증명되지 않았던 고려인의 주체적 세계관, 평화인문정신의 원천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백제 불교유적을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의정토론회를 열고 충남 지역에 분포된 서산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 등 가야산 권역 백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섰던 김선임 보원사 사무장은 "백제시대 가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지역은 활발한 해상교역의 경제 중심지며, 수준 높은 서민 문화가 발달한 만큼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임경호 충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통사상 등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연관된 사례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불교 문화재와 유적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진흥의 목적이 크다.

박종수 원주시 문화재담당은 "원주 지역 문화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다.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손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잠정 등재를 추진하고, 이후 국제세미나 등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작품 공모

조계종, 9월 5일까지 방송 · 신문 · 뉴미디어 등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을 오는 9월 5일까지 공모한다.

방송(TV ·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불교언론인상, 특별상 등 5개 부문에 대한 작품을 접수한다. 불교언론인상은 공로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상은 방송 · 신문 · 영화 · 광고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시상한다.

출품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시상하는 대상 1작품에는 상패와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불교언론인상(1인 500만원)과 특별상(2작품 각 300만원)을 제외한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올해는 상금 규모가 지난해 대비 1100만원 확대된 5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응모는 직접응모와 추천응모로 나뉘며 작품개요서 및 추천서 1부를 공통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며, 해당 작품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10월 중순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상식은 11월 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릴 예정이다. (02)2011-1770 윤호섭 기자

8/12(금)부터 8/15(일)까지 3박 4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법문시간 : 대원 선사님의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통쾌한 선법문을 만나십시오.
문답시간 : 선사님께 직접 자신의 수행을 세밀히 점검,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선시간 : 선사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참선지도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선정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 **교 재**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참가비** 10만원
신청문의 성불사 010-6431-8805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책 1,2,3,4,5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차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전자책 1~5권 무료공개

“선학원 사태 해결, 분원장에 달려있다”

김광식 교수, ‘선학원’ 워크숍서



“선학원은 선방수좌 스님들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근간한 평의원회 조직이 있었다. 당시 이사회를 견제한 평의원회와 같이 분원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학원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7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 위>는 ‘선학원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서 선학원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양측의 의식변화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은 수좌 보호와 선수행 진작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가 있다. 하지만 1962년 통합종단 이후 선학원은 재산관리에만 유의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분원의 연합체 성격”이라며 “이런 가운데 수좌, 평의원회의 퇴진 등이 노정됐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1934년부터 있었던 수좌들의 협의체로 선학원 예산 결산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 김 교수는 “이후 1969년 초반부터 정체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선학원의 독자성은 20여년간 계속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선학원 분원장, 소속 승려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교섭이 추진돼야 한다”며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정체성과 배치되지 않는 차원에서 양측의 접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학원이 설립 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날 ‘재단법인의 운영 원리와 방법, 그리고 관련법 분석’을 발표한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률적 제재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분원장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사회에 대해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 조계종도 법적 독립실체로 인정하고 공존의 자세를 갖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신도 내홍 수습, 새 국면 맞아

봉은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7월 25일 전격 ‘해체’

봉은사 중창불사 과정 갈등 발발
봉은사 측 17일 신도회칙 개정
운동본부 “도량 소란케해” 참회
봉은사 신도회 “복권 논의 중”

2014년 봉은사 종루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반발하며 봉은사 신도회 측과 갈등을 빚은 ‘봉은사 신도회 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봉은사운동본부)’가 대중 앞에 참회하고 전격 해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년 간 지속된 봉은사 신도회 내홍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옥곤 봉은사운동본부 대표는 7월 25일 본지와 통화서 “2년 전 종루를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개축한단 소식에 크게 반발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중 내 신도회 위치가 스님들에게 종속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7월 17일 임시총회서 신도회칙이 개정되며 신도회의 자주독립성이 보장됐다고 판단, 봉은사운동본부를 해체하고 신도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과거 신도회는 담당 지도법사에게 모든 결정권이 일임돼 있던 반면, 회칙 개정으로 신도회가 행정 운영상 결정권을 갖게 됐다. 또한 신도회장 및 부회장 선출도 주지 스님의 임명 형태서 인선위원회를 통한 선출제로 변경됐다.

최 대표는 “임시총회 전까지 주지 원명 스님과 봉은사운동본부는 4차례 만남을 가졌다. 원명 스님이 신도회의 독자적 활동을 약속하셨다”며 “앞으로 봉은사 및 신도회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봉은사운동본부의 즉각적인 신도회 복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옥곤 대표 등 봉은사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신도회칙 위반으로 제명되거나 징계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원표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최옥곤 대표 등이 발표한 참회문서 지난 날 얘기를 거론하는 등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참회 자체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8월 초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복권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봉은사와 신도회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봉은사 측은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신도회의 자주독립성을 부여한 만큼, 내부적 갈등도 자율적 해결에 맡길 전망이다.

봉은사 관계자는 “주지(원명) 스님께서 신도회의 자립 ·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셨다”며 “봉은사운동본부 측이 참회문을 발표하고 신도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해서도 신도회 내부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봉은사운동본부는 7월 24일 봉은사 일요법회서 대중 앞에 삼배를 올리고 참회문을 발표했다.

최옥곤 대표 등은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종루 개축 문제와 관련해선 “사찰 내부 문제를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시켰단 자체가 비불교적이었다”며 “저희들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어 세속 법에 호소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정도량인 봉은사를 소란케 했다”고 참회했다.

이어 “그동안 봉은사 신도들의 기도 신행 생활에 불편을 끼쳤으며, 승가와 재가 간 화합에 역행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며 “이 시간 이후 봉은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적 해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봉은사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뤄왔던 봉사활동도 정상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표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직선제 선거참여 ‘승랍 10년 · 법계 중덕’ 이상

26일 직선제특위 기준 설정

비구 · 비구니 평등참여 보장
선거인단 8300여명 예정
제도 보완 공청회 열기로



조계종 직선제 특위는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의 윤곽이 일부 드러났다. 승랍 10년 이상, 법계 중덕(비구니 법계 정덕) 이상의 일정 수준 소양을 갖춘 자면 비구 · 비구니 누구나 선거에 참여가능하다.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직선제 선거인단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마련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고심어린 논의가 이어졌다. 직선제 도입 여론이 높았던 대중공사에서도 선거인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출가자만의 선거가 72%, 재가자를 포함한 선거가 26%의 지지를 받은 바 있었으며, 출가자만의 선거는 세부적으로 승랍 10년 이상이 23%, 20년 이상이 23%, 30년 이상이 9%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출가자만의 선거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대부분의 특위 스님들은 기준 하향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선광 스님은 “사회에서 선거인 기준 연령을 낮추고는 있지만 승단은 승단만의 문화가 있다”며 “종단 사정과 후보자에 대한 기본지식 등이 축적되려면 승려가 된지 1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여기에 법계 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계종의 경우 91년 이후 출가자부터는 승랍 기준에 맞춰 승가고시를 치루고 합격한 이에 법계를 발급하고 있다. 승가고시에서 면접과 수행이력 평가 등 검증이 진행되며 종단 공직 취임시 법계에 기준하도록 하고 있다.

정산 스님은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총회 구성원 자격도 산중총회법에 중덕 이상으로 명시돼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고려 했을때 중덕 법계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공사에서 승랍 10년과 비슷한 지지를 받은 승랍 20년 이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직선제 특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직선제 도입시 선거인은 8,3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교구별 법계인원 현황(7월 19일자)에 따르면 중덕 이상 비구스님은 4117명, 정덕 이상 비구니 스님은 4210명이다. 승랍 10년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견덕(계덕) 법계 인원은 2905명에 불과하다. 조계종 승단은 승랍 30년 이상에 부여되는 종사(명덕) 품계 만도 4800여명인 역피라미드 구조다.

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법계 중덕 이상의 자격 도입시 변경해야 하는 제도와 법령에 대해 보고 받고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의 선거 참여에 대해서는 특위위원 전원이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 태관 스님은 “대중들이 지적한 그동안의 선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특위 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나가겠다”며 “지난 회의에서 결원된 위원 위촉을 비롯해, 공청회, 워크샵 등을 열고 의견수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회의는 8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제 7회 천태 어린이 · 청소년 사생대회

종합 대상에 류영민 · 이도현 학생…총 38명 수상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7월 24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서 ‘제7회 천태 어린이 ·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합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어린이 부문에 류영민(대구 대성사, 대명초 1) · 청소년 부문에 이도현(청주 명장사, 원봉중 1) 학생이 수상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백일장 어린이 부문 금상을 수상한 서혜진(서울 관문사, 방산초 3) · 청소년 부문 유지연(상진초 6) 학생과 사생대회 어린이 부문 금상 최가희(김천 금강사, 금릉초 4) · 청소년 부문 김세현(김천 금강사, 김천여중 1) 학생에게도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백일장 어린이 부문 은상에는 이수현(서울 삼룡사, 숭인초 4) · 청소년 부문 양다혜(단양초 6) 학생과 사생대회 어린이 부문 은상에는 김주영(창원 원흥사, 외동초 4) · 청소년 부문 양은정(함안 청안사, 가야초 5)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도 백일장 어린이 부문 동상에는 김도현(창원 원흥사, 명서초 3) · 청소년 부문 박건호(영춘지회, 영춘중 3) 학생과 사생대회 어린이 부문 동상은 이동혁(구리 금성사, 부양초 4) · 청소년 부문 장현영(단양 중학교, 단양중 2) 학생 등이 받았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구인사서 진행되는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통해 천태 학생들이 평소 생각한 꿈을 부처님 품안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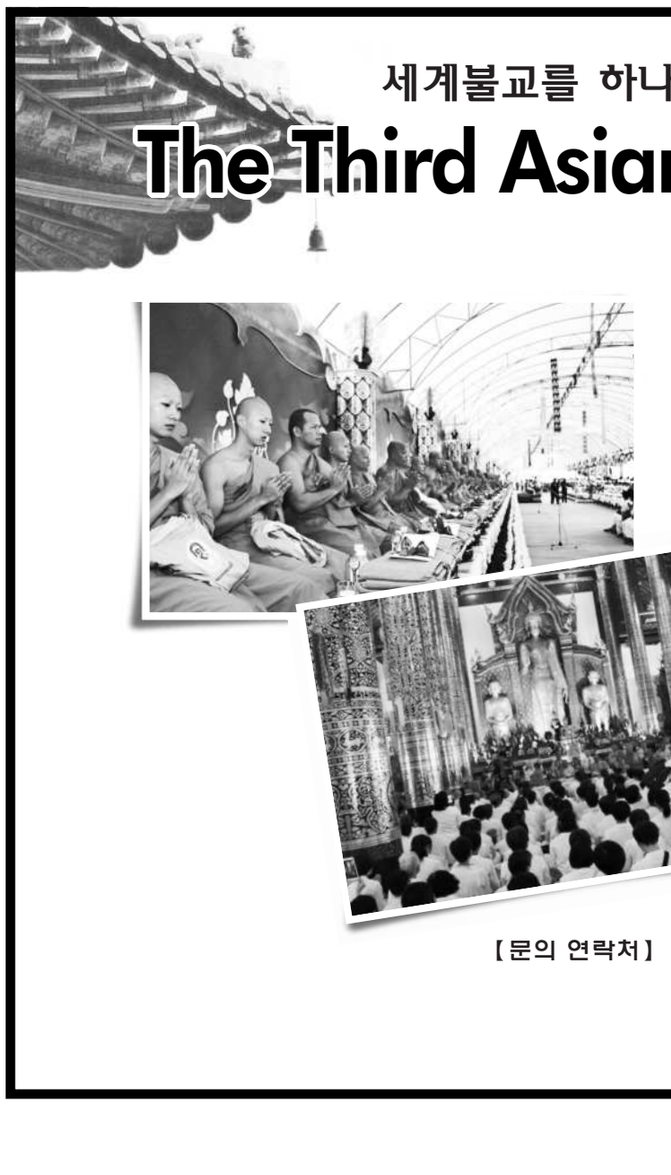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사 불상 훼손한 40대 남성 검거

조계사에서 불상과 코끼리상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김모(40)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조계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7월 10일 조계사에서 ‘미소불상’을 바닥에 던져 흠집을 내고 코끼리상의 발목을 부러뜨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사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불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

The Third Asian Buddhisi Cuiure Feslival 2016

제3차 대회

중국 광동성 육조사 주관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40여 개국 5천여 신도, 불교계 대표와 아시아 지역 승왕님을 모시고 한국 대표단 천태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여, 7월 17부터 19일까지 성공리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 한국불교(조계종)의 증흥조 이신 육조 혜능선사님의 기일을 맞아, 9월 2일(금요일)부터 4박 5일 광동성 육조사 행사 참여와 제17회 전법기행을 개최합니다.

① 전 법 : 조동종 26세, 위양종 11세, 보살계, 아사리 (가사, 장삼, 바루, 승복, 신발, 전법증서 제공)

② 사찰순례 : 광효사, 육조혜능선사(머리카락을 모신탑) 출가사찰, 대불사, 달마사(달마대사 중국 입경시 거하시던) 등 중국 최대 불교용품 도매시장 쇼핑

※ 전법제자의 특전 : 사단법인 세계불교 문화교류연맹 정회원 자격
· 중국 육조사 산하 22개 대형 사찰에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유수의 대학교와 협력된 승가과정 4년제 (2년 육조사 수행과정,대학2년) 장학과정으로 유학 (육조사 내 200여명 상시 거하며,수행 할 수 있는 시설 완비)
· 전법제자 연락 바랍니다.(전법자 수첩 제작 및 회원증 발급 준비 중)

■ 사)세계불교 문화교류 연맹 제2기 임원진 개편 합니다.
각 지역 지부장
각분과 위원장, 위원
임원진, 총재단, 고문, 자문.이사진, 등 기타.
뜻을 함께하여 세계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부족함을 채워주는 형제로써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 사단법인 세계불교 문화교류연맹
(본부는 홍콩)

총 재 : 영공 도성
명예총재 : 육조사방장 대원

【문의 연락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54-1 세계불교 문화교류연맹 TEL 053-767-8551 | FAX 053-765-4814 (010-3501-3005)

우리 모두의 뜻과 정성을 한데모아 땀도 함께! 보람도 함께!
사무총장 와룡 김대식 배상

불교를 넘어 세계서 우뚝 선 '희망 훈장'

만해 대상 20주년, 의미를 되짚다

만해 대상은 한국 사회의 무수한 단체들이 수여하는 상(賞) 중에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청년이 된 '만해대상'은 평화상부터 실천상·문예상 등 각 분야서 가장 뛰어난 역할을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 제정한 상이지만, 이들은 종교와 국경, 민족을 넘어선다.

20년의 시간동안 105명(곳) 수상자 및 단체가 나왔고, 수상자 배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6곳에 이른다. 이중 외국인 수상자(단체)는 36명(곳)이다.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월레 소잉카, 시린 에바디, 모옌 등이 만해대상을 받았다.

만해 사상 선양을 위해

만해 대상은 이름처럼 만해 스님의 애민 정신과 생명·평화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한 상이다. 백담사 회주 무산 오현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한 만해 대상은 1997년 평화상, 실천상, 학술상, 포교상, 예술상 5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됐다. 1회 수상자로는 △평화상 조영식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장 △포교상 숭산 스님 △실천상 가톨릭농민회 △학술상 이기영 박사 △예술상 이반 덕성여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규모는 성장했고, 특히 평화부문은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등을 잇달아 수상자로 선정하며 세계적 상으로 위상을 높였다. 달라이 라마는 "만해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방한은 성사되지 못했다.

만해 대상의 의미를 더한 것은 1999년부터 함께 시작한 '만해축전'이다. 1999년 8월 13~16일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만해축전은 한국문학 심포지엄부터 '만해문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까지 다채롭게 열렸다. 이 같은 만해축전은 매회 주제를 달리하며, 만해 사상을 문화·학술·사회적으로 적용·발전시키고 있다.

1997년 첫 수상자 배출

종교·인종·국가 넘어선

105개 수상자·단체 나와

1999년 축전과 결합하며

만해 사상 선양 '진면목'



숫자로 보는 만해대상 20년

105 총 수상자(단체)

26 수상자 배출 국가(한국 포함)

36 외국인 수상자(단체)

6 노벨상 수상자(김대중, 넬슨 만델라, 달라이라마, 월레 소잉카, 시린 에바디, 모옌)

5 국가원수급(김대중, 넬슨 만델라, 달라이라마, 엥흐바야르, 봉고 온딤바)



1997년 열린 제1회 만해대상 시상식



2015년 열린 제 18회 만해대상 시상식

오랫동안 만해 대상과 축전의 실무를 맡아 온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만해 대상은 생명·평화사상과 문학 등 만해 스님의 넓은 스펙트럼의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라며 "수상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시상하는 이유도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희망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만해대상 변화와 발전

만해대상과 축전의 위상이 높아지자 주최의 규모도 변화가 왔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에는 강원도와 인제군, 동국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조선일보사가 주최단체로 들어갔다. 특히 동국대는 2013년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운영한 만해마을을 무상증여 받았다. 당시 '무상증여'를 결정한 무산 오현 스님은 "그동안 만해마을을 건립해 만해스님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스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1기 졸업생인 만해 스님은 동국대를 상징할 수 있는 분으로,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동국대가 스님의 정신을 잘 받들어 계승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청년기가 된 '만해 대상'을 유지·발전 시키는 것은 이제 공동의 몫이 됐다. 오원배 만해축전추진위원장은 "만해 대상은 만해축전과 결합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이 됐다"며 "'자유·평등·평화상'은 만해 사상의 핵심이다. 이를 '어떻게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학생 1:1 후원

사찰당 매월 10만원씩 2년간

(재)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최초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가 9월 5일 개교를 앞둔 가운데, 아프리카 학생을 후원하는 '한 사찰 한 학생 인재 키우기' 사업이 시작된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사찰 1곳이 한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씩 2년간 결연 후원하는 '한 사찰 한 학생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사찰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학생들의 교육·보건·의료·숙식·교복 및 학용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부처님을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부처님을 만나고, 또 부처님 자비 속에서 불교를 배워갈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먼저 오는 9월 입학하는 60명 학생을 대상으로 1차 결연하고, 2017년 신학기 입학생 6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행 측은 개인 후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참문의 (02)737-9595 농협 301-0112-9859-51

박아름 기자

"역사문화 파괴하는 서울시, 즉각 협의하라"

봉은사, 27일 서울시에 지구개발 보류 및 협의 요구



서울 봉은사는 7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에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전부지를 포함한 서울시의 삼성동 일대 지구단위 개발이 이행되면 봉은사의 수행환경과 역사문화가 크게 훼손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인근의 개발에 대해 서울시는 봉은사와 즉각 협의하라."

서울 봉은사가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을 포함한 지구단위 개발 이행에 대한 협의를 촉구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현대차 개발을 비롯한 서울시의 개발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미터 안에서도 이뤄진다.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봉은사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행위가 법에도 저촉되는 만큼 주민대상 의견 청취 및 봉은사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측은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으로 인근지역과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도시건축동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검토했다.

봉은사 집회에 앞서 강남구 주민들이 개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한전부지가 속한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사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총무국장 법원 스님 등 봉은사 측 대표단은 심의위 위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봉은사 총무국장 법원 스님은 "개발현장과 봉은사까지의 거리가 불과 400여 미터"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위드아시아, 2016 합천 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협회 공동주최… 8월 5일 경남 합천서

원폭피해자협회 및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8월 5일 경남 합천서 '2016 합천 비핵·평화대회'를 개최한다. 피폭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에 공감하는 한편, 국내 피폭자들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고양시키는 자리다.

행사는 △비핵·평화 이야기 한마당 △비핵·평화 영화상영회 △비핵·평화 난장 △비핵·평화 터벌림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비핵·평화 이야기한마당'서는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허광무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박사가 '체르노빌에서 탈핵까지'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비핵·평화 난장'에선 원폭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평화 지문나무를 만들고,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사진으로 남긴다.

'원폭 71년과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 같지만 다른 하루'란 테마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사)위드아시아는 공동 주최하고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이 주관한다. 또한 경상남도, 합천원폭피해자복지관이 후원한다.

한편 합천평화의집은 8월 6일 오후 1시 합천군 율곡면 대야로 1313 1층서 '한국 원폭2세 환우 생활 쉼터' 개원식을 개최한다. 평화의집은 원폭 1세 생활 쉼터다.

합천평화의집 측은 "합천에는 원폭피해자 1세를 위한 유일한 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있다. 하지만 원폭피해자에 비해 정원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원폭2세 환우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입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원폭2세 환우들을 위해 세계 최초 '원폭2세 환우 생활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정관계·불교계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생명나눔에 써 달라"

익명의 스님, 2000만원 기부

익명의 비구니 스님이 "생명나눔운동을 위해 써달라"며 7월 26일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측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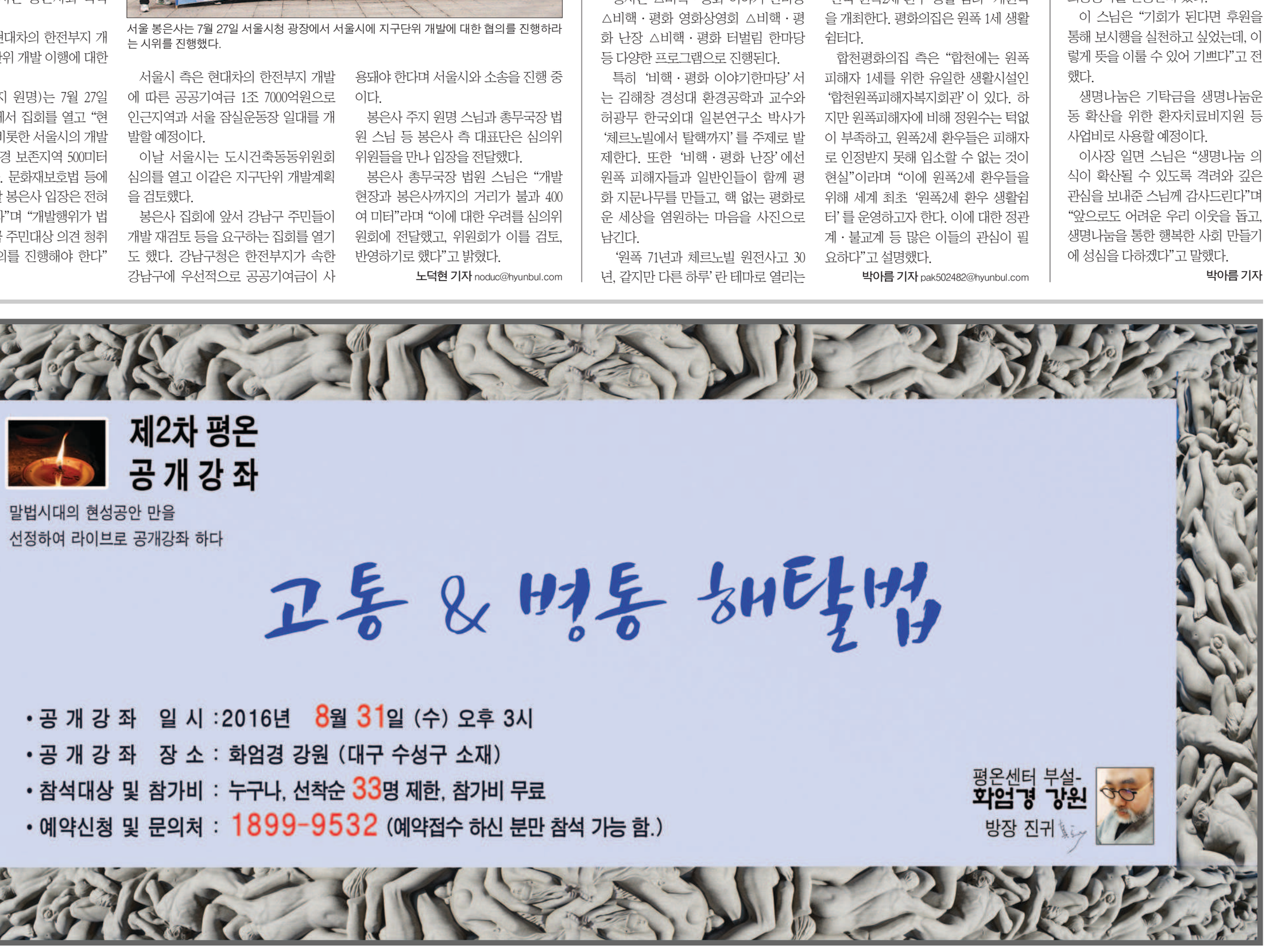
이 익명의 스님은 오래 전 생명나눔 본부의 활동 취지에 공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한바 있다.

이 스님은 "기회가 된다면 후원을 통해 보시행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뜻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생명나눔은 기탁금을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환자치료비지원 등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격려와 깊은 관심을 보내준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고, 생명나눔을 통한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일 주 문



평창월정사 탑돌이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8월 12일 오후 7시 월정사 팔각9층석탑 앞에서 '2016 평창월정사탑돌이'를 봉행한다.



추억의 산사영화제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8월 17일 오후 2시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옛 추억의 설렘을 찾아가는 산사영화제'를 개최한다.



百高座 경율론 대설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 스님은 10월 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제32회 백고좌 경율론 삼장 대설법회'를 봉행한다.



어린이 연합불교학교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8월 6~8일 순천 송광사서 '2016년 전국어린이 연합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어린이 영어 담마캠프

자우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스님은 8월 4~7일 속리산 법주사서 '제10회 어린이 영어 담마캠프'를 개최한다.

북한이탈주민 '바리스타 되기'

한솔福, '디자(自)인 아카데미' 개강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7월 23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디자(自)인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분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장기간의 탈북과정서 문화적 ·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다. 또한 남한 입국 후에도 취업의 문턱에 부딪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해소하고 자진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디자인 한다'는 주제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장 가섭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한다"며 "디자인 아카데미 참여를 통해 희망을 찾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아름 기자



"신해행증 일념으로 새 신행문화 개척"

창립 10주년 맞은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Interview

조재연 동문회장 · 김경숙 총무부장

"교육과 신행, 봉사가 함께 하는 동문문화가 불교계에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법을 알고, 행을 닦는 신해행증(信解行證) 일념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자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 300여 명은 7월 22일 조계사 대웅전서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새 신행문화 개척을 발원했다.

조재연(61 · 사진 오른쪽)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7월 27일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회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10주년은 신행조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통 다른 사찰의 경우 불교대학 출신 동문들이 따로 뭉치기가 쉽지 않다. 동문조직이 활성화돼있지 않아 신도회 차원서 불교대학 출신들을 관리한다. 하지만 조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대학 건물 내 사무실을 두고 회원 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다른 사찰의 동문회와 다른 점은 사찰 내 동문회만의 활동영역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매년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인원은 150여 명 수준이지만 모두가 동문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졸업 후 사찰 소임이 없는 이들은 낮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기획부, 교육부, 문화부, 포교부, 신행부, 봉사부, 재무부, 홍보부 등 총 8개 부서로 구성돼있으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교대학 졸업 기수별로 부서장이 배정돼있다. 고문 10명을 포함해 전체 임원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

조재연 동문회장은 이날 사찰 내 신도들의 역할이 있어야 사찰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조계사 불교대학은 1989년 여성불교 교양대학으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1년제 교양대학이어서 소속감이 낮고, 동문 활동이 미미했다. 1992년 2년제 개편 이후 동문회 활동 참여가 급격히 늘었다"고 동문회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사실 1990년대 초부터 동문조직이 있었지만 사찰 측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2년제로 변경되고 인원 증가와 조직력 확대로 사찰과 공조체제가 굳어졌다. 96년을 정식 출범으로 보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동문회 특유의 조직력으로 불사 등 사찰활동에 기여해 이제는 스님들도 반긴다고 덧붙였다.

1996년 정식출범 후 조직 확장
8개 부서두고 다양한 활동 전개
"사찰서의 역할이 동문 구심점"

조 회장은 "현재 조계사에서 의무교육을 비롯해 불교대학 2년 과정, 불교대학원 2년 과정, 선림원 2년 과정 등 총 7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 교육 형태를 띠는 것도 동문회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경숙(52 · 사진 왼쪽) 총무기획부장은 "대웅전 청소와 기도 집전 및 봉사 등 신도기본업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총동문회는 8개 부서가 각기 다른 활동을 전개한다. 문화부의 경우 산악활동과 체육대회 개최, 포교부는 찬불가 합창동아리 운영, 교육부는 포교사 고시반 운영 및 특강 진행, 홍보부는 동문지 편찬 등 업무를 진행한다.

김경숙 부장은 "홍보부의 경우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분 등 관련자가 PPT 제작과 카페 운영을 하는 등 역량에 맞춰 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달 한 차례 '53선지식 초청특강'을 진행 중이다. 동문회 내 53선지식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로 강사 섭외와 프로그램 구성, 영상 녹화 및 보도 등을 모두 진행한다. 지금까지 명법 스님, 전현수 박사, 박광서 교수 등이 강연에 나섰다.

조재연 동문회장은 "3년 여 기간이 남은 53선지식 특강을 비롯해 신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방촌 재생활성화, 동국대가 나선다

동국대, 7월 25일 서울시와 해방촌 재생 MOU

해방촌 도시 재생활성화를 위해 동국대가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7월 25일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서울시와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동반자로서 상호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캡스톤디자인) 운영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 멘토링 및 현장실습, 봉사활동을 통한 상생협력 △동아리와 연계한 지역축제 활성화 △해방촌 군인아파트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등이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한광야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신흥시장을 '아트마켓'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해방촌은 남산을 사이에 두고 동국대와 가깝게 있는 이웃마을"이라며 "대학 본연의 목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해방촌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는 동네'가 됐지만 여전히 노후 저층주거지와 신흥시장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동국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방촌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제3차 아시아 불교문화교류대회 성료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7월 17~19일 태국 치앙마이서

(사)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총재 대원, 中육조사 방장)은 7월 17~19일 태국 치앙마이서 중국 광동성 육조사 주관으로 '제3차 아시아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40여 개국 5천여 불교지도자 및 신도들이 참가한 이번 축제에 한국대표단은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2009년 5월 21일 서울 올림픽공원서 열린 '한-중 불교교류 제2회 한국 육조제'서 한국과 중국 측 불교지도자들이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11년 캄보디아서 1차 대회를, 2013년 스리랑카서 2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은 전 세계 수십여 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는 홍콩에 있으며, 한국지부는 대구 수성구에 있다. 한국지부 총재는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이 맡고 있다.

한편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한국지부는 육조 혜능대사의 기일을 맞아 오는 9월 2일 4박5일 일정으로 광효사, 육조사를 참배하는 제17회 전법기행을 개최한다.



전법기행은 조동종 25세 · 위양종 10세 법맥을 갖고 있는 육조사 방장 대원 스님으로부터 보살계와 아사리계를 전수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가사와 장삼, 승복, 신발, 전법증서 등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광효사와 육조 혜능대사 출가사찰, 대불사, 달마사 등을 순례한다.

전법제자에게는 연맹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육조사 산하 22개 대형사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중국유수 대학교와 연계된 승가과정 4년제 장학과정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8월 22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 l: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대한불교진각종은 7월 26~28일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서 '2016 회당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사진은 올해 창종 70년을 맞은 진각종이 26일 금강원서 100년 서원을 담은 대형 풍등을 밤하늘에 띄워 보내는 모습.

고희 맞은 진각종, 100년을 꿈꾸다

2016 회당축제 7월 26~28일, 울릉도 일대 달궈
무진서원불사 · 독도아리랑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깎아지른 산세가 위용을 뽐내고, 눅눅한 바닷바람이 살갗을 쓸고 지나가는 울릉도. 인구 70%가량이 개신교신자인 이곳에 조금은 낯선 죽비소리가 노을 진 뒤의 적막을 깼다. 탁, 탁, 탁…. 이윽고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는 진언인 육자진언이 바람을 타고 곳곳에 울려 퍼졌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1947년 6월 14일 회당 손규상 대종사가 진각종을 창종한지 70년 되는 올해, 한국불교 최대 밀교종단으로 거듭난 진각종 진언행자들이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국가와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바로 7월 26일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서 열린 '2016 회당문화축제-진각 70년 종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금강원 무진서원불사'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창종의 기원이 된 울릉도에 인연지로서의 은혜를 갚고, 회당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창종 70년과 회당문화축제 15회를 기념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각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코자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

총인 성초 정사의 증명 아래 진행된 행사는 교리참회와 육바라밀 꽃 공양으로 문을 열었다. 청년불자 6명은 각각 꽃바구니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금강원 회당 종조 진영에 공양을 올렸다. 이후 대중은 강도발원(입재발원)과 오대서원, 종조법어 봉독을 하며 진언행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진각종의 70년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동영상 상영이 끝난 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법어를 통해 향후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역설했다.

회정 정사는 "올해 초 종무행정 방침을 '혁신으로 진각 100년을 향한 토대 마련의 해'로 정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교리와 교법 등 진각종을 진각종답게 하고, 행정시스템을 포함해 포교와 교화에 걸림돌이 되는 겉치레를 과감히 바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종조께서는 본각과 시각이 구경에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다 깨친 것을 진각이라고 하셨다. 진언행자들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정 정사는 △총인원 성역화불사 원만회향 △세계불교도우의회 성공적 개최 △종단 70년사 정리 등을 위해 대중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정 정사는 종단이 펴낸 〈진각종 70년사〉(전자도서)를 종조 진영에 봉정했다. 이 책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2개씩 순차적으로 작업해 내년 초까지 총 50권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 홈페이지에 전자도서 형태로 제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진각종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포교 · 교육 · 복지 · 문화 등 종책별 각 분야의 논고를 집대성할 계획이다.

봉정식 이후에는 회정 정사가 관정의식을 통해 대중에게 각각 관정수를 내렸다. 꽃 한 송이를 들고 금강원에 들어간 신도들은 관정수를 받은 뒤 더욱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종단 불사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행사 말미에는 종단 내빈이 대표로 진각종단의 서원을 담은 대형 풍등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와 더불어 청년불자들은 행사를 기념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여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자원봉사자로 행사에 참여한 진각종 청년회 강혜진(27) 씨는 "진각복지재단 합창단과 진각종 청년회 등 청년 자원봉사자만 50여 명이 동참했다. 오고 싶지만 일정상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며 "대규모 행사를 치른 뒤 청년회원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신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회당문화축제는 불자들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학교 공지로 축제를 알게 됐다는 정서인(진선여중1) 양은 "가끔씩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다. 덕분에 회당문화축제에도 관심이 생겼다"면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즐겁고 신난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축제에 참가한 김경옥(47) 씨는 "양산에 있는 심인당에서 신행생활을 하다 큰 맘 먹고 울릉도에 왔다. 올해가 창종 70년이라 더욱 뜻 깊고 가슴 뭉클하다"며 "종단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 한국불교를 하나로 뭉치는 데 선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튿날 오전, 성초 정사와 회정 정사를 비롯한 종단 중진은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행정선을 타고 독도를 방문했지만 파고가 높아 접안하지 못한 채 울릉도로 돌아왔다. 이후 오후 7시에는 도동항 특설무대서 '독도아리랑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조선시대 공도(空島)정책으로 인해 섬을 떠났다가 조선후기 울릉도 개척령 반포에 따라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울릉도아리랑을 메인테마로 잡았다. 이 곡을 김회경 작곡가가 편곡하고, 경기소리꾼 이미리 씨가 불렀다. 아울러 장미여관 · 한영애 등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수들도 대거 출연, 울릉도의 여름밤을 신명나는 음악으로 적셨다.

한편 7월 28일까지 이어진 회당문화축제는 도동항 소공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펼쳐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울릉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각 70년사〉를 종조 진영에 봉정하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금강원서 열린 무진서원불사 모습.



경기소리꾼 이미리 씨가 독도아리랑 콘서트서 울릉도아리랑을 열창하고 있다.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3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회장,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9월 5일 ~ 12월 12일, 매주 월(月) 18:30~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9월 5일(월) 18:00 ~ 미래학특강 외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복지계, 장애 극복한 전문 선수 육성 '열풍'

불교 복지재단 산하 시설서 운동부 창설 '인기'

불교계 복지재단 산하 시설서 장애를 극복한 운동부 활동이 열풍이다. 시설들은 기존 장애인들의 취미 또는 건강관리를 목표로 한 체육 프로그램서 진일보, 전국 대회 출전을 비롯한 선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문 체육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배드민턴 선수반을 운영 중이다. 지적 · 자폐 · 뇌병변 장애 청소년 7명 및 지체장애 청소년 1명으로 구성된 선수반은 2013년 창설 직후 열린 8월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서 금 4개, 은 1개, 동 3개를 획득하고, 2015년 8월 LA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서 금 2개(혼합복식 · 여자복식), 은 2개(남녀단식)를 획득할 만큼 실력이 정평 났다.

이에 성북장애인복지관은 관내 생활체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해 온 '배드민턴 엘리트반'을 올 3월 '배드민턴 선수반'으로 승격했다. 이후 매달 우수선수 3명을 선정해 재능장학금을 지원하고, 외부메달 획득 시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원조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선수반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니폼 · 셔틀콕 · 라켓 등 뿐 아니라 공식 훈련 3시간 외 자율운동을 위한 체육관 입장료도 지원한다.

전폭적인 지지 속 선수단은 동아시아지역 스페셜 올림픽 여자단식 부문 금메달을 비롯해 올해만 10여개에 달하는 메달을 획득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측은 "장애인 선수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등 현실적 고민에 부딪히며, 지속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선수반에게 안정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 체육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수영반도 운영 중이다. 2007년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관내 '수영교실'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국내 대회에 출전, 특히 2015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영대회서 금 · 은 ·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입상의 쾌거를 이루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측은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수영대회에 참여한다"며 "입상 후 장애인 선수들의 자신감 향상과 함께 보호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2016 동아시아지역 스페셜올림픽 배드민턴부문서 금메달을 차지한 문지연 선수에게 재능장학금을 지급했다.

취미 · 건강관리 수준서 벗어나
복지관 지원 체계도 확립
국내외서 우수한 성적 거둬
실업팀 창단, 종목 확장 등 계획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권순관)은 '어울림탁구클럽'을 운영 중이다.

어울림탁구클럽은 올 4월 창단된 신생 운동클럽이다. 이 역시 2015년 9월 '탁구교실'로 시작돼 현재 24명 장애인 회원이 활동하는 '탁구 선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동포항로타리 백합회'가 탁구대 및 탁구용품을 지원하고, '미라클탁구장' 관장 및 회원들이 훈련 봉사에 함께하는 등 지역사회 협조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6월엔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장기 장애인탁구대회에 첫 출전한 바 있다.

최병곤 어울림탁구클럽 회장은 "10년 전 쯤 뇌졸중에 걸려 고생하던 중 지난해부터 복지관 탁구교실에 참여했다. 그전엔 뇌 기능 저하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악화됐었는데 운동을 통해 평상시 기분 전환에도 매우 좋고, 재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며 "또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 후원해주니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고 흡족해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관내서 실시 중인 전문 스포츠 사업 내에 '사람사랑 스포츠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군포빅스농구선수단 △스마일배드민턴선수단 △군포청춘탁구선수단 등 총 4개의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일제히 창단된 농구단과 탁구단, 배드민턴단은 각각 10명, 4명, 5명의 선수를 보유해 선수층이 두텁진 않지만 소수정예의 성과를 거둬 왔다. 탁구단과 배드민턴선수단은 지역 대회를 중심으로 출전을 지속하며 실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농구단은 2014년 제7회 고양시장컵 전국지적장애인농구대회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다.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측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재활, 건강증진, 여가선용 뿐 아니라 개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종목별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 전문 스포츠 선수를 배출할 것이다. 현재 구기종목 뿐 아니라 보치아(boccia) 및 슐런(Sjoelen) 등 종목 선수 육성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운동부 열풍은 장애인들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평가다. 성북장애인복지관장 선재 스님은 "스포츠는 성인 장애인들에겐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기도 하고, 일상에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또 발달 장애인들에겐 그 자체로 미래의 '꿈'이 되기도 한다"며 "사람들과 자주 모여 훈련하고,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며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재 스님은 지원 체계 확립과 미래지향적 운영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선재 스님은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생계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라며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고등학생인 배드민턴 선수들의 졸업 시기에 맞춰 실업팀 창단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손오공! 편식은 안 돼!"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식습관 개선 뮤지컬 공연

사찰음식의 정신을 담은 최초의 뮤지컬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찾았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은 7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뮤지컬 '그거 알아요? 음식은 생명!'을 공연했다. 공연은 프로젝트 극단 '나무의 꿈'이 맡았다.

뮤지컬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여행을 하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뮤지컬은 지난 2014년 수원 봉녕사 '세계사찰음식 대향연' 초연 이래 서울시 초등학교 25곳, 서대문구 등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30여회의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공연에 앞서 무대에 선 선재 스님은 "개인적으로 음식을 통해 아픔을 치유해 새 삶을 살게 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 영화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싶었다"면서 "이 뮤지컬은 음식을 포교와 수행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거리공연으로 유명한 불자가수 박희진 씨와 어린이 중창단 '소리달'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윤호섭 기자

우란분절 백중기도 전국서 일제 봉행

6월 30일 입재 후 백중일 8월 17일 회향 앞둬
7일 기도, 영가천도재, 철야기도 등 '다채'

우란분절(백중)은 부처님 십대제자 중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원한 것에서 비롯된다. 불자들은 하안거를 끝내고 자자(自恣)를 하는 날인 음력 7월 15일 백중기도를 올리며, 부모의 무병장수와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이에 전국 사찰들은 6월 30일부터 일제히 백중기도 입재에 들어갔다. 49일간 진행되는 백중 기도는 우란분절인 8월 17일(음력 7월 15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대구 동화사는 6월 23일~8월 17일 입재 · 6재 · 회향에 걸쳐 백중기도를 올린다.

특히 6재가 진행되는 8월 10일 통일기원대전(대불전)서 유명계(영가)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유명계(영가) 수계법회란 영가 제위들에게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재가자로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오계를 수지하는 자리다. 수계법사는 팔공총림 율원장 능조 혜수 스님이다.

또한 17일 오전 9시 30분 통일기원대전서 회향법회를 열고, 반야용선 진수식 및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다비식을 진행한다. 조계종정 진제 스님의 하안거 해제법회가 예정돼 있다. (053)980-7900

의성 고운사는 8월 17일 오전 10시 영가천도 대법회를 봉행한다. 동참금은 영가 1위패 당 1만원, 가족 축원 3만원, 백중영가등 5만원이다. 당일 차량 운행도 실시한다. 차량 스케줄은 고운사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054)833-2324

순천 송광사는 8월 10일 오전 10시 입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경내 지장전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한다. 동참금 10만원. (061)755-5306

선본사 갓바위는 6월 30일~8월 17일 우란분절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백중 49재는 매주 수요일 11시 유리광전서 진행되며, 특히 8월 7일 오전 9시 갓바위 약사여래전서 영산대재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053)851-1868

순천 선암사는 8월 11~17일 매일 오전 10시 백중 7일기도를 실시한다. 동참금은 가족축원 5만원, 영가 1위당 1만원이다. (061)754-5247

공주 갑사는 백중기도 49일 동안 금강경 독송을 진행한다. 동참금은 생축기도비 5만원, 위패비 영가 1위당 1만원이다. 입재와 백중 당일엔 버스 운행도 제공한다. (041)857-8981

이밖에도 평창 월정사, 공주 마곡사, 예산 수덕사,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경남 통도사, 전남 백양사, 고창 선운사, 양양 낙산사, 전북 내장사, 강화 보문사 등서 우란분절(백중)인 8월 17일까지 백중기도 법회를 진행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8월 20~21일, 가평 백련사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무각)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8월 20~21일 가평 백련사서 자살시도자,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 등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 주제는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다. 2016년 서울시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4대 교단과 연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살고위험군인 사람들이 휴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첫날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으로 시작된다. 1시간 반가량 대중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저녁공양 이후에는 함께 저녁예불을 올리며 사찰에서의 마음가짐을 다진다. 또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그동안 사회 속에서 지쳐버린 심신을 달랜 뒤 김준형 열린사이버대 교수의 영화치료를 체험한다.

이튿날에는 잣숲길 산행을 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고, 전문가와의 집단상담을 통해 쉽사리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는 기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로 템플스테이를 마무리한다.

템플스테이에는 자살예방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26명 모집하며, 8월 10일까지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http://kbcd.org)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jabi7378@naver.com)로 하면 된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편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50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복학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총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계사, 병접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계탑윤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8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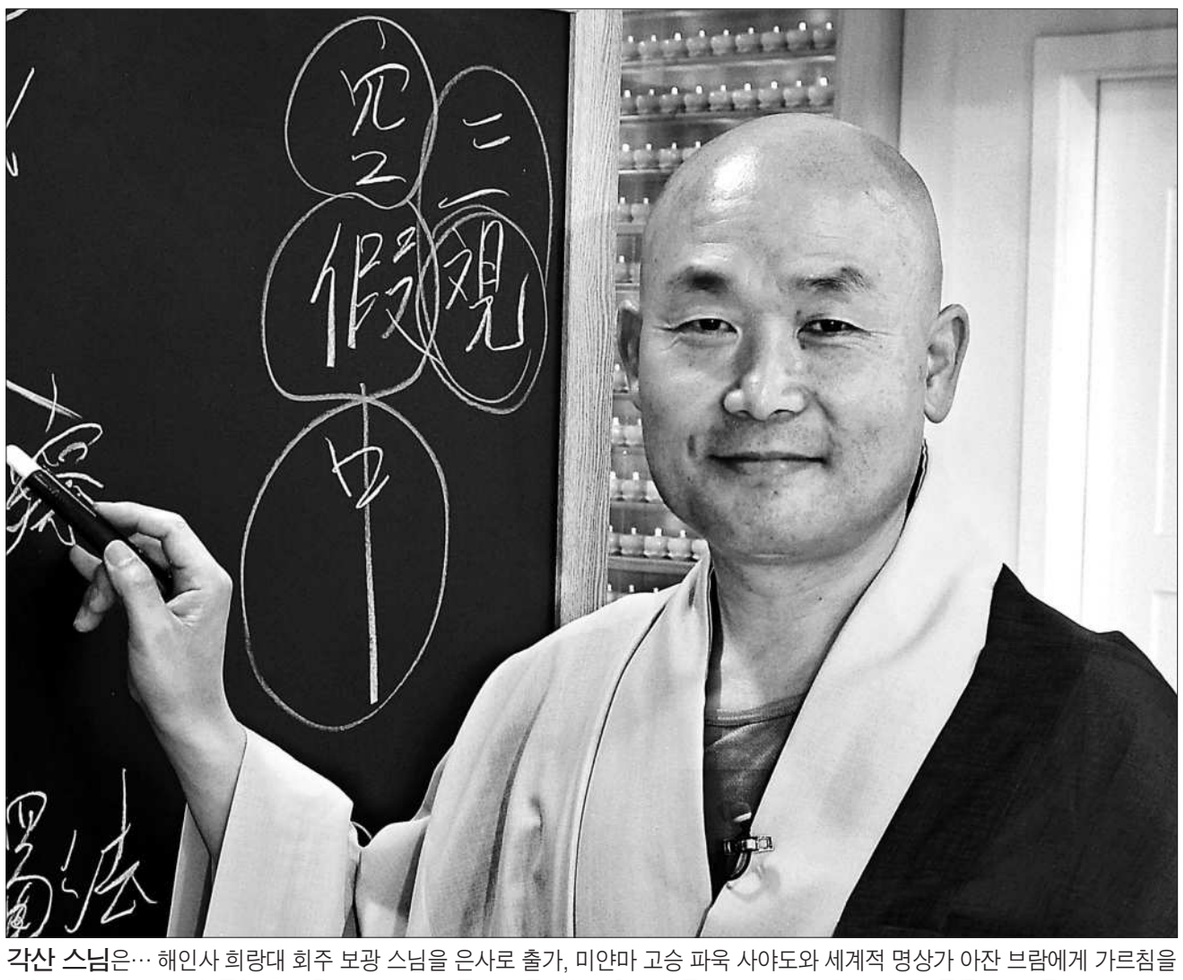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인식론 한계 넘어 깊은 사유할 때 행복”

참불선원 강좌…〈금강경〉으로 본 인식론의 고찰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흔히 사람들은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종교에 기대 기복적인 신앙을 하곤 한다. 절대자가 갖는 위대함이 내 능력 밖의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 설법을 통해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다. 서울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7월 25일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부처님은 열반에 오르기 위해 과정에 사용된 중간 수단을 단호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인식론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 깊은 사유를 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각산 스님은… 해인사 희랑대 회주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 미얀마 고승 파욱 사야도와 세계적 명상가 아잔 브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해인사 승가대 졸업 후 송광사 · 범어사 · 통도사 등 제방선원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호주, 중국, 인도 등지서 10여 년간 수행했다.

생각이 고통이다

근대 철학의 갈래 중 하나로서 인식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이나 지식이 어디서 기원했고 구조는 어떠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습득되는지를 연구합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쟁쟁한 철학자들이 인식론을 많이 다뤘습니다. 인식론을 연구하면 인류 삶에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사회적 규범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인식론적 명제를 남겼습니다. 데카르트가 살았을 당시 유럽 정신사는 기독교 신앙 체계가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에 의해 인류가 존재하고, 신의 뜻대로 인류 삶의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신이 아닌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인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적 인식론을 한 번에 뒤집은 혁명적인 사고 때문에, 사람들은 데카르트 철학을 근대 철학의 시초라고 일컫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근대의 시초를 마련한 데카르트의 혁명적 사상은 위대하지만 불교적 인식론의 깊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자들이 제각각 주장을 펼치며 인식론 명제를 내놨지만 결국 서로에게 왜곡된 견해들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 이성의 행위적 주체나 사유의 주체가 의식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의식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불교는 탐착을 만드는 주체인 ‘인식’이 실체가 없다고 밝혀 한 단계 더 나아간 사유를 이끌어냅니다. 불교적 인식론은 지식 전체를 아우르는 논리로 인해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 철학을 통해서 보면 견고한 서양 철학이라도 왜곡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 사상의 정수를 262자로 압축한 경전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만물이 텅 비어 있는 ‘공(空)’한 상태라는 이치를 알려줘서 이들을 열반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데카르트가 신을 부정하기 위해 내놓은 ‘생각’이란 개념은 사실 사람들에게 탐착과 고통을 전달합니다. 불교적 인식론은 자아가 바깥 대상과 접촉하면 반드시 느낌을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애(愛)를 낳고, 이 애는 집착을 낳습니다. 집착으로 인해 존재는 인식되고,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마음작용 분석하기

이런 인식의 인과작용을 ‘유식설’이라고 합니다. 유식에는 3가지 인식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고 두 번째는 의타기성(依他起性), 마지막은 원성실성(圓成實性)입니다.

위 개념들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뱀 모양을 한 새끼줄’의 비유를 많이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뱀을 발견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살펴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습니다. 뱀으로 오인한 새끼줄을 발견한 사건처럼 온갖 분별로 마음속에서 허구적 대상을 지어내는 것을 변계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뱀에 의해 공포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연기(緣起)적 현상이 의타기성입니다. 그런데 다시 잘 살펴본 뒤 새끼줄이란 것을 발견하고 안도하는 마음처럼 존재의 진실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이미지가 촉발하는 느낌은 공포 혹은 안도감 같은 감정을 사람들에게 인식으로 심어줘 특정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서 현상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실 느낌은 가치중립적 사건입니다. 단지 접촉으로 인해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자아가 대상을 만날 때 느낌이 촉발되는데, 이 느낌에 ‘나’를 개입시키는 순간 집착이나 성남 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벗으면 각종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 **자아가 왜곡한 세상은 ‘고통’**
> **‘나’라는 인식조차 空한 관념**
> **수행 통해 만물 변화 관조하면**
> **집착 사라지고, 내면 행복해져**

금강경 사구게를 통해 부처님은 위와 같은 맥락인 제행무상 · 제법무아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보화가 사구게 한 게송만큼 소중하진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사구게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전달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제1구게는 ‘범소유상 개사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입니다. 해석하면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뜻이 됩니다.

제1구게를 이해하기 힘들면 제2구게의 가르침으로 보충합니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은 현상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고 어디에도 머무는 마음 없이 무심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 고통이 따릅니다. 두뇌는 실체 없는 과거를 있다고 착각합니다. 인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빚은 ‘앎’ 자체를 나라고 여기지 말고 무심히 흘려보내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3구게는 초기 경전서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따와 지었습니다.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제2구게 가르침으로도 무심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절입니다. ‘만약 시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는 삿된 사도(私道)를 행하는 것이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존재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란 기도를 올렸던 브라만교의 행위를 타파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뗏목의 비유를 들어 열반에 오르기 위해 그 어떤 중간 수단도 단호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강을 건넌 뒤 뗏목을 버려야지 계속 뗏목에 집착하면 열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보고 만지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진리를 통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제4구게는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으로 현상계의 모든 것은 열반 이전까지 생멸을 반복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만물이 꿈이나 환영 같아서 찰나로 생멸하니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마음공부는 행복의 시작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근거는 위와 같이 충분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논리를 제공하는 학문이 아닌 실천체계를 갖춘 총체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통해 적절한 수행법도 알 수 있습니다.

사성제(四聖諦)가 대표적인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는 대자유의 기본조건으로,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의 네 가지 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제는 고통에 찬 현실을 바르게 보는 가르침, 집제는 온갖 번뇌가 고통의 원인임을 지적하는 가르침, 멸제는 번뇌를 남김없이 멸해서 해탈에 이르는 상태, 도제는 해탈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방법(팔정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집멸도라는 네 가지 기본적 이론과 실천 철학을 길잡이 삼아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상(我想)과 자기만의 견해에 휩싸이게 됩니다. 계율을 지키면 고요한 삼매를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선정에 든 상태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진과 선정을 통해서 올바른 사유체계와 만날 수 있습니다.

선정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평온하게 된 상태를 산스크리트어로 사마타(samatha)라고 합니다. 이 사마타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상을 그대로 관조하는 위빠사나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위빠사나는 편견이나 욕구를 개입시키지 않고 현상 그 자체를 관조하는 수행법입니다. 사마타의 고요한 상태에 이른 후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는 대상을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느낌을 잘 관찰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느낌이 빚은 관념으로 세상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주관은 관념이 모여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의도를 배제한 채 대해야 합니다. 존재를 인식해도 거기에 감정만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을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해탈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두 개로 구분 짓지 말고, 하나로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평화롭게 지켜보는 가운데 ‘앎’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식작용에 의해 왜곡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판단으로 해석된 삶을 삽니다. 만약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외부조건이 아닌 우리 내면의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위해 위빠사나를 하는 이유입니다.

참행복으로 가는 무소유의 생활선법(生活禪法)

화제의 신간 禪과 무소유

일상생활 전체가 선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좋든 싫든 간에 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의 특색이다. 그래서 **선은 상식을 초월한다.** 그리고 초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초월이라는 그것마저 초월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선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 명상 또한 아니다. 그것은 **일체의 지식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다.**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축척하는가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관념들을 집착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가 가득차 있다고 느끼기 위함이다.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15,000원

법성요해 法性了解

깨달음의 궁극, 원융일심 화엄실상 법성지혜를 밝힌 책

▣ 원융불이 이사원융 사사무애 실상법계 일심의 깨달음세계를 이 책에 밝혔다.

♠ 화엄실상, 원융일지(圓融一智) 일심요의(一心了義) 각성의 실상을 밝게 드러내어 밝혔다.
♠ 깨달음 지혜로 일심, 일성, 일각의 실상을 정의하며, 일심원융세계를 밝혔다.
♠ 각종 차별개념과 중용, 중도의 실상과 그 차별 차원을 밝혔다.

신국판 | 세웅스님 역저 | 464쪽 | 정가 25,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불기 2560년 대한불교대승종

봉행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0(2016)년 9월 6일(화) 오후 3시 – 9월 8일(목) 오전 11시**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경남 함양군 안이면 탁현길 24-1(용추계곡) 황석산 령암사(교육원) 055-962-3721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18-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 대승종 교구종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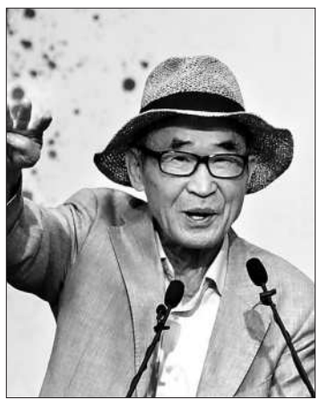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한국인, 말 의한 · 떠난 진리 지녀야"

고은 시인, 26일 한국어교육자 국제대회 강연서

'한국어의 미래' 주제로 재외 한국어교육자 대상


고은 시인이 '2016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해가 진 뒤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는 어둠 속에서 존재의 빛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언어 없이 인간 존재는 성립되지 않고 모국어 없이 민족의 본연은 불가능하다."

승려 출신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인 고은 시인이 한국인의 언어철학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했다.

고은 시인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영담)이 7월 26일 개최한 '2016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 앞서 '한국문학과 한국어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고은 시인은 "비록 한자이긴 하지만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당송의 시로부터 해방된 허균이나 나는 조선인이므로 조선시를 쓰겠노라던 정약용, 한글시를 남긴 정철과 윤선도는 고대 시가의 위대성을 상속한 모국어의 영광"이라며 "원효가 말에 의한 진리(依言眞如)와 말을 떠난 진리(離言眞如)를 합치한 것은 실로 고대 이래 한국인이 갖춰야 할 언어철학의 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향후 계획도 밝혔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모국어사전'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모국어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도 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사전의 정서법, 두운법칙이나 어휘 등의 문제가 난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 행사를 주최한 교육부의 이영 차관, 김광호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김경협 의원, 전희경 의원, 김세연 의원, 김신일 前 교육부총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영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재외한국어 교육도 이런 변화상에 발맞춰 설계도를 새로 그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근대화의 핵심이 산업혁명이라면 지구화의 핵심은 전산혁명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 반대편의 소식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문화의 세기를 맞아 한류문화가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재외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도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전문 학술포럼과 강의,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7월 30일 폐회했다. 신성민 기자

"조영암, 만해문학 계보 계승… 연구 주목"

만해학회, 7월 29일 '만해 한용운과 영암' 주제 세미나

건봉사서 출가, 백초월에게 수학
만해 영향으로 시 창작 계보이어
만해 서술, 조지훈보다 5년 빨라
관음사상 수용, 말년엔 참선 수행

조영암(趙靈巖, 1918~2001?)은 건봉사 출신 시인으로 매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다. 관련된 몇몇 행적을 찾아보면 기이함이 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개성 넘치는 선시를 썼고, 종군작가로 활동했다. 말년에는 참선 수행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인으로서의 조영암이 만해 스님의 문학적 계보를 계승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7월 29일 열린 만해학회 제16회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영암 연구, 서설(序說)' 주제의 논문에서 조영암의 불교사상과 불교 행적, 문학 계보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조영암은 1918년 5월 27일 강원도 회양군에서 출생해 15세 때인 1932년 건봉사로 출가했다. 출가의 길을 가던 그는 건봉사가 운영한 신식학교인 봉명학교에서 공부했고, 여기서 신학문을 배우면서 문학도의 꿈을 키운다.

실제, 조영암과 함께 수학한 박설산의 회고록에는 당시 소년회 문예부장을 맡고 있던 조영암이 건봉사를 찾아온 만해 스님에게 시와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있다. 봉명학교는 1936년 일제의 외압으로 문을 닫게 되지만, 조영암은 종비 장학생으로 1941년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에 입학한다.

김 교수는 "조영암은 혜화전문에서 문학의 꿈을 키웠고, 그는 건봉사 출신 문인이면서 동국문학과도 연계된다"고 봤다.

이어 "조영암은 건봉사 시절, 만해 스님에게 문학적 영향을 받아 시인이 됐다"면서 "이는 건봉사 출신 문학인들의 탐구 만해학, 만해문학의 계보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다. 그럼에도 조영암이 만해문학의 계보에 주목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만해 선양 연구 1세대로 조지훈을 꼽는 것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이의를 제기했다. 조영암이 먼저 만해 스님에 대한 글을 썼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영암이 〈죽순〉11집에 쓴 '哭 한용운 스승님:伍周忌를 當하야'를 해방공간인 1949년에 썼다. 이는 조지훈보다 5년이 빠르다"면서 "만해 연구에 있어서 조영암의 글도 기본자료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암의 불교사상에 대해 김 교수는 "조영암은 신앙, 수행, 사상적 측면에서 관음사상을 철저히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말년에는 간화선에 매진했다"면서 "향후 그의 불교사상을 보편적 시각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옥실 아주대 교수의 '만해 한용운과 시적 계보 탐색' △이경호 서울교대 교수의 '전쟁문학에 나타난 조국애의 성격' △백원기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조영암의 선시 세계' △한명환 순천향대 교수의 '조영암의 〈신 임꺽정 전〉 연구' 등이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김익균(성균관대), 전기철(숭의여대), 오태환(고려대), 장영우(동국대)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도 화상 '一劃論'은 선종의 '一心'"

탄호 스님, 7월 26일 불교학회 워크숍서 논문 발표

"일획은 깨달음 근본 표현한 것"
'화어록', 진리 이르는 방법 제시
신진 학자들 논문 발표도 이어져


한국불교학회는 7월 26일 진관사 함월당에서 2016년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진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 신진학자들의 논문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7월 26일 진관사 함월당에서 '2016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신진 학자 논문 발표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많은 학위논문들이 배출됐지만 소개할 기회가 적어 반향 없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국 석도화상의 〈화어록(畵語錄)〉을 선사상으로 재해석한 탄호 스님의 논문이다. 탄호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2015년도 박사학위를 받았다.

탄호 스님이 주목한 중국 석도화상은 명말청초 시대의 사람으로 명나라 정강왕의 후손이다. 하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여기저기 유랑했고, 결국 출가해 스님이 된다. 본월 선사에게서 엄격한 불교 수행을 배웠고, 스스로도 선리(禪理)에 깊이 몰두했다. 이런 수행 과정은 그의 화론(畵論)이 정립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잘 표출된 것이 〈화어록〉이다.

탄호 스님은 "석도화상이 첫 장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일획'은 일획이 만획이며, 만획이 일획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선종에서 말하는 일심(一心), 일념(一念)이며, 불성이고 여래장으로, 실상인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석도는 깨달음의 근본표현으로 귀결한다"고 주장했다.

"'일획론'을 중심으로 석도화상 자신의 회화관을 삼았다"고 설명한 탄호 스님은 "이것은 무법과 유법을 통합한 유무상생인 것으로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깨달음의 이념"이라면서 "〈화어록〉은 단순한 체험으로만 쓴 내용이 아닌 깨달음에 이른 방법론을 제시하는 화론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윤경 북경대 박사가 '이치의 문으로서의 가르침-길장의 이제(二諦) 사상 연구'을, 윤성문 동국대 박사가 '〈유마경〉의 대승사상과 불이적 실천행 연구'를, 동국대 박사인 현서 스님이 '쫑카빠의 법무아논증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학을 개척하고 있는 신진학자들의 학문세계에 대한 탐색과 평가 작업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은 신진학자들과 새로운 연구 경향에 대한 궁금증을 저자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서 대한시대 변화 불교계 어떻게 대응했나

한국불교사硏, 집중세미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왕조가 대한제국시대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혼란과 위기는 노정돼 있었다. 혼란과 위기의 전환기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했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와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오는 8월 6일 오후1시 봉인사 지장전에서 '조선후기에서 대한시대로의 불교사적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근호 명지대 학술연구교수가 '조선 선조의 광해군 양위과정'에 대해, 서수정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이 '조선후기 불교서적의 발간과 유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조선후기 불교계의 근대화 준비과정'에 대해,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가 '한길로 법사의 불교대중화 과정'에 대해 각각 살핀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정철 안동 국학진흥원 연구교수, 민순의 서울대 박사,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고상현 동국대 박사가 참여한다.

한편, 봉인사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제375주기 광해군 추선재 및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신성민 기자

대학로서 '불교미술사' 배워보자

홍익대 평생교육원, 9월 1일부터 강의 시작

8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서 불교미술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원장 이한순) 대학로 미술이론아카데미는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강의 '불교미술사'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불교문화의 기본이 되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 불교의 세계관과 시간 개념부터 불교의 다양한 인물들, 불교의식 등에 관해 배우며, 특히 사찰 공간 구조를 비롯해 석등이나 탑, 전각이 갖는 각각의 의미를 세세하게 살핀다.

또한 우리 불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려한 고려 불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의는 한국불교미술에 조예가 깊은 이승희 교수가 진행한다.

강의 신청은 8월 4일까지 홈페이지(http://hica.hongik.ac.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8월 셋째 주까지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02)3668-3745 신성민 기자

지구촌 천지개벽에 생명과 운명 죽음을 면하는 도통으로 말법 만년을 통섭하는 유불선 불선도 득도로 각종 질병과 병겁을 다스리는 의통으로 운명을 연장하는 숙명통대법회

입제 2016년 8월 5일 금요일 해시 해제 6일 토요일 해시에 무박2일 숙명통 도통으로 지구촌 병겁이 시작되는 천지개벽 종교개벽 인간개벽으로 천장신장과 십나찰려와 비사문천왕의 재앙으로 해와 달, 별, 태풍, 지진, 화산, 비, 천둥벼락, 각종질병으로 부모조상과 국가와 민족에게 윤리도덕과 효도와 질서를 외면하는 각종 종교 정치 경제 문화사회 등 만 중생들에게 천지개벽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살아남을 자 유불선일체 종교를 통한 도인만이 사는 시대에 유교=정이거정 윤리도덕의 근본인 수신 몸을 다스리는 주역서문에 있고 불교=정법안장 경 · 률 · 논 삼장에 감춰진 생명을 보는 견성성불이며 선교=천지인에 내려진 삼라만상의 근본인성에 감춰진 도법이고 개신교 = 성부 · 성자 · 성신에 생명의 근본은 나는 태양이요 빛이며, 성령이니라 하신 것이다. 부처님 법당에 모시는 점안 의식도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성취상 청정심 원만상으로 말과 문자만 있지 핵심인 진법주문을 모르기에 점안도 안된 사불을 모시고 있으니, 내부처 점안도 모으면서 견성성불은 돼지 자박에 뜸뜨는 소리니라 이제 말법말년을 지킬 숙명통으로 전생금생 내생에 귀신잡신을 다스리는 도법으로 이생에 올때 가지고 온 염라국에 진빛을 갚고 귀부와 명부에 이름을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리는 숙명통 기도 핵심주문으로 성불 도통하여 만법, 만덕, 만복, 만수건강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인류승리자 되는 이번 숙명통 기도는 이생에 가지고 온 진 빛을 갚는 백중제에 염라국 염라대왕에 진 빛을 갚고 칠성문에 들어가는 금강다라니문을 열어 일체조상들까지도 해원 상생하는 일석이조가 되는 일류 스승되는 도법으로 나무묘법연화불 나무아미타불



거부장지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 최신 묘법팔품연화경 출간으로 만교 만경을 초월 만심 만행 고행 겪음없이 칠비유품과 육난구이로 신통변제 성불하여 행복안락의 영광으로 영원한 수명을 얻는 묘법연화팔품경 당신의 안락처. 값 3만원

■ 입 제 일 : 2016년 8월 5일 금요일 해시
■ 회 향 일 : 2016년 8월 6일 토요일 해시
■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동 참 비 : 10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3 3층 용천사

천지공사 약사 미륵 달마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종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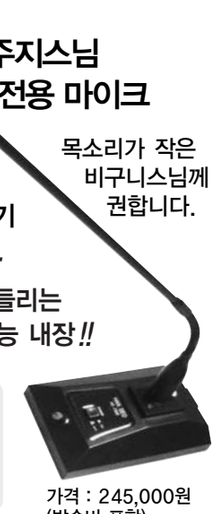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무료급식서 시작된 나눔행…"지역민 하나로"

사하불교연합회 무료급식소, 7월 25일 경로잔치 한마당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 25일 낮,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사하불교 무료급식소'엔 200여명 어르신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가수들의 공연도 즐기고, 어르신들이 무대에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이 마이크를 직접 들고 '울고 넘는 박달재'와 '노 젓는 뱃사공'을 이어 부르자 어르신들의 박수갈채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경로잔치에 마련된 떡과 선물은 회장 혜우 스님을 비롯해 사암연합회 신도회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련했다. 또한 이날 초대 가수들도 모두 재능기부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민요와 가요무대에 어르신들의 흥겨움은 가실 줄 몰랐다.

회장 혜우 스님은 "장수 사진 촬영, 무료급식 외에도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매년 경로잔치에 일반인들이 함께 봉사하며 어르신들과 어우러지니, 더 아름다운 자리로 발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로잔치는 2005년 '사하불교 무료급식소'를 운영 하던 스님들의 원력으로 처음 시작됐다. 장수 사진(영정사진) 촬영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단 생각에서다. 이후 봉사자와 재능기부 초대가수 등 나눔행을 실천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해마다 발전을 거듭했다.

2005년 무료급식 봉사
스님들 원력으로 시작

200여명 독거노인 참여
'지역 나눔의 장' 발돋움
문화수업 등 사업 계획도

무료급식 봉사자들은 "경로잔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 급식과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7월 25일 사하무료급식소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무료급식소가 없던 시절부터 스님들과 함께 급식봉사를 시작했다"는 문선심(67)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잔치연을 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에 관심을 갖는다. 모두가 '나눔행'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송순옥(66) 씨는 "봉사로 인해 내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면서 "이곳에 오시는 독거노인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혜우 스님은 "무료급식과 잔치연으로 사하사암불교연합회원 뿐 아니라 지역민까지 하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수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울산 구룡사, 사리탑 점안 법회 봉행

높이 10m 자연석으로 조성

한국불교태고종 울산 구룡사(주지 구성)는 7월 24일 구룡사 경내서 사리탑 불사를 회향했다.

구룡사 사리탑은 높이 10m 규모에 자연석이다. 자연석은 울산 문수산 아래 울주군 신청사 건립현장서 나온 것을 이용했다. 특히 방석돌과 기장석, 탑신과 옥개석 등 바위 10개로 이뤄졌으며, 탑신에는 불자들이 사경한 여러 경전과 법품,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 돼 있다. 국내의 자연석 탑 가운데에선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이날 구룡사는 사리탑 불사에 노력을 기울인 공을 인정해 김달줄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장과 홍덕희 석수장에게 공로패를 시상했다.

주지 구성스님은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구룡사 불자들이 모두 하나 같이 힘을 모았다"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생각에 환희심으로 행복해 하는 불자들 모습을 보고 더욱 힘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이들이 업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태고종 울산 언양 구룡사가 자연석 석탑 점안 법회를 7월 24일 경내에서 개최했다.

하성미 기자

만덕사, 제9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

7월 23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서

부산 만덕사(주지 금산)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7월 23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서 '제9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를 거행했다.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는 2008년 시작됐으며, 독립유공자 1만4247명 및 무명용사 195만 명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다.

행사는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과 류수인 시인의 시 낭송,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추모합창 등 합동분향이 이어졌다.

대회장 금산 스님(만덕사 주지)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오직 구국일념만으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독립군 무명용사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후손들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 민족의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종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장은 "광복을 위해 헌신한 위령들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추모관 건립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만덕사와 대한민국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는 7월 23일 벡스코 컨벤션홀서 '9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거행했다.

하성미 기자

보양식으로 어르신 무더위 '탈출'

용호복지관 · 합천 용흥사 등 어르신 대상 후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7월 27일 중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DAY'를 실시,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55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국남부발전(주)(대표이사 윤종근)은 임직원들이 직접 일일 급식봉사에 참여했다.

합천 용흥사(주지 홍제)는 7월 21일 합천군청에 삼계탕 닭 500마리를 합천읍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기탁했다.

주지 홍제 스님은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이웃 간 정도 나누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합천군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8개 지역 경로당에 전달했다.

한편 용흥사는 지난해도 합천군 쌍책면에 촌닭 100마리를 기탁했으며,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 후원과 이웃돕기 성금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참된 행복 위해 자기 긍정 연습할 것"

조원규 교수, 생명나눔 부산본부 '생명존중' 강좌서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5일 안국선원 교육관 중강당서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자살예방 교육, 장기기증 동참 독려 캠페인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주제로 진행된 1부 강연회는 조원규 동아대 교수가 나서 '행복하기 위한 삶의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여유와 긍정적 마음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라며 "참된 행복을 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선 박동범 사무국장이 '생명존중사상 장기기증과 자살예방'에 대해 강의했다. 박 국장은 장기기증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며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박 국장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돌이켜 봄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존중의 시작점"이라 말했다.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어 여러분의 삶도 더욱 소중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목종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서병수 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의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부장 원범 스님은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수행이자 자비의 발현"이라며 "10주년을 발판 삼아 더욱 큰 나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니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7월 25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생명 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운문사 27회 여름불교학교 '성료'

7월 22~24일… 217명 참여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2~24일 제37회 여름불교학교 '링가링가 육도탈출'을 실시했다. 초등학생 217명이 참여한 이번 여름불교학교 입재식은 지송 · 원겸 스님의 법고 시연 후 육법공양, 어린이 선서, 발원문, 스님들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주지 진광스님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운문사서 내 한마음의 주인공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부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6조로 나뉘어 학인 스님들의 독창적인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2박 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날(24일)엔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이 수계증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 모여라

전북불교네트워크, 8월 14일 문화유산 도보순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와 더불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도보순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북불교네크워크(공동대표 유지원)는 8월 14일부터 1주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유산 도보순례'를 실시한다.

(재)아름다운동행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도보순례는 여러 이유로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대학생과 1대1 멘토 · 멘티를 맺어 진행된다.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사 등 지역 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중심으로 청년멘토와 함께 걸으며 청소년들의 심신을 달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한여름의 폭염을 우려해 도보순례와 차량이동을 적절히 조율해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별, 장소별로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 줄 선지식과 스승을 초청해 상담과 치유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불교네트워크 관계자는 "단순한 순례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평화의 삶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도 놀이 개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1주간 동참할 청소년들의 안전과 심신 안정을 최대한 배려해 일정을 준비 중이며, 숙박은 순례코스 내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모집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된다. 또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대학생이나 청년멘토도 함께 모집 중이다.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는 "청소년 포교라는 개념은 단순히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에서 탈피해 불교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음이라 적은 수로 시작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잘 평가해 더욱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63)271-3555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싯달타 어린이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50명 대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펼쳐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7월 26~28일 경내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싯달타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는 참가 어린이들이 각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꿈의 길잡이가 되어줄 스님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불 · 발우공양을 체험하며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명신 스님과 대응 스님의 지도 아래 연꽃길 명상 체험, 물 명상, 민요 배우기, 만다라 그리기, 캠프파이어, 붓글씨 편지쓰기, 보물찾기, 칭찬샤워, 핸드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교와 학원으로 이어지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어린이 템플스테이는 지역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다은(신동초4) 어린이는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절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명신 스님은 "송광사가 지니고 있는 오래되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보고의 숨결, 일본서 느껴 즐거워요!"

완도 신흥사, 섬 아이들 위한 장보고 유적답사
올해로 5회째, 新 포교프로그램으로 호응 높아



완도 신흥사가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를 통해 유적답사를 떠난 아이들이 일본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라시대 청해진을 설치해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해상왕 장보고(張保皐, ?~846). '21세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역사적 인물'로 수많은 경제인들이 꼽는 장보고의 일본 유적을 돌아보는 어린이 답사가 펼쳐져 화제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는 7월 25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장보고대사와 일본'이라는 주제 아래 장보고 유적지와 백제불교의 숨결이 살아있는 일본 유적답사를 실시했다. 답사에는 청해진이 자리해 장보고의 후예라 일컫는 완도 아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답사는 첫날 완도 전통사찰인 신흥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둘째 날 고대 한국과 일본의 교역로를 따라 이동하는 뱃길, 셋째 날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및 백제불교의 보고인 법륭사 · 청수사 · 장보고 대사의 옛 숨결이 살아있는 연력사 탐방, 마지막 날 오사카성 및 오사카 시내관광 등이 진행됐다.

해상왕 장보고는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활약했던 무역상이자 강력한 불교계 후원자로, 당나라로 유입되는 무역상, 유학생들과 함께 신라방(新羅坊)과 신라소, 그리고 불교사찰인 법화원을 후원한 동북아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일본 천태종의 중창조인 엔닌 스님은 이곳 법화원에 머물면서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귀국을 보살펴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엔닌 스님

지역 문화사업 연계해
5박6일 연력사 등 탐방
"백제불교 · 장보고 가치
배울 수 있는 기회 돼"

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와 더불어 세계 3대 동방 여행기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장보고대사를 재물 또는 복(福)을 가져다주는 신(神)으로 추앙하고 있다.

답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장보고가 누볐던 성지를 순례하며 단순히 책을 통해 역사 속 위인으로만 알았던 장보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임나린(초등6) 양은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장보고대사가 우리나라 사람이란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경험하기 어려운 순례 덕분에 아름다운 백제불교와 장보고대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은 "장보고의 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뛰어난 정신을 알고, 올바른 법을 찾으려는 수행자의 삶을 배울 수 가 있다"며 "통일신라불교의 가장 위대한 후원자였던 장보고대사의 삶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5회째 진행된 유적답사는 신흥사의 새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려 어린이 행사를 진행하는 신흥사는 해외유적답사와 지역 문화사업을 연계해 어린이 포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0일 남겨둔 선운사 지장천일기도

고창 선운사, 7월 24일
900일 기도 회향



고창 선운사 천일지장기도가 900일 회향을 하며 최종 회향까지 100일만을 남겨뒀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24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천일지장기도 900일 회향법회 및 10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등 사내 대중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전날인 23일 지장보궁에서 지장경 독경, 3천배 등 철야정진을 마쳤다.

환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해야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며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가 불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천도재를 봉행한 데 이어 도솔천 극락교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삼장지장기도 성지로 널리 알려진 선운사는 보물 279호 금동지장보살이 봉안된 지장보궁에서 2014년부터 수행과 복지, 문화공동체 건립을 발원하는 지장천일기도를 봉행해오고 있다. 3년여에 걸친 지장천일기도는 오는 11월 9일 회향한다.

한편 선운사는 앞서 21일 대웅보전에서 남곡당 윤명대선사 3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원사 원로 재곤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평소 수행과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가졌던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을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남곡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를 소임을 맡아 선운사와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랍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싱글男女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8월 13~15일

미혼 싱글남녀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8월 13일부터 2박3일간 선남선녀들의 만남을 주제로 '제1차 싱글만남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 템플스테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가족해체 등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만남과 결혼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40대의 미혼남녀 10쌍이 참여 가능하며, 결혼의 인연까지 이어지는 커플은 화엄사 주지스님의 주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어색한 미혼 남녀가 만남의 인연을 맺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소개, 소원등 만들기 및 탑돌이, 이심전심 톡톡, 숲길 걷기, 지리산 계곡 휴식, 스님과의 차담 등이 진행되며, 예불, 운력, 108배 등 불교문화프로그램도 더해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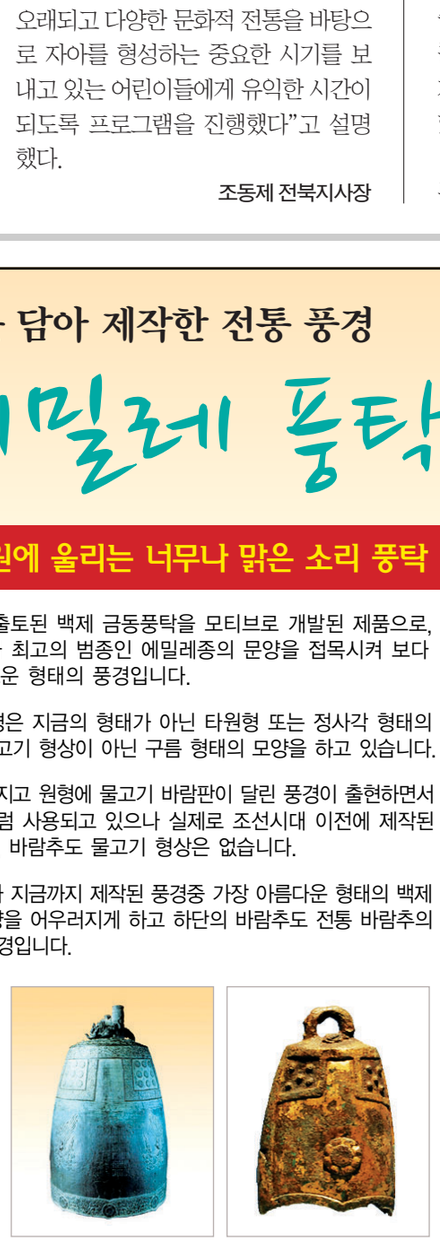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www.hyunbulshop.com

모습에 얽매여 집착… 괴로움의 윤회 발생 원인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㊾ 영감대왕 일화에 대한 소고



그림 · 최주현

전 시간에 신앙의 격을 말했지요? 그리고 격이 낮은 신, 마치 거래를 하듯이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신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되면 신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저 조금 신통력 가진 요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손오공 일행이 당도한 곳, 통천하를 앞둔 마을이 그런 요괴급 신의 지배를 받고 있네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신의 가피를 받아야 살 수 있기에 할 수 없이 해마다 동남동녀를 바쳐야 되는 상황이구요. 어떤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신앙의 형태야 가장 낮은 형태의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신은 낮고도 낮은 격을 가진 신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격을 낮추고 있고,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을 격 낮은 믿음으로 끌고 가면서 제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요괴급의 격을 가진 통천하의 신이겠습니다.

스스로의 격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믿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이상만을 추구하고 살겠습니까? 정말 이상을 말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온 마을이 망하면 망했지, 나의 아들 딸, 마을의 아들 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상을 쉽게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실종되면,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불행 아닐까요?

애궁…. 이렇게 심각하게 나가면 끝이 없겠지요?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잘못된 업의 순환을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 계기가 이르렀습니다. 손오공 일행이 방문한 것이지요. 영감대왕의 악업이 쌓이고 쌓여 이제 심판을 받게 된 대목이라 할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슬픈 염원이 불보살님께 통하게 된 것일까요? 손오공과 저팔계가 이 마을의 슬픈 운명을 바꾸는 용사가 되어 나섭니다. 손오공은 남자 아이로, 저팔계는 여자 아이로 변신하여 영감대왕 사당에 제물이 되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앞에 줄거리에서 이야기했듯이 손오공의 여의봉 한방에 영감대왕 기겁을 해서 도망을 치고요. 비늘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영감대왕의 정체를 어느 정도 드러내주는 것이었지만, 그 밖에는 알 길이 없게 되었지요.

손오공과 저팔계의 활약에 현장법사 일행 전부가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대만 받으면서 거기 머물러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지요. 인도까지 불경을 가지러 가야되는 머나먼 길, 아직 그 여정이 아득하게 남아 있지요. 그런 아득한 여정인데 통천하를 건널 길은 여전히 없고…. 손오공 일행이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을 이용한 영감대왕의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영감대왕의 부하인 쏘가리 요괴할멈의 계책이 절묘하지요. 영감대왕의 신통력으로 통천하를 두껍게 얼리고, 급한 마음에 그 위를 건너는 일행이 지나는 곳을 얼음을 갈라지게 해서 현장법사를 잡아내는 겁니다.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한 것이라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대로 함정에 빠져 버렸죠. 그러고 나니 이제 정말 무슨 뾰족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만났던 몇 몇 요괴들 가운데도 근거지가 확실하고, 그 근거지가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일 경우는 참으로 퇴치가 힘들었었지요? 특히 물속이 근거지였던 요괴들은 그런 어려움이 더 심해요. 물속에서 그래도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사오정과 저팔계지요. 사오정은 원래 출신이 물귀신이고, 저팔계는 천상계에 있을 때 은하수를 다스리던 관리였기에 물질에 능숙합니다. 문제는 손오공이에요. 변신술로 물속에 들어가 웬만큼 버틸 수는 있지만 있는 능력의 반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일 센 손오공이 힘을 못 쓰게 되니 싸움이 힘들어질 수밖에요.

결국 급하면 보살님! 손오공이 남해로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전에 왔을 때하고는 영 달라요. 보통은 보살님이 거처에 조용히 앉아 계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뒷산 대밭에 가 계신 거예요. 거기서 뭘 하시느냐…. 대나무 껍질을 벗겨 바구니를 짜고 계시더란 말이죠. 갑자기 웬 대바구니? 그래서 연유를 여쭤보니, 참 김빠지는 사연이 있네요. 통천하 요괴는 관세음보살님 거처의 연못에 있던 금붕어였다는 것이었네요. 이 녀석이 아침저녁 염불소리, 설법하는 소리를 듣다가 신통력이 생긴 것! 큰비에 못물이 넘쳤을 때 밖으로 달아났던 것! 그리하여 통천하까지 달아나 거기서 수신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애고…. 결국 보살님의 권속이 요괴로 변한 것이었네요. 보살님도 좀 켕기는 게 있으셨겠지요. 갑자기 보이던 금붕어가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되어 신통력을 살펴보시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통천하게 가서 현장법사 일행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뒷산 대밭으로 가서 물고기 잡을 바구니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손오공이 구원을 청하기도 전에 앞장을 서서 통천하로 달려오시네요. 그리곤 손오공이 그토록 애를 먹었던 요괴를 단숨에 잡아내시죠. 바구니 물속에 던져 넣고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남아라…라…라…" 이상한 주문? 그 주문 한참 외우시다 대바구니 건져내니 그 속에 잡혀 나오는 금붕어! 그게 바로 그토록 골치 썩이던 영감대왕의 정체였네요.

방향없이 가르침 접하면 해로워
'비인부전' 말 나오는 이유 설명
구도심의 방향 중요함을 강조

보살님의 권속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보살님 계시던 곳의 금붕어가 요괴가 된다! 이건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 요괴가 보살님 권속으로 되는 이야기가 거꾸로 된 것이네요. 흑풍요괴, 홍해아의 경우가 바로 요괴가 보살님 권속이 된 예였지요. 흑풍요괴는 보살님 집 지키는 권속이 되었고, 홍해아는 보살님 제자가 되었는데…. 이번엔 거꾸로지요?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요괴가 보살님 권속이 될 수 있다면, 그 반대가 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삼쾌선생이 계속 강조하지 않았던가요? 요괴는 요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요괴이니라! 보살 권속은 보살 권속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 권속이니라!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니라! 엥? 이렇게 말하다 보니 금강경을 좀 표절한 것 같군요. 히히…. 그렇지만 이런 표절은 괜찮아요. 금강경에 불보살님이 저작권을 요구하실 리도 없고, 아난존자가 표절 시비를 하실 일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잘 써먹기만 하면 기뻐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좀 엉뚱하기는 하지만 삼쾌선생이 써먹은 방식도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가 꼭 본래적인 자성(自性)이 있고, 그것이 선과 악으로 고정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불교의 연기적 사고방식이고, 또 관계론적 시각이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 번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단지 모습일 뿐입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연기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띄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것이 본래적으로, 영원불변하게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어떤 존재의 모습, 그것은 정말 모습일 뿐입니다.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에 얽매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결국 그것이 괴로움의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강경 말씀을 열심히 표절해 봅시다. 그래서 모습에 매달리는 그 병에서 벗어나 봅시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모습이 부처일 뿐이니라.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남자일 뿐이니라! 요괴는 요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요괴일 뿐이니라! 삼쾌선생은 삼쾌선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삼쾌선생일 뿐이니라! 나칠계님은 나칠계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칠계님일 뿐이니라! 그래서 삼쾌선생이 나칠계고 나칠계가 삼쾌선생…. 이크! 스톱! 삼쾌선생과 나칠계님을 혼동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모습을 혼동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잘생긴 삼쾌선생과 그저 그렇게 생긴 나칠계님을 같이 보시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딴 길로 들어갔음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제자리 찾기 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처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연, 설법 듣고 염불 듣고 하는 복연도 자칫 삿된 길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뛰어난 가르침이야말로 그것이 자칫 방향을 잘못 틀게 되면 그 뛰어남 때문에 나쁜 쪽으로도 엄청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부전(非人不傳), 즉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올바른 지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뛰어난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향을 갖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지요.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길이지요. 그래서 어떤 선지식께서는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聖果)를 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기도 했구요.

영감대왕노릇하던 금붕어가 참으로 올바른 구도심을 가지고 설법을 꾸준히 들었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조금 힘을 얻었을 때 보살님의 거처를 벗어나게 된 업연의 한계로 그런 요괴놀음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관세음보살님의 책임이 아주 없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도 자발적으로, 급히 통천하까지 달려와서 잘못된 업연을 수습하셨네요. 그리고 그 덕분으로 참혹한 괴로움 속에 놓여있던 통천하 주변 마을들도 질곡을 벗게 되고, 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구요. 그때 현신하셔서 금붕어 잡아들이던 보살님 모습이 그려져서 어람관음(魚籃觀音)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역시 서유기 저자 오승은의 기발한 가탁입니다요. 그렇지만 그런 가탁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보살님은 언제 어디서고 우리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고 계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깨인 눈이 있다면 그 수많은 보살님의 모습을 여기 저기서 뵐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어람관음만이겠어요. 삼쾌관음 나칠계관음…하하! 여러분도 다 관음! 주변 모든 분들 다 관음! 삽바하!

"재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그 절집의 빛

⑰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후불벽화

흙벽에 장엄한 파랑새의 붓질



아미타여래삼존 불상과 후불벽화. 천에 그린 탱화가 아니라 흙벽에 붓질로 봉안한 벽화다.



향우측 관음보살께서 착의한 사라 비단결의 세부문양.

한 법당에 국보 둘, 보물 셋의 보물창고
민초들의 영령을 극락천도한 수륙사
국내 유일의 아미타여래삼존 후불벽화
고려불화 요소와 조선초기 양식 혼재



아미타여래 법의에 베푼 고려불화적 문양과 경영색채.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보고(寶庫)

무위사 극락보전은 그 자체가 보물창고이고 성보박물관이다. 국가지정 보물급 문화유산이 중중무진이다. 먼저 극락보전 건물은 국보 제13호다. 법당 내에 봉안한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보물 제1312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불상의 후불벽에 조성한 아미타여래삼존 후불벽화는 국보 제313호이고, 또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벽화는 보물 제1314호다. 아미타내영도를 비롯한 극락보전 내부 사면 벽화 일괄 27점은 보물 제1315호로 지정하였으니 한 법당건물에 국보가 둘이고, 보물이 셋이나 있어 웬만한 박물관 수준을 능가한다.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보고(寶庫)로서의 위상이 확고하다.

무위사 극락보전 건물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갓 이행한 조선초기 건축이다. 후불벽화 좌우하단에 남아있는 화기(畵記)와 1983년에 발견한 종도리 장혀의 묵서명, 그리고 2011년 단청 모사작업 과정에서 찾은 천개반자 묵서명을 통해 건축과 벽화조영 연도가 밝혀졌다. 즉 극락보전 건립은 1430년, 후불벽화 및 수월관음벽화 제작연도는 1476년, 단청장엄은 1526년으로 편년되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호이징가의 표현에 따르면 쓰라린 삶 속에서 문학이나 종교를 통해 목가적이며 인간본위로의 탈출을 굼꾸던 '중세의 가을' 무렵이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의 싹이 움틀 시기이다. 무위사 극락보전의 아미타삼존 후불벽화는 1476년에 제작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프레스코 벽화보다 약 20년 앞서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성당 천정에 그린 〈최후의 심판〉 벽화보다 60여년이 앞선 것이다.

후불벽화는 15세기 왜구의 약탈과 살상이 빈번한 시대상황에서 무대의 막이 오른 작품이다. 기근과 왜구의 침탈 속에서 희생된 민초들의 영령에 대한 종교적 위령제는 수륙재(水陸齋)였다. 15세기 무위사는 수륙재를 맡은 수륙사(水陸社)의 지위를 가졌다. 아미타여래의 정토신앙에 의지했다. 호이징가는 〈중세의 가을〉에서 설파했다.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라고. 이 세계를 온몸으로 저항하며 거부하든가, 모순의 세계를 변혁하든가, 아니면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길, 그 셋이라 하였다. 15세기 조선의 민초들은 수륙재와 정토신앙에 의지하는 '꿈의 길'을 택했다.

다양한 계층 시주, 화원은 대선사 해련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불사참여 계층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고려왕조 때 왕족과 귀족중심의 불사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평민의 십시일반 참여가 저변으로 확대 되었다. 후불벽화 좌우 하단에 붉은 바탕에 묵서로 기록한 화기가 있다. 화기는 거의 강진지역 인명사전에 가까우리만치 인명으로 빼곡하다. 전 아산현감 강질, 강진군부인(郡夫人) 조씨, 김씨, 강씨, 박씨 등 수십 쌍의 일반 평민부부들의 시주 참여로 대선사 해련(海蓮), 선의(善義), 죽림(竹林) 등의 화원들이 그렸음을 밝히고 있다. 극락천도를 발원하는 수륙사의 불사였던 까닭에 신분의 지위고하를 구애받지 않아 다양한 신분계층의 참여가 이뤄졌다. 발원은 현세적 구복과 함께 극락왕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벽화의 중심에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 지장보살의 아미타여래 삼존을 자연스레 봉안했다. 대세지보살의 자리에 지장보살을 모시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시대적 난세, 살상, 참혹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 지장보살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내민 것이다.

벽화 속 향좌측의 지장보살은 실존하지 않은 초역사적인 보살이시다. 스스로의 본원력으로 나투신 분이다. 오직 고통받는 중생구제를 위해 가장 험난한 지옥에 스스로 찾아 가셨다. 지옥에 있는 가장 악행의 중생도 구제하는 까닭에 대원본존이시다. 벽화에서 지장보살은 천 조각을 깁은 것 같은 분조가사의 옷차림을 하고 계신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지장보살도에서처럼 오른손엔 육환장 지팡이를 들고 있고, 왼손엔 투명한 보주를 쥐었다. 육환장은 누구도 열 수 없는 지옥의 문을 여는 지팡이이고, 보주는 지옥의 어둠에 광명의 빛을 놓는 지물이다. 황금빛 연화를 딛고 서있고, 민머리에 두건을 둘렀는데 두건엔 물방울 문양을 촘촘히 입혔다. 분조가사에도 세밀한 문양을 베풀었다. 섬세한 고려불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장보살을 따로 떼놓으면 영락없는 고려불화 지장보살도다. 구도나 밝은 색의 색채운영, 세밀한 의습문양 등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까닭이다. 단지 벽화라는 재질특성에 의해 의습문양을 다소 간결히 처리한 차이 뿐이다.

관음벽화, 붓질로 구현한 마이크로 세계

무위사 극락보전의 상단불화는 아미타여래 삼존도다. 그런데 비단이나 삼베에 그려 봉안한 탱화가 아니라, 마감한 흙벽에 올린 벽화다. 그래서 후불탱화가 아니라 후불벽화다. 아미타여래삼존 후불벽화는 국내 유일의 사례다. 후불벽의 앞면에 벽화로 현존하는 곳은 세 곳 정도다. 무위사 극락보전, 선운사 대웅보전, 불국사 대웅전 좌우 협칸, 그 세 곳이다. 무위사 후불벽화는 조선초기의 벽화임에도 고려불화의 탱화처럼 치밀하게 시문하고, 온화한 중간색채를 운영하고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관음보살의 표현에서 고려불화가 가진 세밀함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관음보살은 오른손에 초록잎의 버드나무 가지를 쥐었고, 왼손엔 짙은 초록의 정병을 지물로 들고 계신다. 생명력과 감로의 자비력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다.

관음보살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 끝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하얀 천의가 쉬폰처럼 흘러 내린다. 천의는 투명에 가까운 하얀 실크 사라(紗羅)다. 사라의 비단결은 현미경으로 살펴야할 정도로 한 올 한 올 극도의 섬세한 붓질로 표현했다. 삼각형, 마름모, 원의 기하학적 패턴이프랙탈 구조를 이루며 중중무진으로 중첩하고 무한히 연속한다. 연기법계의 그물망이자, 붓질로 구현한 미시의 마이크로 세계다. 벽화에 성스러움의 영성이 충만하다. 사람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종교장엄의 성스러움으로 내밀화해서 진신(眞身)의 생명력을 갖췄다. 문양은 곧 신성을 부여하는 장엄윤리이자 힘임을 일깨운다.

고려불화적 섬세한 선묘와 깊은 색감

여기서 신성의 설화가 탄생하여 서사적 플롯을 갖춘다. 벽화가 그려지는 작업이 신비화하여 유통된다. 화기에는 분명히 대선사 해련 등이 그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람의 능력 밖의 지극정성으로 섬세히 그린 까닭에 관음보살의 분신인 파랑새를 등장시킨다. 파랑새가 입에 붓을 물고 천의무봉(天衣無縫)의 붓질로 그린 그림으로 승화되었다. 유려하고 섬세한 붓질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더욱이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미처 그리지 못하고 파랑새가 날아가 버려 미완성 작품의 깊은 여운과 울림을 갖게 했다. 신묘한 회화에 극적인 긴장구조까지 부여한 서사를 갖춰 벽화에 성스러움을 극대화 했다. 그런데 벽화에 전해지는 전설은 허구적인 플롯이 아니라 실증적 조형을 갖추고 있어 일정한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다. 벽화 앞의 목조 관음보살상은 양 손으로 정병을 받쳐 들고 있다. 정병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고, 가지 끝엔 파랑새가 앉아 있다. 후불벽 뒷면 수월관음벽화에서도 선재동자 자리에 한 노스님을 그렸다. 비구승의 어깨 위에 파랑새를 또 표현하고 있다. 그런 표현들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상이다. 우리나라 법당 내부의 불화 주체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파랑새 설화가 통용되고 있어 재미있다. 제작 시기나 회화 수준, 서사의 근거 등을 두루 살펴볼 때 파랑새 설화의 원형은 무위사 극락보전 벽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벽화에서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도 드러난다. 고려불화 양식에서 조선초기 시대흐름을 반영한 양식적 이행이 포착된다. 변화의 흐름은 본존불인 아미타여래의 표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려불화의 완전한 원형 광배는 신체의 흐름따라 광배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표현해서 올록볼록한 광배로 바뀌었다. 머리에는 육계가 볼록하고 붉은 보주가 태양처럼 솟구치고 있다. 여래의 붉은 대의에 세밀히 시문하던 원형 연화문도 형태의 유사한 외형만 추구하고 간결히 처리했다. 그럼에도 화면은 중세의 신성함과 우아함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 따스한 질감의 황토색 바탕에 은은한 붉은색과 초록색이 배채법의 채색처럼 깊은 색감을 자아낸다. 고려불화적 섬세한 선묘(線描)는 서예의 획처럼 힘차고 변화무쌍한 고저장단으로 율동감과 입체감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벽화에 36.5도의 살아있는 체온이 흐른다. 중세의 가을 빛이 바람벽에 내려앉았다. 500여년 시간의 층위에도 파랑새의 붓질, 살아있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詩·文으로 깨달음에 이르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② 도연명 '詩選'

도연명(陶淵明)이 살았던 시기(365~427)는 동진(東晉, 317~419)에서 송(宋, 420~479)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난세였다. 육조(六朝)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지만 문화사적으로는 빛나는 특색을 지닌 시대였다. 춘추전국시대에 문화와 사상이 비약적으로 발달 하였듯이 이 시대 역시 못지않았다. 춘추전국시대와 차이가 있다면 불교가 비로소 지식계급에 뿌리를 내려 발전하고 또한 도교가 종교로서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종의 사상체계들이 동시에 존재하여 서로 영향을 끼친 시기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도연명의 작품과 인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의 가문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이었던 도연명의 증조부 도간(陶侃, 259~334)은 서진(西晉, 265~317)왕조가 멸망할 때 동진왕조의 건립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지만 품급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벌 사회에서는 냉대를 받아야 했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문벌들은 도간의 세력이 커질 것을 경계했으므로 그나마 가진 지위나 명망은 점차로 경감되어갔다. 도연명이 태어났을 때엔 완전히 몰락하여 오늘날까지 부친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을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연명의 집안은 역시 진나라의 사족이어서 어려서부터 가난하나마 글을 배울 수 있었다. 주로 유가(儒家)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의 학식은 보수적 문인 계층에 속했다. 도연명은 어려서부터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의지가 있었고 출사(出仕)도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전원으로 물러나 농사를 지었다.

〈음주(飮酒) 기십구(其十九)〉에 '오래 굶주렸으므로 농사를 버리고 벼슬에 올랐으나, 역시 가족을 부양할 길이 없고 추위와 굶주림은 여전했다. 당시 30을 바라본 나는 평소의 신조에 비추어 창피한 바 있어 의연히 결심을 하고 옷 털고 농촌으로 되돌아왔다.(疇昔苦長飢 投 去學仕. 將養不得節 凍 固纏己. 是時向立年 志意多所恥. 遂盡介然分 拂衣歸田里)' 고 쓰고 있다.

그가 그 후의 몇 번의 출사에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번번이 전원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면 그의 천품이 벼슬살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인생은 대략 3기로 나눌 수 있다.

성장기부터 29세까지를 1기로 보는데 이때는 출세의 의지가 있기는 했지만 배경이 약해서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젊은 시절이다. 생계를 잇기 위해 강주(江州)의 좨주(祭酒)로 출사했던 29세부터 팽택령(彭澤令)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기 전(41세)까지가 2기다. 출사와 은퇴를 다섯 번이나 되풀이 했던 좌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 사상과 신념이 다져진 단련의 시기이기도 하다. 3기는 41세 이후 죽을 때(63세)까지다. 전원에 은둔하면서 체득한 정서와 사상들은 대부분 이때의 작품으로 기록된다.

득의망언(得意忘言)의 경지

도연명의 작품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노래한 노장사상이 들어있는 것이 많다. 〈귀거래혜(歸去來兮)〉에 그 심경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자연을 좋아하는 본성은 고칠 수 없다.(質性自然 非矯 所得)' 라던지 〈음주5〉에서 '동쪽 울타리 밑에 핀 국화꽃을 꺾어들고 / 멍하니 남산을 바라보네 / 산기운은 저녁나절에 좋고 / 나는 새도 함께 돌아오네 / 이 가운데에 참 뜻이 들어 있으니 / 따져 말하려 해도 이미 말을 잊었노라(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辨已忘言)' 고한 득의망언(得意忘言) 경지,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의 자연과 계합한 무심(無心)도인의 경지에서 탈속한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양(陽) '3은(三隱)' 중의 한 사람으로 주속지(周續之), 유유민(劉遺民)과 함께 당시 불교계를 이끌던 혜원(慧遠)법사의 백련결사(白蓮結社)에 동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임의 주역인 유유민은 그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차례 출사했지만 좌절·은퇴
은둔하며 뛰어난 저작들 남겨
3隱 중 한명… 백련결사 참여

空과 無로 돌아가리

그는 송백같이 살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웠다. 포악한 유유(劉裕)가 공제(恭帝)를 유폐시키고 국호를 송(宋)이라 하고 도연명을 저작랑이란 벼슬에 초청했으나 예물을 돌려보내고 끝까지 출사를 거부했다. 스스로 밭에 나가 농사를 지어 궁경(躬耕)했다.



중국 명나라 화가 장붕(張鵬)의 '도연명취귀도(陶淵明醉歸圖).' 도연명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평담(平淡)한 시풍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경시를 받았지만, 당대 이후는 6조(六朝) 최고의 시인으로서 그 이름이 높아졌다. 그의 시풍은 맹호연(孟浩然) , 왕유(王維), 저광희 등 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줬다.

〈음주16〉에서는 '결국 빈곤에 굴하지 않은 절개를 지닌 채 / 싫도록 굶주림과 추위만을 겪었노라' 는 경포고궁절(竟抱固窮節)을 술회한다.

"만약 운명대로 가난을 지키지 않는다면 / 평생 지닌 정절 앞에 길이 뉘우치리" 〈음주15〉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운명대로 가난하게 살지언정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사진으로 본 그의 무덤에 새겨진 '진징사도공정절선생지묘(晉徵士陶公靖節先生之墓)' 에서 정절(靖節)이란 글자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징사란 부름을 받고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를 가리킨다. 그의 높은 정절을 흠모하는 퇴계 이황은 '화도집음주(和陶集飮酒)' 20수를 지었고 소동파도 100여 편의 화작시를 지었다.

구양수는 "진(晉)에는 글이 없고 오직 도연명의 〈귀거래사〉만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 도연명은 "현실적으로 나는 부귀도 바라지 않고 또 죽은 후에 천제(天帝)가 사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천지조화의 원칙을 따라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자"고 〈귀거래사〉에서 노래한다. 또한 〈음주8〉에서는 "삶은 꿈과 환상이거늘, 왜 진세의 구속에 매어야 하나(吾生夢幻間 何事 塵羈)"를 읊조린다.

空과 無 노래, 득의망언 경지
'자제문', 시인의 생명관 담겨
"인생은 덧없는 꿈과 같은 것"

'오생몽환간(吾生夢幻間)', '인생은 꿈 같다' 는 구절은 〈금강경〉 4구게를 다시 읽는 것 같다.

인생은 어차피 허깨비(人生似幻化)
끝내는 공(空)과 무(無)로 돌아가리
(終當歸空無)

〈귀원전거4〉中

인생은 환(幻), 환인줄 알고 환을 여의면 이미 깨달음이다. '이환즉각(離幻卽覺)', 〈원각경〉의 한 대목이 생각난다. 도연명은 이미 공도리(空道理)를 체득한 달인이었다. 또한 그는 형영신(形影神)연작시 3수를 지었다. '몸이 그림자에게(形贈影)', '그림자가 몸에게(影答形)', '정신의 해탈(神釋)' 등이 그것이다.

몸이 그림자에게 말한다. "나는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를 재간이 없으니 필경 죽으면 그꼴이 되리라. 그림자여, 자네도 내 말을 이해하고 술잔 들고 사양말고 훌쩍 마시게나."

신석(神釋)으로 해탈한 도연명

도연명의 생명관은 자신이 죽기 2달 전에 쓴 〈자제문(自祭文)〉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

〈자제문〉은 '때는 정묘년 9월. 하늘은 차고 밤은 긴데, 바람기운이 삭막하기만 하고 기러기들은 날아가고 초목은 누렇게 시들어 떨어진다. 도(陶)아무개는 장차 임시로 몸담았던 객사를 떠나 바야흐로 영원한 본연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로 시작한다.

이어 '내 무덤에는 봉토도 안 할 것이며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로 세월과 더불어 스러지게 하리라. 생전에도 잠시 기우한 속세의 명예 같은 것을 높이 여기지 않았거늘, 그 속세의 행적을 적어 높이고 노래할 사람이 누구라 있겠는가? 돌이켜 생각하니, 나는 참 어려운 삶을 치르었다. 헌데 이제부터 사후의 세계는 또 어떨는지? 아! 애달프구나!(不封不樹 日月遂過 匪貴前譽 執重後歌 人生實難 死如之何 嗚呼哀哉)' 로 끝을 맺는다.

탈속한 도인일지라도 인생 실난(實難)을 언급하며 마지막 구절에 그가 토로한 '오호애재' 는 사람의 한계를 실감케 하는 참으로 인간미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 애달프구나!' 그의 인생의 결구(結句)다.

도연명은 자신의 작품 중에서도 이 시를 높게 평가한 것 같다. 그의 대부분의 시들이 서정과 서사 위주인데 이 시는 입언(立言) 형태를 적용했다. 입언이라 함은 자신의 논리나 주장이 후대에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그는 작가로서 대단히 창의력이 두드러졌다. 자신을 철저히 객관화시켜서 쓴 자서전격인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자신을 제상에 올려놓고 스스로 지은 〈자제문(自祭文)〉, 상여에 실려 무덤으로 가는 자신을 그린 〈만가(挽歌)〉 등은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혜원에게서 차용한 형(形)과 영(影)을 논쟁을 벌이게 해 놓고 신(神)을 세워 혜원에게 하고 싶은 말- '신멸(神滅)' 을 말 할 수 있는 그는 가히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고승(高僧)만 해탈하는가? 도연명은 시로써 해탈했다고 하겠다.



김삼진 수필가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증명서 2통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 (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1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불교서 음악 찾은 소년 한국 찬불가 마에스트로 되다



산문 밖의 禪

김회경 작곡가
(조계종 불교음악원 음악감독)

"~아!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합창단의 음성이 불전에 울려 퍼진다. 찬불가 '연꽃 피어오르리'이다. 합창단은 음성 하나하나에 불심을 담고, 지휘자는 그 음성 하나하나를 모아 불전으로 실어 나른다. 음성공양이다. 꽃공양을 하기 위해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하고, 차공양을 하기 위해서는 찻잎을 길러야 하듯이 음성공양을 하기 위해서는 찬불가를 지어야 한다. 20여 년 동안 300여 곡의 찬불가를 짓고 그 노래의 음성을 부처님 전에 실어 나르며 사는 이가 있다. 서울 조계사혼성합창단의 지휘자이며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김회경 작곡가(52)이다.

박도일 수필가 jwpark4284@daum.net

굿판의 소리와 상엿길 만가 좋아한 소년

제상 앞에서 만신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춘다. 굿판이 열렸다. 만신과 마부가 재담을 주고받으면 놀이꾼들은 절타령 등을 노래하고 어울려 춤을 춘다. 북소리, 꽹과리소리, 장구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

소년 김회경은 굿판으로 달려갔다. 만신의 신들린 곡조와 주문, 놀이꾼들의 구수한 민요, 만신의 새신(賽神)을 돕는 다급한 악기소리, 심지어 만신이 흔드는 방울소리까지, 소년 김회경은 그 소리들이 좋았다.

경기도 포천서 유년을 보낸 김 씨는 어쩌다 동네에서 굿판이 벌어지면 굿판으로 달려가 그 묵은 곡조와 소리에 젖어 놀았다. 집 마당의 강아지보다 조금 컸던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 간단치 않은 소리에 이끌려 놀았을까. 그뿐이 아니었다. 동네에 초상이 있어 상여행렬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이 아이는 그 슬프고 투명한 곡조를 따라다니며 하루를 보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야, 한 번 가면 못 온단다. 어허야~" 생사의 분간은 고사하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어린아이 김회경은 그 고단하고 무상한 곡조와 장단의 어디서부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인간과 귀신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굿판의 소리와 생사를 건너다니는 상엿길의 만가를 그 자그마한 귀로 어떻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

"어머님이 회심곡을 잘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회심곡을 들으며 컸죠. 그래서 그랬는지 꼬맹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무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과 마음이 그 곡조와 장단을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 전통의 소리와 곡조, 장단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겐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훗날 작곡가가 된 김회경은 그때부터 이미 음악가가 꿈이었다.

유년부터 굿판과 상엿소리에 끌려

서울음악제, 동아콩쿠르 등 입상

서양작곡 전공하며 국악과 수업 도강

"우리 소리, 한국음악 하고 싶었죠"

91년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 창단

조계사합창단 계기로 찬불가 시작

1993년 첫 찬불가 '향연' 발표

1996년 첫 교성곡 '불밭에~' 발표

1999년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발표

중앙대 음대 서양작곡과에 입학

김 씨의 꿈은 그가 동남중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단단해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권형집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이 계기였다. 서라벌예대 음대 교수를 지낸 권형집 선생은 교내 합주반을 관장하며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창 음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소년 김회경에게 권형집이라는 이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꿈의 실체였다. 그는 교내 합주반에 들어갔고, 권형집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음악의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대 음악대학 서양작곡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2학년 때인 1985년에 서울음악제에서 작품이 당선되고, 1986년 난파음악제 최우수상 수상과 1987년 동아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작곡가로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부에 대해 미련이 많았다. 고민이 시작됐다. 그는 유학의 길을 접고 동 대학원 한국음악학과에 진학한다. 그는 서양작곡을 전공했지만 재학 시절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국악과 수업을 도강할 정도로 우리 전통의 소리에 대한 관심이 컸다.

"작곡가로서 제가 가야 할 길은 서양음악이 아니라 한국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외국으로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도 한국음악에 대한 모색은 또 다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이 땅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했죠." 대학원까지 마친 김 씨는 작곡가로서 자신의 길에 대한 깊은 모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작곡가로서 해야 할 한국음악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불교를 만나다… 조계사합창단 지휘 제의 받아

김 씨는 1991년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을 창단한다. 악단의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그는 한국적인 음악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 실천에 대한 모색이 시작됐다. 그러던 그 해, 그는 조계사 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 제의를 받게 된다. 김 씨는 무릎을 쳤다. 어린 시절 굿판과 상여행렬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따라다녔던 것처럼 또 한 번 그는 따라다니고 싶은 것을 만난 것이다. 그것은 불교였다.

"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의받고 알았어요.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할 수 있는 마당은 불교라는 것을. 일 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는 불교에 젖기 시작했다. 작곡가 김회경이 경험하고 고민했던 한국음악에 대한 모색은 이제 새롭고 구체적인 실천의 길로 접어들었다. 합창단의 찬불가를 지휘하면서 그는 매일 매일 부처님을 만나고 불교의 소리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처음 불교의 길목에서 만난 것은 찬불가였다. 넓게 보면 불교의 모든 음악을 찬불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대중이 쉽게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공양이 될 수 있는 찬불가야말로 의미 있는 모색이라고 생각했다. 1993년, 그는 마침내 그의 첫 찬불가인 '향연'을 발표한다. 그리고 '지장보살송' '길과 벗' '왕생극락의 노래' '님의 소리' '연꽃 피어오르리' '구름 걷힌 달처럼' 등등 그의 찬불가는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한국불교음악의 현재진행형 계보 잇다

한국 찬불가의 본격적인 출현은 1920년대 조학유, 백용성, 권상로, 김대운, 김정묵으로부터 시작됐다. 백용성 스님은 1927년 〈대각교의식〉에 '왕생가'와 '권세가'라는 악보를 남겼고, 권상로는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홍법사 삼존불
수종사 범종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부모은듕경전〉에 '삼귀의'라는 악보를 남겼다. 하지만 초창기 찬불가는 작곡가들의 작곡 활동보다는 가사를 중심으로 창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찬불가를 직접 작곡할 수 있는 작곡가가 부재 내지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의 찬불가는 시대별로 새로운 행보를 걷게 되는데, 1950년대에는 어린이법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찬불가들이 만들어졌으며, 1960년대부터는 서울의 대각사와 조계사에서 합창단이 만들어지면서 찬불가의 수요가 증폭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찬불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후 1970년대 반영규 선생과 최영철 선생이 있었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찬불가는 질적 양적으로 또 한 번 전기를 맞게 된다. 많은 사찰의 합창단이 창단되었고, 그로 인해 불교음악은 대형화, 무대공연화로 이어진다. 그 힘은 1990년대로 이어져 불교음악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대형 무대공연을 통해 교성곡이 발표되는 등 대형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음악의 근원은 '우리'에서 출발한다는 김회경 작곡가가 지휘자로 있는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웃고 있다.

경전 하나를 교성곡으로 창작

1996년에는 마침내 김회경이 불교창작국악곡인 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찬! 지장보살(서울국립극장 대극장)'을 발표한다. 이미 많은 찬불가를 지은 반영규 선생이 글을 쓰고 김 씨가 곡을 붙인 '불밭에 피는 꽃-찬! 지장보살(이하 '불밭에')'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시간이 무려 2시간 10분에 달해 불교음악 1천 3백곡 중에 가장 긴 곡으로 기록됐다. 이 곡은 '지장보살본원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한 지장보살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했다. 경전 하나를 교성곡으로 창작한 것은 '불밭에'가 처음이다.

"작곡 전이나 작곡 중에 〈지장경〉을 수십 번 읽고, 반영규 선생님이 쓰신 가사를 수백 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음 하나하나로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곡은 같은 음절이 반복되면서 선율과 화음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후반부로 갈수록 고음화된다. 곡 전체가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어 힘 있고 드라마틱하며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다.

연주자만 4백여 명에 이를 정도로 초대형 무대였던 '불밭에'는 전통 국악의 음계와 불교음악인 범패가락의 진수를 현대화해 접목시켰으며, 국악과 양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접목해 찬불가와 창작국악의 전형을 제시했다. 또한 장시간 연주곡인 점을 감안해 합창과 중창, 어린이와 스님의 독창 등 다양한 시도를 동원했으며, 곡에는 일곱 살 때 돌아가신 김 씨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과 김 씨가 아들로서 오랜 세월 바라본 아버지의 애틋한 서정도 스며있다. 당시 '불밭에'는 "널리 알려진 서구의 종교합창곡들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없었던 장르를 빚어낸 정열과 창작성이라는 측면에서 서구의 작품들이 좇아올 수 없는 생생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가장 한국적 음악 펼칠 수 있는 마당은 바로 불교"

범패 가락, 국악, 양악 접목 시도

찬불가와 창작국악곡의 전형 제시
교성곡 등 300여 곡 찬불가 작곡
"범패, 채보화 집대성하고 싶어"


2016년 4월 24일 국립극장 '붓다' 공연 모습.

김회경 작곡가의 음악은 '우리'의 소리에서 출발한다. 어린 시절 굿판과 상엿길에서 설명 없이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음악가로 성장하며 김회경화 된 그 오래된 소리에서 출발한다. 작곡가 김회경은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그 답을 불교에서 찾고 불교로 완성해 가고 있다. 그는 이후 '육법공양', '혜초', '회당', '찬불소리', '아! 원효' 등 5곡의 교성곡을 더 발표한다. 그 중 '아! 원효'는 현재도 작업이 진행 중인 곡이며, 전곡이 완성되면 뮤지컬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1920년대 찬불가가 등장한 이후 1960년대까지는 창가풍, 군가풍, 타령조의 노래에 이어 서양의 찬송가 풍으로 이어져 한국적 찬불가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뚜렷하게 없었다. 1970년대 이후 비로소 한국적 찬불가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어지는 한국찬불가의 계보에서 김회경의 이름은 1990년대의 계보에 뚜렷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한국불교음악의 현재진행형 계보 중 하나가 된다.

"범패, 채보화도 하고 싶어요"

"범패를 채보화하고 집대성하고 싶어요." 2015년부터 조계종 종령기구인 불교음악원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김 씨의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한국불교음악의 계보 안에서 왕성하게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다.

이틀이 멀게 법회에 서고, 시절 없이 곡을 짓고, 시절을 마련해 무대에 선다. 그런 그에게는 또 하나의 원력이 있다. 전승으로만 보존되고 있는 범패를 악보로 만들어 남기는 것이다. 불교음악의 진수이자 대표는 다름 아닌 범패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우주의 근본 진리를 찬탄하는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의 하나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소중한 방편이듯이, 그 말씀의 씨앗으로 자란 범패 또한 우리 삶에 소중한 방편일 것이다. 더욱이 불교가 종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적 근간을 이루어온 사실을 생각할 때 범패는 종교를 넘어 소중히 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소리를 늘 붙들고 살아온 김회경에게 그 일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인연이고 당연한 원력일 수밖에 없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찬불가와 교성곡 등 불교음악의 음원이 많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음악이 무대에 오르는 일 또한 많지 못하고, 불교음악인들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것 중 하나다. 백용성 스님 등 많은 선지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김 씨를 비롯한 음악인들이 그 원력을 이어온 것은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시절인가'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 따른다. 그들의 이름과 음악이 귀만 열면 들려오는 시절이 오기를 기원한다.

김회경 작곡가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작곡과와 동 대학원 한국음악과를 졸업했다. 서울음악제(17 · 18 · 19회), 난파음악제, 동아음악콩쿨, KBS서울국악대경연에서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많은 불교음악을 작곡한 공로로 제8회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서양음악에서부터 국악관현악, 교성곡, 무용음악, 합창곡, 찬불가 등등 다양한 음악작품을 남겼다. 현재 동국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장, 불교음악협회이사, 문화복지연대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계사혼성합창단과 봉은사어머니합창단의 지휘를 하고 있으며, 조계종 불교음악원 음악감독 및 봉은국악합주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④

한 뜻으로만 해석하면 갇힌다

'잊지 않기, 주의력을 일으킴,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의 세 가지로 사띠의 의미를 정의해보았다. 사띠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한 이유는 〈니까야〉에 등장하는 갖가지 사띠의 용례에 부합하는 최적의 이해를 위해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사띠'라는 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다의적인 면모에 걸맞은 접근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필자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작은 안내 정도일 것이다.

이 풀이에는 사실 숨어 있는 전제가 있다. 이른바 '힐링 프로그램'에서 설명되고 있는 사띠의 이해와 연습에서 보이는 경직성을 염려하는 시각이다. 경직이라는 말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흔히 유일신을 믿는 이들을 맹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불교인들이 정작 자신의 이해와 실천은 유일하다고 믿고 있는 독선적인 태도를 경직되었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 나은영

'하나의 방법과 유일한 방법'이란 표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의'에 내재된 생각은 다른 것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유일한'을 쓰는 사람은 이러한 '열림' 대신 '닫힘'을 선택한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최고, 최상의 가치라는 믿음으로 무장한 채.

사띠의 의미를 '알아차림'으로 풀어 수행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로써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전에 나오는 사띠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 닫힘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띠를 중심에 두고 있는 현대 남방불교권의 명상수행 전통이라는 것도 그들 나름의 이해와 해석, 실천의 축적을 거쳐 만들어낸 하나의 명상법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지만, 유일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의 명상법이 부처님의 수행법과 일치한다는 말을 여과 없이 강조하고 있는 현장에서 견고하게 닫혀 있는 문을 감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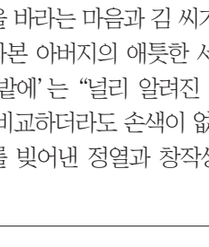
남방불교에서 〈니까야〉와 거의 동등한 성전으로 추앙되고 있는 〈청정도론〉 또한 〈니까야〉의 실천체계를 이해한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독법에 지나지 않는다. 〈청정도론〉에 나타나고 있는 '계율, 명상, 지혜'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기대면 매우 선명한 몇 가지 관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펼칠 때마다 드는 느낌을 말하자면, 열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세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배제된 일곱 가지 가능성에서 생겨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각에 근거한 명상의 방법이 세상을 얼마나 유익하게 만들지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사띠의 의미를 하나의 용어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대할 때면, 수박도 자를 수 있는 큰 칼을 자두를 자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앞서 제시한 사띠의 의미 또한 하나의 독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관점을 지닌 이의 또 하나의 의견이 보태진다면 좀 더 정밀한 언어로 표현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른바 집단지성을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성숙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띠'의 좀 더 적절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띠가 체계화된 형태를 띠고 수행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정념(正念), 정념정지(正念正知), 사념처(四念處), 사념청정(捨念淸淨)' 등이 바로 체계화된 사띠를 대표하는 명상법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람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판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마음의 달 Ⅰ·Ⅱ ▶ 가격 :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항복기심 ▶ 가격 :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진·치·만·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선용기심 ▶ 가격 :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액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옴 그림천수경

42개 명호를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42개의 손모양과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과 역할이 녹아있는 천수경!
그림을 통해 마치 불보살님을 친견하듯 그 진실어의 위신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대유학당 | 대명스님 엮음 | 349 쪽 | 신국판 | 값 15,000원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12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대유학당 | 설정스님 | 192 쪽 | 가로 9.5㎝ × 세로 15.5㎝ | 값 10,000원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CD

하락리수는 사주를 주역의 괘효로 환산하여, 주역으로 풀이한 평생운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하락리수 CD는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일일운세와 궁합을 일까지 확대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유학당 | USB락, 프로그램메뉴얼 | 가격 550,000원

대유학당 ☎ 02)2249-5630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지(止)'를 닦을 때 주의할 점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만약 지(止)를 닦는 자는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로하고

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헤아리는 수식관(數息觀)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형색 곧 인간의 육체적 상태를 죽고 난 후의 해골과 뼈로 보는 백골관(白骨觀) 따위를 의지하지 말며, 공(空)이니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며,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이니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며, 보고 듣고 감각으로 느껴 아는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소승의 수행자들이 선정을 닦을 때 하는 방법인 의시적인 관념에 의거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지를 닦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내주(內住)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외부 경계의 어떤 것에도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일체의 모든 생각을 생각마다 다 제거하라." 이는 등주(等住)의 경지를 말한다.

③ "밖으로 쏠리는 생각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제거하라." 이는 안주(安住)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④ "이 세상 만물은 본래 집착할만한 본질적 성격이 없는 것이므로 잠시도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다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근주(近住)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⑤ "외부의 사물이나 모양과 소리, 냄새와 맛, 촉감, 기억의 대상 등을 보고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조순(調順)을 말하는 것이다.

⑥ "고요한 마음으로 산란한 마음을 제거하라." 이는 적정(寂靜)을 말하는 것이다.

⑦ "마음이 만약 경계를 따라 흩어지거든 다시 그 산란해진 마음을 거두어 한데 모아 바른 생각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바른 생각이란 일체 외계의 사물은 오직 자기 마음의 소산임을 아는 것이다. 또 이 마음에 어떤 특수한 외형적 모습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는 최극정(最極靜)의 경지를 말한다.

⑧ "앉았다 일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 언제나 항상 그것이 모두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좋은 방편인 줄 알고, 잘 관찰하여 오래 익히고 배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오로지 한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전주일처(專住一處)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⑨ "마음이 안정되어 가만히 있게 되면 점점 총명해져서 저절로 진여삼매(眞如三昧)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9가지 마음 과정 통해 성취

아만 · 게으름, 성취의 장애물

다." 이는 등지(等持)의 경지로 지(止)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생멸심이 없어지고 무분별의 심체가 드러난 경지라 할 수 있다.

이상 아홉 가지 마음이 머무는 경지(九種心住)를 차례대로 설하여 지(止)가 성취되는 과정을 밝혀 놓았다. 지(止)가 이루어지면 번뇌를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신심이 늘어나 물러나지 않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의혹하고 있거나 믿지 않는 경우는 지(止)를 이룰 수가 없다. 정법을 비방하는 중죄(重罪)와 내가 잘났다는 아만(我慢)을 가진 자 또 게을러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止)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혀 놓았다.

원효는 그의 소에서 본문의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구절에 부가설명을 하면서 고요한 곳이란 첫째 사람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산림(山林)이라 했고 둘째 계(戒)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윤리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는 지난 적의 잘못을 뉘우쳐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그 결심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로 수행을 지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넷째는 바깥 세계 곧 세속의 환경과 관계가 단절되어야 한다고 예시 했다.

이어 말세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말세의 수행자는 올바른 원을 가진 자(正願者)가 적고 그릇되게 구하는 자(邪求者)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수행이나 공부에 있어서 뜻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자비심으로 보시한다면 '해탈'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③① 보시와 해탈의 관계

三有生死熾然大苦。菩薩處之如涅槃樂。何以故。為欲救濟諸眾生故。菩薩念言。悲眾生者卽是我解脫。以大施惠救濟眾生。眾生得樂卽是我解脫。雖復大施若無悲心不名為施。若有悲心施卽是解脫。(삼유생사치연대고。보살처지여열반락。하이고。위욕구제제중생고。보살념언。비중생자즉시아해탈。이대시혜구제중생。중생득락즉시아해탈。수부대시약무비심불명위시。약유비심시즉시해탈。)

번역

삼계(三界)에 나고 죽는 불타는 큰 고통도 보살은 살면서 열반의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곧 나의 해탈이다"라고 합니다. 크게 보시함으로써 은혜롭게 중생을 구제함은 중생이 즐거움을 얻어야 곧 이것이 나의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시 크게 보시할지라도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보시라고 부르지 못하거니와 만약, 자비심으로 보시할 수 있다면 바로 해탈입니다.

해설

부처님의 출가 전 왕자 때의 이름이 '싯닷타'이다. '싯닷타'라는 말은 '무엇이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태어나서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어 싯닷타는 화려한 궁궐과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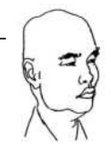
6년간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고행을 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 연기법(緣起法)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인 사성제(四聖諦)이며, 이 사성제의 원리를 풀어놓은 것이 연기법의 무명(無明)으로부터 시작된 12연기의 일체 현상과 고통이며, 그 고통의 고리를 소멸시키는 길(道)이 멸도(滅道)다.

그런데, 대승의 보살도는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 중생의 생사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가르친다. 자신의 고통만을 여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곧 중생과 어우러진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 바로 열반의 꽃을 피운다.

제바보살은 말한다. 중생의 즐거움이 바로 해탈이며,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며,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해탈의 길은 중생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다. 그 탐욕의 번뇌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상대는 중생이며,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베푸는 이가 있으면 그가 곧 해탈한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삼계의 고통은 보살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생사는 고통이 아니라 열반락(涅槃樂)과 맞닿아 있는 경계일 뿐이다. 생사의 고통은 벗어나야 할 예토(穢土)가 아니라 자비심을 실천할 다시없는 기회의 땅인 셈이다. 고통에 보살심이 스며들면 고통이 곧 해탈이자 열반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자연 그대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어느 정비업체에 걸린 문구처럼
버리고 비우고 닦아야 한다는 말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젊음과 싸움질을 거듭하지만
해 저문 날 돌이켜보면
한 줄기 바람 같은 허무뿐이다.

글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미움도 진리, 그리움도 진리,
진리는 자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자갈처럼 빨래처럼
퍼질러 있는 것을,
낙엽처럼 지고야 말
삭신을 추스르며
자연 그대로의 부처를 본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 것 없이.
버리고 비우고 닦을 것 없이.

열린 진리 · 세계 보여주는 것이 설법

격식 · 형식 갇히면 '노인불교'로 만족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보면 극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다. 지난 금요일 창원에서 버스 한 대로 청법 대중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법문을 듣게 했다. 청법가 없이 서서하는 합장인사 한 번으로 청법 대중과 어깨동무 하듯 법회를 열어갔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설법 중에 부르는 정훈희의 '스잔나'를 저음으로 노래하였다. 다른 법사 스님들은 가사장삼에 법상(法床)에 올라 주장자까지 힘겹게 들고 설법하지만 나는 언제나 가사장삼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서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자작시와 유행가를 곁들이며 부처님 말씀을 풀어간다.

형식과 격식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지만 열린 불교의 열린 가르침에는 처음도 중간도 마무리도 좋은, 표현과 논리를 갖춘 설법다운 설법이 더욱 중요할 터이다. 비논리적인 형이상학으로 끝간데를 가늠 할 수 없는 영험 설화등을 풀어내는 설법은 메아리를 잃고 부끄러움으로 남는다.

한 시간을 떠들어도 알곡 한 톨 추려낼게 없는 빈 쭉정이 뿐이라면 가당찮게 설법자로 나서는 용기는 잠재워야 할 터이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 내용은 세제불교(世諦佛敎)의 방편설(方便設)과 진제불교(眞諦佛敎)의 성불론(成佛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이 난 집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밖에 있지도 않는 흰 소 수레와 흰 사슴 수레가 있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태워 줄 것처럼 불난 집안의 아이들을 불러내는 가르침이 세제불교의 방편설이다.

이에 비해 마음이 곧 부처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인불사상(人佛思想)으로 바로 일깨워 주는 것이 진제불교의 성불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신앙은 누구나 사닥다리에 오르듯 하여 시야를 트이게 하고 마음을 열어 날마다 좋은날이 되도록, 열린 세계, 열린 진리를 펼쳐 보여 주는 것이 설법의 생명력이라 할 것이다.

법사가 설법 중간 중간에 한문으로 된 게송이나 읊고, 청중이 착하게도 나무아미타불이나 합창한다면, 법사가 주장자를 높이 들거나 법상을 가볍게 내리치며 '대중은 알겠는가?' 하고 묻는 게 설법의 전형이라면 이는 이 시대가 외면 할 수밖에 없는 박제된 미이라의 법문일수밖에 없을 터이다.

요즘 세대는 한문이 아닌 한글세대 이다. 청중의 눈높이에 따라 설법의 내용도 경전 밖의 다양성 까지 요구되는 세대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격식의 불교, 형식의 불교, 고정 틀에 갇힌 불교는 노인불교로 만족해야 할 터이다. 자유로움, 평화로움은 현대인이 즐겨 희망하는 자연인의 신앙 세계이다. 누구나 찾아와 아무나 편안함과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박수치며 환히 웃는 설법의 열린 마당이 되어야 한다.

비구(比丘)는 걸사(乞士)인데 천 여 만원이 넘는 천연 실크로 만든 장삼, 가사를 휘감고 법상에 앉아 있는 몇몇 스님들의 모습에서 대중들은 거리감을 느낄 터이다. 검소한 모습, 꾸밈과 조작이 없는 모습, 감추고 드러낼 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설법하는 모습이 그리운 오늘이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표현과 논리를 갖춘 설법다운 설법이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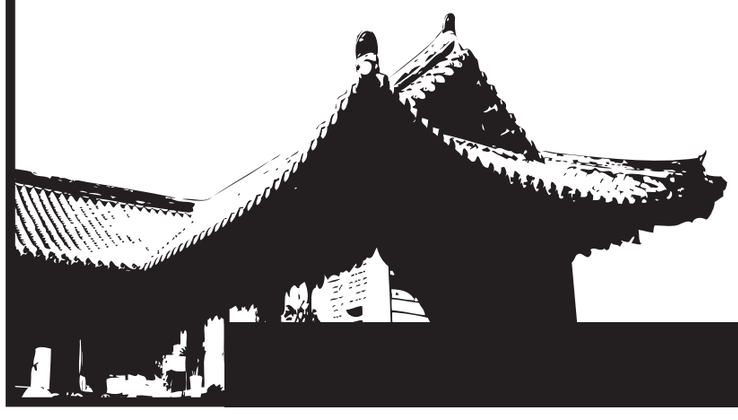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전후 폐허 속에서 불상 조성한 조각승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⑭ 원오(元悟) 스님

17세기 전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소실(滅失)된 삼보사찰(三寶寺刹 -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과 왕실의 원찰(願刹, 보은 법주사, 고창 선운사) 등의 중건이 이루어져 전각 건립과 동시에 불상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활동한 대부분의 조각승(彫刻僧)들은 전쟁 이전부터 불상을 제작한 스님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초반에 불상 제작을 주도한 스님은 대략 십여 명이 밝혀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던 조각승은 원오(元悟, 願悟, 圓悟) 스님이다. 스님은 1605년 대선사(大禪師)의 반열에 올랐던 것으로 보아 당시 불교계에서 존경받았던 학승(學僧)이면서 불상을 제작한 스님으로 보인다. 현재 원오 스님이 만든 불상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7건 30여 점이 남아있다.

조각승 원오 스님의 생애와 승려 장인(僧匠)이 된 배경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지만 문헌 기록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와 내용, 조각승의 계보 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오 스님은 1583년에 주종장(鑄鐘匠) 김자산(金慈山)이 하가산 수암사 범종(안동 광흥사 소장)을 만들 때 화원(畵員)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 1599년에 강원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을 석준(釋俊)과 함께 개금하였다. 이 문수동자상은 1466년에 세조의 둘째딸 의숙공주와 남편 정현조가 아버지의 무병장수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만든 불상이다.

왜구의 침략으로 전국 사찰 소실
終戰 이후 불상 조성 불사 '활발'
조선후기 불교조각 개척자 역할
생몰 미상… 大禪師로 칭송받아
완주 위봉산 주석, 호남서 활동해

원오 스님은 1605년 3월에서 7월까지 충남 논산 쌍계사 소조삼세불좌상을 신현(信玄)·청허(淸虛) 스님 등과 함께 제작하였다. 이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화원(畵員) 상수대선사(上首大禪師) 원오(元悟)"로 밝히고 있어서 원오 스님이 대선사의 지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11월까지 전북 완주 위봉사 북암에 4구의 목조보살입상(익산 관음사와 익산 혜봉원 봉안, 완주 위봉사 2구 도난)을 충신(忠信) 스님, 청허(淸虛) 스님과 조각하였는데, 현재 김해 선지사 목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조성 시기와 화주(化主) 및 조각승이 동일하게 나와 완주 위봉사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원오 스님은 1610년에 완주 위봉사 진석당(振錫堂)에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남원 선원사 봉안)을 제작하면서 대시주자(大施主者)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원오 스님은 대부분 완주 위봉사 불상을 제작하면서 시주자로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 완주 위봉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7세기 초에 원오 스님은 각민(覺敏)스님과 청허(淸虛)스님 등과 불상을 제작했다는 단서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조성발원문에서 나왔다. 이 발원문에 증명(證明)으로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스님이 맡았는데, 부휴 스님은 조선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高僧)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왜구에 대해 항쟁하면서 사찰 보존과 의병 활동을 지원하였다. 부휴 문도(浮休門徒)에 속하는 의승군들은 전쟁 중에 서산 휴정(西山休靜) 스님의 지휘를 받지 않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휘하의 수군(水軍)으로 활약하였다. 이들 의승군은 좌수영(영취산 흥국사)-조계산 송광사-지리산 화엄사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가졌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순천 송광사를 시작으로 보은 법주사,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강화 전등사 등에 중창과 중수불사를 주도한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원오스님은 1624년에 경남 합천 해인사 경판고(經板庫, 현 法寶殿) 중수에 벽암 각성(碧巖覺性) 스님 등과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17세기 초반 원오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605년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좌상(사진 왼쪽)과 1605년 익산 관음사 봉안 목조보살입상(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989년 9월 25일 도난당한 위봉사 대웅전 관음입상과 지장입상
사진제공=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원오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1550년대에 태어나서 1580년대 화원(畵員)으로 범종 제작에 참여하였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의승군으로 활동한 뒤, 1599년부터 1610년대까지는 완주 위봉사에 거주하면서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나 명산대찰을 중심으로 불상의 제작과 개금을 주도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원오 스님의 활동 시기는 1583년에서 1623년까지이다.

원오 스님의 선배로 추정되는 석준(釋俊) 스님은 1599년에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수화승으로 중수하고, 1600년 초에 전북 김제 금산사 중건을 수문(守文)스님과 주도한 것으로 보아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원오스님에게 조각을 가르쳐 준 스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석준(釋俊, -1599-1606-), 원오(元悟, -1583-1623-), 각민(覺敏, -1605-1614-) → 행사(幸思, -1606-1648-), 청허(淸虛, -1605-1645-) → 무염(無染, -1633-1656-)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오 스님은 완주 위봉사에 거주한 스님으로, 부휴문도(浮休門徒)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원오 스님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이 봉안된 삼세불좌상이다. 본존인 소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190㎝의 중대형불상이다.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나발이 촘촘하고, 육계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수리 부분에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은행(杏)모양의 중앙계주를 가지고 있다. 살이 찐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표현하였다. 특히, 눈두덩이가 넓고 작은 입을 가지고 있다.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덮은 가장 끝단이 가슴에서 V자형으로 짧게 늘어지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까지 늘어진 후 팔꿈치를 지나 복부에서 넓게 펼쳐져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자연스럽게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왼쪽 어깨에서 한 가닥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끝부분이 꽃잎 모양으로 마무리되고, 왼쪽 발바닥 위에 짧게 소매 자락이 늘어져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 손가락을 편 상태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무릎 위에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항마촉지인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석가불의 수인(手印)이다.

원오 스님이 1605년에 완주 위봉사 북암에 만든 4구의 목조보살입상 가운데 1구는 전북 익산 갈산동에 위치한 익산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다. 이 사찰은 1912년에 정토진종(淨土眞宗) 오오타니하[大谷派]의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로 개창(開創)되었다가 해방 후 현재 사찰 이름으로 바뀌었다. 원오가 만든 목조보살입상(木造菩薩立像)은 높이가 153㎝로 조선후기 중대형 보살상이다. 보살상은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크고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보관 안쪽에 높은 상투를 묶어 조선전기 보살상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방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다. 특히, 1605년에 제작된 김해 선지사 목조여래좌상과 같이 두꺼운 눈두덩이를 가져 편하고 순한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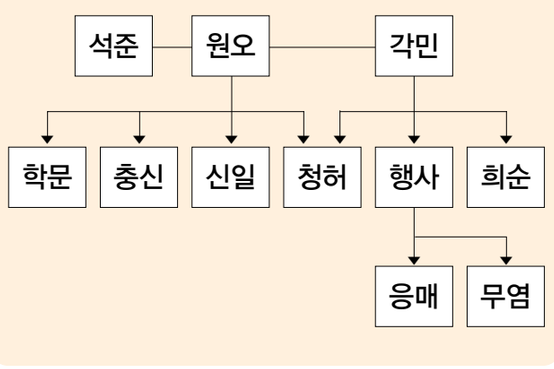
두꺼운 대의는 변형우견편단(變形右肩偏袒)으로, 대의 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하게 늘어져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완만하게 내려와 배 부분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다. 왼쪽 팔뚝 위에 옷자락이 뾰족하게 삐쳐 ㅅ자형을 이루고 있고, 왼쪽 어깨 뒤에 길게 앞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늘어져 있다. 상반신에는 X자형으로 목걸이를 걸치고, 대의 안쪽에 승각기를 하고 있다. 수인(手印)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연화 줄기를 들고 있지만, 1980년에 그려져 사찰 내에 소장된 유화(油畵)에 여의(如意)를 들고 있어 문수보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이 제작된 목조보살입상 1구가 익산 혜봉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그리고 완주 위봉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관음상(觀音像)과 지장상(地藏像)은 1989년 9월 25일 도난당하였다. 이들 보살상이 조성된 완주 위봉사는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30본말사로 구획할 때 전북 일원의 50여 사찰을 관할하는 본사(本寺)로 선정될 정도로 조선 후기에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사찰이다.

이 사찰은 고려 초기에 전주의 최용갑(崔龍甲)이 암자로 건립한 후, 고려후기에 나옹화상(懶翁和尙)이 머물면서 가람을 정비하였으며, 조선시대 국난(國難)이 일어났을 때 왕실의 진영(影幀)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찰 주위에 위봉산성(威鳳山城)을 축조하였다.

현재 군산 상주사 대웅전, 김제 문수사 대웅전, 익산 문수사 명부전, 완주 화암사 명부전, 논산 월은사 인법당, 남원 용담사 법당(현 서울 강남 법수선원 봉안) 등에 봉안된 불상은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오 스님의 조각승 계보



호연스님의
다라니기도독송CD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천상의 소리
호연 스님의 다라니 기도독송 CD
다라니는 미묘한 힘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독송하면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용,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구입 문의 02)971-4461 010-9885-6328

건강 약선 음식 전문점
곽가네 음식 통인동 통인시장 내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음식입니다.
불연으로 만난 건강음식을 함께 나누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종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양 구인사에서 4박 5일 동안 지극정성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련한 꿈속에서 천태종 종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당시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하신지 10여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전에 한번도 뵌 적이 없던 조사님께서 제 기도에 감응하셨는지 나타나시어 저에게 건강을 치유하라며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법을 알려주셨고 그 음식 조리법으로 식생활을 바꾸니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 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조리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7년전 부터 곽가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불자여러분이 편하게 언제든지 접하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옵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찰음식 70% 일반음식 30%
◆불가음식 : 인삼견과류탕. 더덕견과류탕. 연근견과류탕. 우엉견과류탕. 버섯견과류탕
◆건강약선음식 : 정식A. 정식B. 정식C / 선식떡국. 선식냉모밀. 선식온국수. 선식냉국수. 견과류 누룽지탕 ◆ 일반음식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8 (통인시장 내) 곽가네음식
02)737-7949 / 곽정순 011-9762-7949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경주 향토미술 산증인 '조희수'를 회고하다

경주 솔거미술관서 초대전
오는 9월 25일까지 진행


조희수 작가의 1970년 作 '석굴암 11면 관음보살'

경주 지역 근·현대 미술의 산증인 조희수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가 열린다.

경주엑스포는 오는 9월 25일까지 '지역원로작가 초대전 - 조희수전'을 경주 솔거미술관 제1, 2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조희수 작가는 남한 최초의 미술대학인 경주예술학교 1회 졸업생으로는 유일하게 생존해있는 작가다. 그는 1948년 경주예술학교 졸업 후 1954년부터 중앙화단에서 활동하다가 1980년 낙향하여 경주 남산자락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낙향한 이후에는 주로 경주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화폭에 담았으며 모든 그림을 현장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을 그리기 위해 3년 동안 양동마을에서 지내기도 했으며, 안동 하회마을을 그리기 위해 4년 동안 안동을 오고갔다. 이번 전시에는 경주, 양동마을, 하회마을 등의 풍경을 담은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경주엑스포는 "(사)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원로작가 초대전을 마련해 경주미술사의 자료 수집과 미술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신진 작가들이 펼치는 불교적 사유 '향연'


강현정 작가의 '어해화(漁海花)'. 다양한 민속적 상징체계들이 내재됐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이지민·강현정 작가 전시회

젊음은 투박하지만, 자체만으로 빛이 난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 미술에 뜻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젊은 신진 작가들의 창작 성과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8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지민·강현정 작가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각각 '99%'·'행복을 탐하다-Eternal Essence'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신진작가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지민 작가의 '99%' 전시회에서는 현대적 기법으로 전통회화의 맥을 이어가는 그만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올해로 25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회화를 전공한 그는 학교에서 익힌 불화, 궁중장식화, 인물화 등의 전통회화 구성을 토대로 비단이나 석채, 금박 등의 천연안료 재료들을 엮어가는 과정, 또 비단을 염색하는 작업부터, 비단매기, 교반수 칠 등의 예민한 작업들도 이제 제법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 작품의 폭이 넓다.

특히 이번 작품 중 '석조전'은 덕수궁 석조전 내부에서 인상 받았던 곳을 비단 위에 금박과 고분기법(안료를 쌓아 올려 입체감을 주는 전통회화기법)을 사용한 화려한 표현이 돋보인다. '경복궁의 기억' 연작은 표현의 절제와 고졸한 색감이 더 풍부하게 다가오는 창조적 재현으로 공감을 불러온다.


이지민 작가의 '경복궁의 기억)'. 두 신진작가의 전시회는 8월 15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작가공모 사업 일환 개최
8월 15일까지 전시 진행
참여 작가 모두 첫 개인전

전통과 서양 미술 안에서
불교적 사유 표현해 '눈길'

전시 주제를 '99%'로 잡은 이유도 있다. 이지민 작가는 전통 재료 중 금박을 다루기를 즐긴다. 변화하지 않는 진금(眞金)처럼 작품활동을 가졌다는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지민 작가는 "생애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 제목을 99%라고 한 이유도 표면적으로는 회화재료로서의 진금을 뜻한다"면서도 "작업 과정 중 느꼈던 99%의 부족함과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99%라는 솔직 담백한 다짐의 의미"라고 했다.

강현정 작가는 서양화로 시작해 불교미술로 폭을 넓혔다. 작품의 궤적도 서양화와 불교 미술을 넘나든다. 특히 실험적인 상징 표현들이 인상 깊다.

강현정 작가는 주로 불교적 소재와 민화, 궁궐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세계에 주목하면서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작가에게 있어 상징의 이미지는 곧 행복을 꿈꾸는 공간으로 그 내면에는 한국의 전통 상징인 불교적 사유가 '활발발(活潑潑)'함을 알 수 있다.

'행복을 탐하다-Eternal Essence'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도 다양한 상징체계가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작품 '어해화(漁海花)'에서 친숙한 전통의 이미지와 주관적 상징표현들이 유기적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춘하추동' 연작에서는 공간과 색감의 조화로운 미장센이 돋보인다.

다양한 상징체계에 대해 강현정 작가는 "종교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하나의 속성임을 깨닫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종교인 것 같다"고 말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KTX서 만나는 BBS 프로그램들

8월 6일부터 사찰음식 영상 제공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의 다양한 콘텐츠를 KTX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BBS불교방송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자연의 미를 널리 알리고,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오는 8월 6일부터 KTX에 제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KTX에 제공되는 BBS불교방송의 영상 콘텐츠는 우리나라 대표사찰을 중심으로 자연풍경을 담은 '산사의 미'와 전국 사찰에서 내려오는 설화이야기 속에 담겨진 사찰 고유 음식을 소개하는 '사찰음식'이다.

BBS불교방송은 "앞으로 산사 또는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자연풍경을 담은 〈산따라 물따라〉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복장에 담긴 민중의 발원과 염원들

대구博, 보성선원 불복장 테마展
10월 23일까지 특별전시실서
후령통·전적 등 1백여 점 전시

대구 달서구 보성선원에는 목조석가삼존불상이 있다. 본래 거창 견암사에서 조성됐으나 한국전쟁 시기에 현재의 보성선원으로 이운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 보성선원은 개금불사를 진행하면서 삼존불의 복장을 개방해 복장물을 확인했고, 여기서 놀라울 만한 불복장 유물들이 나왔다. 특히 발원문과 후령통, 다양한 경전류 들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 같은 불상·복장물과 복장전적은 보물 제1801호, 제1802호로 2013년 지정되기도 했다.

대구 보성선원의 부처님의 불복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테마전 '대구 보성선원 석가삼존불상- 불복장 발원과 염원의 세계'를 전시한다. 국립박물관이 사찰 유물을 단독으로 전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대구 보성선원의 성보 문화재 가지는 역사적 위치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대구 보성선원 석가삼존불상 복장물들. 2010년 개금불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삼존불 불복장 테마전시회를 개최한다.

실제, 보물로 지정된 2건의 문화재들은 그 가치가 높다. 보물 제1801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삼존상과 함께 복장후령통(腹藏候鈴筒, 부처의 상징물을 넣은 통), 발원문이 남아 있어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 발원문을 통해 1647년(인조 25년)의 정확한 제작 시기, 사찰,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제1802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은 조선 전기에 펴낸 책들이다. 완결성과 희귀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이 중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5'는 1461년(세조 7년)에 을해자(乙亥字, 15세기에 주조된 조선시대의 한글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실물로 남아 있는 활자 중 가장 오래됐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1440년(세종 22년)에 가평 화악산 영제암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불복장 문화재 10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복장 전적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더욱 눈길을 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복장은 중생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의 세계이자 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불교의 은밀한 의식"이라며 "이번 테마전시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염원과 복장의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53)768-605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21~2015.7.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3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4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5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	법륜	나무의마음
8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9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10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본래 자기 본성이 바로 진실한 부처”



禪으로 읽는 증도가 하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펴냄
2만 2천원

깨달음의 진수를 잘 밝혀 놓았으므로 예로부터 선종의 고전으로서 널리 애송된 영가현각 스님의 ‘증도가(證道歌)’ 267구를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이 깨달음의 자리를 곧장 가리키는 살아 있는 언어로 설법했다. 〈禪으로 읽는 증도가〉(상권)에 이은 ‘김태완 선원장 설법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이다. 상, 하권 중 상권은 지난달에 먼저 출간되었고, 하권은 이번에 출간되었다.

조사선(祖師禪) 전문가이자 실제 눈을 뜬 공부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김태완 선원장 설법은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불교의 정신에 충실하게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해탈의 체험을 한 뒤에 계속 공부해 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들도 많이 담겨 있어, 초심자뿐 아니라 공부가 진전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설법 책이다. 중국 당나라 때 선승인 영가현각 선사는 여덟 살에 출가해 경전을 두루 공부했고, 천태지관 법문에 정통했으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다. 육조혜능의 제자 현책의 권유로 혜능 대사를

267구로 이뤄진 증도가… 깨달음 진수 밝혀
중국 당나라 선승인 영가현각 선사가 지음
생생한 언어로 해설, ‘김태완 시리즈’ 7번째

찾아가 문답해 인가 받았다. 그날 혜능 대사의 권고로 하룻밤 묵었는데, 이 때문에 일숙각(一宿覺)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후 ‘증도가(證道歌)’를 지었으며, 267구로 이루어진 증도가는 깨달음의 진수를 잘 밝혀 놓았으므로 예로부터 선종의 고전으로서 널리 애송되었다.

이 책은 당장 눈앞의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는 법문들뿐 아니라, 한 번 해탈의 체험을 한 사람이 그 뒤에 공부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담겨 있다. 그 때문에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깊이 있는 가르침들도 접할 수 있어, 초심자뿐 아니라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설법 책이다. 중국 당나라 때 선승인 영가현각 선사는 여덟 살에 출가해 경전을 두루 공부했고, 천태지관 법문에 정통했으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다. 육조혜능의 제자 현책의 권유로 혜능 대사를 찾아가 문답해 인가 받았다. 그날 혜능 대사의 권고로 하룻밤 묵었는데, 이 때문에 일숙각(一宿覺)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후 ‘증도가(證道歌)’를 지었으며, 267구로 이루어진 증도가는 깨달음의 진수를 잘 밝혀 놓았으므로 예로부터 선종의 고전으로서 널리 애송되었다.

이 책은 당장 눈앞의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는 법문들뿐 아니라, 한 번 해탈의 체험을 한 사람이 그 뒤에 공부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담겨 있다. 그 때문에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깊이 있는 가르침들도 접할 수 있어, 초심자뿐 아니라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설법 책이다. 흔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진리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불만족스러움과 번뇌의 감옥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처와 조사, 선사들이 발견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증도가〉의 앞머리에서 영가현각 스님은 말한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바로 진실한 부처이다”라고.

구도인들이 찾고자 하는 그 무엇, 이름하여 ‘부처’라 하고 ‘도(道)’라는 진리는 사실 우리의 ‘본래 타고난 본성’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바로 본래 부처이며, 늘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며 자기 본성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며,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선(禪)의 요체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인 것은 이 때문이다. 자기의 본성 즉 ‘마음’이 본래 부처이므로 그것을 곧장 가리켜 깨닫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선사(禪師)들이 하는 일이란 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마음을 계속 가리켜 준다. 임제 스님의 할도, 덕산 스님의 방도, 수많은 선문답과 설법들도 실은 모두가 ‘이것’ 하나를 가리켜서 깨닫게 하려는 방편이었다. 조사선을 되살려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의 설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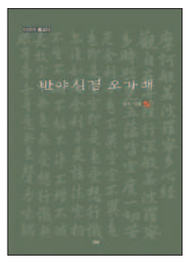
“그럼 (손가락을 세우며) 이건 뭐냐? 아무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아무런 정해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손가락을 세우며) 여기서 말하고, 모든 것이 (손가락을 세우며) 여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손가락을 세우며) 여기서 나타나지만, 이것 자체는 ‘뭐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천지가 이것이어서 어디를 보든지 이것 하나가 확인되지만, 이것 자체는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향기로운 냄새도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흔들어 올리며) 이것 하나가 분명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선(禪)에서는 수행을 말하지 않으며, 기록에 따르면 2조 혜가부터 대개 설법을 듣다가 말끝에 깨달았다. 그것이 원래 선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모든 유위적인 수행을 멀리하고, 선지식의 말을 잘 듣다가 문득 알아차리는 것이다. 설령 한번 해탈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믿고 생각에 끌려 다니던 습성이 워낙 뿌리 깊기 때문에 꾸준히 설법을 들으며 안목을 확고히 해야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하여튼 공부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이것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문은 생각을 조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다 해도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생각조차도 여법하게 돌아가도록 해서 법을 보는 안목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법하게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걸 날카롭게 볼 수 있게 여법해져야 합니다.”

김주일 기자

‘자리이타 보살도’ 가르침이 핵심



반야심경 오가해

정목스님 지음
금샘 펴냄
2만원

〈반야심경〉은 구마라집의 번역본, 현장의 번역본, 반야와 이언의 공동번역본이 대표적이다. 이 경의 해설서는 원측의 〈불설반야바라밀다심경찬〉이 가장 뛰어나고, 원효의 〈대혜도경종요〉는 6백부 반야경의 근본 사상과 요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작이다. 〈반야심경〉은 연기의 세계관에 의한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 모든 법에 대한 바른 지혜, 부처님의 지혜와 그 가치관의 실현에 대해 명료히 밝혔다. 그것은 오온과 모든 법의 공성을 깨달아 묘관찰지를 얻고 발심해 자리이타 보살도를 실천하며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는 가르침을 보였다. 실로 ‘이것이 불교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반야심경 오가해(五家解)〉는 삼가(三家 : 구마라집, 현장, 반야와 이언)의 번역본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가(二家 : 원측과 원효)의 논서를 중심으로 관조반야와 염불수행을 비교하며 해설했다.

〈반야심경 오가해(五家解)〉는 삼가(三家) 번역본과 이가(二家 : 원측과 원효)의 논서를 해설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첫째, 반야와 이언의 공동번역본에 의해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삼분과(三分科)를 따라 풀었다. 정종분은 제 1장 관하는 지혜, 제 2장 보살이 관할 경계, 제3장 얻을 바의 과보로 구성됐다. 이 정종분은 구마라집과 현장의 번역본을 함께 실어 뛰어난 조사들의 번역을 한 눈에 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정종분 해설은 원측(613~696, 신라)이 현장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해설한 〈불설반야바라밀다심경찬〉을 인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했다. 셋째, 원효의 〈대혜도경종요〉 〈무량수경종요〉 〈아미타경소〉 등을 인용해 관조반야와 염불수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모든 해설은 불자가 어떤 수행문을 선택해 닦든지 그 귀결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곧 지혜의 완성과 다 함께 안락한 삶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원측은 이 경의 뜻은 모든 법

다섯명의 금강경해설서 모아 편찬
‘상구보리 하화중생’ 밝히는데 귀결

의 공성을 깨달아 대승의 근본정신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이 공사상을 자리이타의 실천철학으로 해설하고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대승의 선지식만이 가능한 일이다. 원측과 원효는 모두 발심,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 삼신과 정토를 강조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원측보다 원효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밝혔으므로 원효의 『무량수경종요』에 의해 이 점들을 보충하여 해설하였다. 또한 자각의 문인 깊은 관조반야를 실현할 수 없는 대부분의 불자들에게 원효가 권한 자비광명의 문인 염불수행의 요체를 보였다.

김주일 기자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바라본 산사



산사 가는길

조낭희 글 사진
눈빛 펴냄
1만 5천원

수필가인 저자가 전국 사찰 50곳을 순례하며 느낀 순간의 감상을 적은 답사기와 직접 찍은 컬러 사진들을 함께 수록한 책이다. 단순 사찰 정보나 여행기가 아니라 산사에 들어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마음의 책이다.

초보승인줄 모르고 스님께 불상 설명을 청했다가 오히려 무안을 당한 김천 직지사,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 하는 직장생활 새내기 딸을 데리고 찾아간 완주 송광사,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이라는 존재와 그 자리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한 여수 향일암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산사를 새롭게 빚어낸다.

스님들이 모여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도량이라고 하듯이, 저자에게 산사는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산사의 대웅전과 불상, 불탑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을 만난다. 선암사 무우전 돌담에 핀 홍매화, 통영 비진도 비진암의 동백꽃,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 등에서도 불심을 마주한다. 욕망과 물질에 매달려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며 산사가 베푸는 가르침에 삼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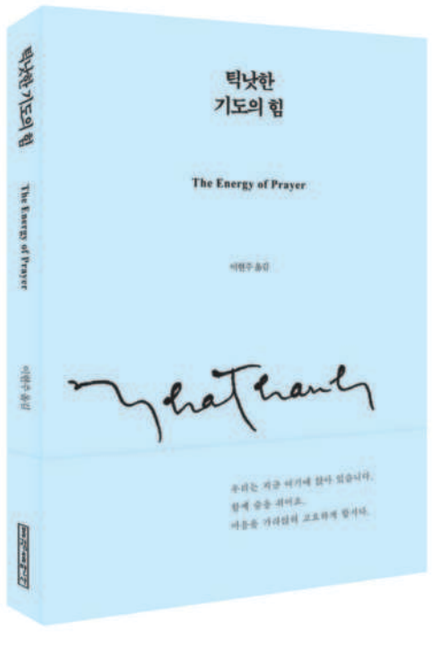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인 저자는 묵주와 염주가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산사서 얻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오늘도 저자는 번뇌와 탐진치를 털어내며 마음의 눈으로 산사 어디쯤 오르고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그대를 바꾸고
그대를 살리고
그대를 근원과 이어 주는

틱낫한 스님의 정성 가득한 기도 이야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어요.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하게 합시다.”



틱낫한 기도의 힘
The Energy of Prayer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휴식과 회복이 이뤄지고
삶이 깊어지는
참된 기도의 세계로 안내한다

틱낫한
기도의 힘
The Energy of Prayer
이현주 옮김 | 208쪽 | 13,000원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일상을 창조적 순간들로 경험하는 기술

삶과 일과 예술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



프랑크 베르츠바흐 지음 | 정지인 옮김 | 256쪽 | 13,8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미얀마 '종교폭력 대책위' 발족… "늦었다"

7월 15일 정부 방침 발표에 외신 반응 '부정적'

극우불교단체의 지속된 이슬람 탄압에 대해 침묵해 온 미얀마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이 취임 후 첫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냉소적 반응을 내놓았다.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은 7월 15일(현지시각) '종교적 폭력사태를 다루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불교 전문지 'Lion's Roar'은 7월 21일(현지시각) "취임 100일을 맞은(7월 10일 기준)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이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며 "이번 특별대책위 발족은 마바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법적 경고다. 미얀마 정부는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정치인사가 공개적으로 마바타를 비난했을 당시에도 그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ion's Roar'은 '너무 늦은 처사'란 평가와 함께 특별대책위 역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Lion's Roar'은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1년 넘게 로힝야족을 방치해 오다,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비난이 들끓자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며 "그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지난해에는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박해를 피해 보트로 탈출을 시도하다 좌초된 사건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Lion's Roar'은 "이 같은 문제가 전개된 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심지어 아 웅 산 수치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슬람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조차 금지했으며, 현재 미얀마 국회서 이슬람교도 정치인은 단 1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사진 왼쪽)은 지난 5월 22일(현지시각)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를 만나 '로힝야'란 표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존 케리(사진 오른쪽)는 완곡히 거절했다.
사진출처=Lion's Roar

미얀마, 종교폭력 대책위 발족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대한
아웅 산 수치 취임 후 첫 조치
"1년 방치… 비난 들끓자 시행"

이러한 반응은 로힝야족 탄압을 1년 넘게 방치한 아웅 산 수치 및 NLD에 대한 불신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선서 아웅 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NLD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수치 외무장관은 미얀마 내의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던 터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이에 로힝야족 2만5000여명은 박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3월 난민캠프로 돌아왔지만 시기상조였다.

오히려 수치 장관은 지난 5월 세계 정상들에 대해 '로힝야족'이란 표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로힝야'는 아랍어로 '자비'란 뜻으로, 극우불교단체는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로힝야란 명칭 대신 '이민족'이란 비하적 의미의 '벵갈리'로 불러왔다. 이에 수치 장관이 불교도인을 의식,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 문제를 외면했단 비판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수차례 아웅 산 수치 정권에 대해 "도덕적으로 당연히 무슬림과 불교도 사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또한 지난 6월엔 제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UN인권 고등 판무관이 미얀마 소수민족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민족대학살'이라 표현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제드 라드 판무관은 "로힝야족은 국가로부터 국적을 박탈당해 자유와 안보를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극우불교단체들의 탄압은 갈수록 늘어가며, 로힝야족을 비롯한 무슬림 12만 명은 강제노동과 성적 유린을 피해 난민 캠프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극우불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을 테러하는 등 탄압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Lion's Roar' 보도에 따르면 정부 주최 평화토론회(시일 미정)에도 로힝야족은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무슬림 평화운동가는 'Lion's Roar'와 인터뷰서 "정부의 특별대책위 방침은 너무 늦게 시행됐고, 그 마저도 로힝야에 대한 탄압을 막기엔 미약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수치 외무장관이 미얀마에 평화를 가져온 '민주주의의 횃불'일지, 아니면 오직 본인의 명성에만 치중한 인물일지 드러날 것"이라 평했다.

한편 극우불교단체 마바타의 입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특별대책위를 구성하며 마바타 테러행위를 제재하고 나선 가운데, 미얀마 승가회(Sangha Council)도 최근 발생한 마바타의 이슬람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미얀마 승가회는 "마바타는 절대 불교단체가 아니다. 우리 승가회는 방종에 빠진 마바타의 범법 행위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바타 대표 위라투 승려는 "수치 장관이 똑똑히 행동하지 않을 경우, 신발을 벗어 내리칠 것"이라 위협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印, 부디스트서킷 中·日 관광객 유치 나서

정부, 중국·일본 불자 대상 성지순례열차 운영 시도

"낙후·비위생적 환경 개선 시급"
관광지출 많은 국가 공략

인도 정부가 불교 성지순례 전용열차 '부디스트 서킷'을 중국 및 일본 불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도 언론 '더 힌두'는 7월 16일(현지시간) "산업자원부 및 교통부 장관이 중국·일본과 같은 불교도들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부디스트 서킷' 운영을 시도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관광객들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비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도철도관광회사(Indian Railway Catering and Tourism Corporation, 이하 IRCTC)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교성지순례열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IRCTC는 인도 교통부 자회사로, 불교성지를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 및 순례객들을 위해 2006년 불교성지순례열차 첫 번째 노선을 개통했다. 또한 인도 뿐 아니라 부처님이 태어난 네팔에 연결되는 부디스트 서킷 노선 개통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낙후된 공항과 비위생적 환경, 또 와이파이 등 인터넷 시설이 미비한 점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IRCTC관계자는 "많은 불교도들이 성지순례를 오지만, 낙후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재방문을 유도하기 힘들다"며 "중국 및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이런 환경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불교 성지순례 전용열차인 '부디스트 서킷'을 중국과 일본 불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더힌두

마노차 IRCTC 운영위원장은 "세계 여행관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인구는 해마다 215억 달러를 해외여행으로 지출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3% 상승한 것"이라며 "인도는 중국인들에게 매혹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하루 속히 인프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디스트 서킷'은 화려한 장식으로 호화롭게 꾸며져 '바퀴 위의 궁전'이라고도 불린다. 대규모 순례단이나 부유한 불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1~2주 코스로, 이용객들은 부드가야·사르나드·라지기르·산치·아잔타·엘로라 등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성지를 돌아볼 수 있다.

객실 등급은 따로 구분이 없으며, 패키지 가격에는 △열차 이용료 △특급호텔 숙박료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등 포함돼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교국가 여행할 때 부처님 문신 'NO!'

스페인 관광객, 문신때문에 미얀마서 추방위기

한 스페인 관광객이 다리에 새긴 부처님 문신 때문에 미얀마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7월 19일(현지시간) 스페인 관광객 케사르 헤르난데스는 부인과 미얀마 바간 지역을 여행하던 중 현지 승려의 신고로 구금됐다. 그의 오른쪽 종아리에 새겨진 부처님 문신이 '부적절한 행동'이란 이유였다.

이에 헤르난데스와 그의 부인은 바간서 추방된 뒤 400마일(약 630km) 떨어진 랑군 지역 구치소에 구류됐다. 미얀마 당국은 AFP에 "헤르난데스와 부인이 관광객으로서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태국 방콕으로 추방될 것"이라 밝힌 상태다.

아시아 남방불교 국가는 불교적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는 곳이 많다. 때문에 서구인들의 타투를 새기는 등 자유로운 행동이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있다. 2014년 한 캐나다 교수도 부처님 문신을 몸에 새겨 미얀마서 추방됐으며, 같은 해 영국출신 간호사 또한 같은 이유로 스리랑카서 추방됐다.



한 스페인 관광객이 다리에 새긴 부처님 문신 때문에 미얀마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출처=더 스펙닷컴

미얀마 당국은 "미얀마서 하체 부분은 '부정한 부위'란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런 상황서 외국인이 다리에 석가모니 문신을 한 것은 불교도들에게 자칫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웅 산 윈 미얀마 종교문화부 장관은 헤르난데스 부부에게 추방 대신 '자율적 의사로 떠날 것'을 조언했다고 알려졌다.

아웅 산 윈 장관은 "우리는 그들을 추방할 이유가 없다"며 "단지 헤르난데스 부부가 종교적 모욕감을 느끼는 미얀마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빵 굽던 스님들, '딸기'로 나눔행

캐나다 스님들, 직접 재배 딸기로 푸드뱅크 지원

지난 5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빵을 구워 기증한 캐나다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이 이번엔 '딸기'로 나눔행을 실천했다.

'CBCNews'에 따르면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캐나다 몬태규 시(市) 푸드 뱅크의 음식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재배한 딸기를 5달러에 팔아 푸드뱅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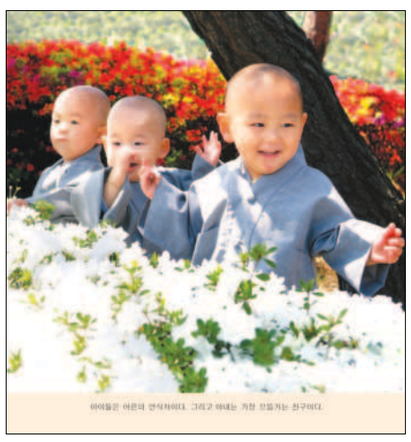
대각불교연구회 댄 주지 스님은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친절 덕분에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차례"라 밝혔다.

한편 '푸드 뱅크'는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다.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직접 재배한 딸기를 5달러에 팔아 몬태규 시 푸드뱅크를 지원한다.
사진출처='CBCNews'

박아름 기자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 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800 원
• 정가 2,0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00 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200부 이상 @ 1,800 원
• 정가 2,0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B형-여



영가옷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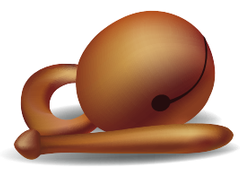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천도재,구병시식,49재)
010-2125-4684
대구은행 087-13-035968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법당 철거전문 (재활용 센터)

퇴불, 철거, 견적, 불교용품, 매입, 판매 정성을 다해
퇴불, 철거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 다사팜
010-2395-3333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4851-656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숙식가능, 부산)
010-7311-5335

60세 이상
노전스님
모십니다
(불교 관련서적 독서실에 기증해 주실분 많은 동참 바랍니다)
010-8819-8988

비구니 스님

초빙합니다
암자 운영하실 분
02-3436-0796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499-3721

불심깊고 독신자
60대이상 보살님
찾습니다
(경북 울진)
010-8571-6559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아주 특수한 정법 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
공간내 행동이 자유롭고 흡입력이 좋은 마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이정도면 잘 나온다며 종교인의 심리를 이용하지 않고 재공사로 마음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제10-1317539호)
010-4440-8687

총무원장 및 각원 원장 모집공고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및 등기필한 종단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와 종세를 넓히기 위해 각원 원장 및 부원장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법원장, 문화원장, 포교원장, 고시원장, 비구니원장, 전법사대전교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010-8729-849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기도 노장 스님 구함
공양주 보살,
행자 구함.
절에서 청소할 처사구함
절에서 공부할 행자구함
010-3840-435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 과 문

본의 아니게 세계불교승가총연합회와 대한불교원조계종 종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모든 것은 소승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에 거듭 사과드리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과문을 게재 합니다.
2016년 8월 3일
봉림사 원봉 석경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5세)
010-3746-8887

부전스님. 공양주

사찰포교원 상담
법당철거 대출잔고
상신 (주)
대표 010-5381-1419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사무장 구함

종무소에서 일할 사무장(남,여)을 구합니다
컴퓨터 가능하고 불자여야 하며 숙식 가능해야 합니다. 월보시와 휴무일은 면접시에 결정합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문수선원
055-864-19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통영)
055-645-3060
010-4580-203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탁트인 바다전망과 전통목조사찰◀
- 위치 : 부산 신항만 부근, 거가대교 입구
- 총부지: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 충주시 부근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45㎡, 요사채 75㎡, 지장전, 산신각
- 토지 2600㎡, 면소재지 부근
- 50년 사찰, 전망좋으며 위치좋음
- 시설깨끗하며 정원 휴식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대지 : 220평 ◎ 대지 : 60평
◎ 법당 : 50평 외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요사 : 60평
◎ 양도 : 7억8천 ◎ 양도 : 9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자 선원 안내
- 위치: 통도사 IC ~ 보라CC 부근
- 토지 : 대지 402평(주차 가능)
- 건물 : 통나무집 7동(멋진 정원)
※ 전통사찰, 식당, 찻집 가능
- 가액 : 2억 3천 인수 (은행 2억 7천만원)

직통 010-2595-7752 전무
※사찰전문 만덕 부동산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방문 상담 요함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찰 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남 10길 40-8
- 대지 54평
- 건물 50평
- 대웅전, 삼존불, 석탑2
- 가액 : 2억 7천

010-9563-6787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 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모든 집기 일체포함
- 가액 : 2억 (절충가능)

010-5348-200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 불단, 신중단, 영가단 원목 제작 (90평)
- 요사채2, 서재1, 공양간1, 종무소1
- 가액 :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292-10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000만원

010-2282-888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뒤편 산이감싸고 있는곳)
- 대지 140평, 건평150평, 3층건물, 법당30평,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전철, 버스 300m
- 가액 : 15억(절충가능) 소임관계로 급양도

051)754-337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찰 안내
-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 대지 270평, 법당 17평(목족신축) 요사채 약 40평, 군부지 약 400평 사용함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1-792-8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 상담후 결정

010-2575-9876

다용도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포교원 안내
- 위치:울산 동구 대로변 사거리
- 평수:50평, 3층 엘리베이터 유
- 은행,마트,병원등 인구밀집지역
- 오존불(각3자,2자반),신중,영가단 냉난방완비,시설완벽
- 가액 : 보 500, 월65만원 시설비품 1700만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2896-6689

사찰 안내
- 위치: 전북 익산시 석기길
- 대지 536㎡, 텃밭 661㎡(별도)
- 인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 삼존불(동불), 인등 300등
- 현 법회중(걸망만 메고 오세요) 해우소 4, 원거리 소임관계
- 가액 : 9천 8백만, 전세 7천 가능

1899-1042
010-3679-108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최적, 3층건물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법회 가능, 주차1
- 가액: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7583-1235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찰 안내
- 위치: 밀양IC 얼음골 바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연화탑,포대화상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7억

010-4895-205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지리 1길 31의 3호
- 조용하고 아담한 별장같은 단독
- 화단에 과일나무 정원같은 도량
- 특수목 울타리 보안도 화분대도
- 스님들 노후 포교처로 안성맞춤
- 다시없는 좋은가격 8천 3백만원

010-5458-29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대현로
- 법당 : 22평 (삼존불)
- 사무실, 부엌, 방
- 후불탱화, 인등200불, 에어컨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010-2585-7696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273번길2
- 법당, 방1, 창고방1, 샤워실, 공양간 큼
- 40평 3층(시설완벽함)
- 가액 :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389-8133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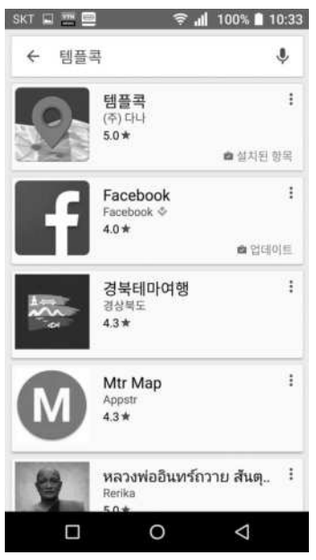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항목별 (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 (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긍정심리학스쿨’ 대표)

〈1〉 스트레스 과다사회, 감정회복습관 필요하다

7가지 내면관리법으로 ‘엘리트’ 되기

외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했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최근 ‘자존감 회복’이란 문구가 부쩍 자주 등장하는 추세가 이를 증명한다.

내면 존재에 대한 감정을 다스려 스러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국내선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과거부터 활발히 논의돼 왔다. 구제 고지 작가는 책 〈감정 정리의 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일명 ‘감정회복습관’이다. 이 책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글로벌 기업서 일하는 엘리트들이 단련한 ‘정신건강 유지법’을 소개한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감정회복습관이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 코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긍정심리학자 일로나 보니웰(Ilona Boniwell)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감정회복습관 연구를 바탕으로,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인지행동 요법과 21세기 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인 긍정심리학, 그리고 외상 후 성장(PTG; Post Traumatic Growth) 연구가 통합된 트레이닝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 코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키워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를 마친 후에는 놀랄 만큼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회복습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정회복습관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저는 “감정회복습관이란 역경이나 고난, 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응하는 정신력 및 심리 과정이다”라고 정의한 미국심리학회(APA)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감정회복습관이 있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 ‘회복력’입니다. 이는 역경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져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바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마치 대나무와도 같은 신축성을 지닌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완충력’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예상치 못한 충격 등의 외부 압력에 내성을 발휘하는, 말하자면 테니스공 같은 탄력성을 지닌 정신적 · 심리적 강인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적응력’입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나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거나 저항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말합니다.

저는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서 지금까지 다수의 기업과 병원에서 감정회복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교육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에게 감정회복습관을 트레이닝 하고, 일류 기업에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인재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스스로 감정을 회복하는 습관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그 습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부정적인 연쇄 반응의 고리를 그날 그날 끊어내는(비우는) 습관

②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감정회복 근육을 단련하는 습관

③ 가끔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습관

이 세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습관을 계획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정회복습관을 이미 몸에 지니고 있으므로 남들보다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면 다스리는 7가지 기술

1.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난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이고, 또 하나는 ‘기분 전환’입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란 보이지 않는 감정을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테크닉입니다. 감정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중요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내면에서 생기는 감정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분 전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특징 중 하나는 매우 끈질기다는 점입니다. ‘기분 전환’이란 그 부정적인 연쇄 반응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다른 대상으로 관심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기분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 감상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음악’, 요가나 명상, 산책 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호흡’, 일기나 편지 등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필기’. 이 네 가지 방법은 베타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를 돕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쓸모없는 ‘고정 관념’을 길들인다

어쩌면 부정적인 감정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내면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상실감이나 고독감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비난으로 상처받은 자존감에서 파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중에 학습한 것이라면 의식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고정 관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고정 관념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하면 된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이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정신력 심리 안정될수록 뛰어나 직장 스트레스 극복도 ‘탁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다소 무리하게 느껴지는 일을 마주해도 ‘나라면 반드시 이 장벽을 뛰어넘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기대를 뜻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요소로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실질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에 맞게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모범 사례’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롤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주위 사람들이 들려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분위기’입니다. 팀원들끼리 긍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으십시오. 분위기가 좋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덩달아 성과도 올라가게 됩니다.

4. 자신만의 ‘강점’을 살린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다면 미국의 VIA 연구소에서 개발한 ‘VIA-IS(긍정심리학의 일인자인 크리스토퍼 피터슨 박사와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개인의 장점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점을 개발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력이 강해집니다.

5. 정신적 지주가 되는 ‘서포터’를 만든다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사시에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서포터를 만드십시오. 서포터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합니다.

6. ‘감사’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키운다

스스로를 책망하면 부정적 감정이 커져 ‘죄책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우울한 기분을 불러오고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감정회복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심리적 자원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과 반대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 편지’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7. 힘들었던 과거의 체험으로부터 의미를 찾는다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할당하거나,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도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이 ‘도장(道場)’이 되어 당신의 감정회복근육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뼈아프게 힘들었던 역경에서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힘을 얻고 또 미래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조절 체력 키워야

앞으로의 기업에서는 스트레스나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해나가면서 ‘자기 관리’까지 가능한 인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상황을 감정회복습관을 기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한계에 부딪혀도 트레이닝을 계속해야 체력이 강해지는 운동처럼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훈련을 통해 그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뛰어난 인재들은 모두 역경에 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감정회복습관을 이용해 스스로를 강인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습관과 일곱 가지 테크닉이 바로 그들의 무기입니다.

실제 직장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감정회복습관을 들이는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치열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성과를 거두어 충족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제 고지는

1972년 일본 기후현 오가키시에서 태어난 구제 고지는 게이오 대학교를 졸업한 후 P&G에 입사, 화장품 사업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 후 일본 최초로 사회인 대상 ‘긍정심리학스쿨’을 설립하고 코치와 강사 등 실무가를 육성하고 있다. 저서로는 〈감정회복습관 단련법〉, 〈부모와 아이가 함께 키우는 정신력〉 등이 있다.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탈종공고

• 사찰명 : 대성사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산220번지
• 창건주 : 진여심(조재순)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봉림사
• 주 지 : 석경(김영근)
• 주 소 :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명1길 20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배종훈의
명상카툰



긴 시간 속 교차, 그것이 인연

서산 부석사는 바다를 바라보는 산 속에 들어 앉아 있었다. 멀리 서산 바다가 보이는 산 중턱에서 의상대사가 건너온 바다를 보고 있다. 부석사는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와 같은 이름이다. 동일한 창건설화를 지닌 선묘낭자와 의상대사의 이야기가 담긴 절집.

짐을 풀고 가벼운 차림으로 절 뒤편으로 오르니 바다가 더 가까이 보인다. 선묘낭자에겐 가족과 고향이 있는 땅, 의상대사에겐 부처가 있는 정토. 그 둘이 꾸었을 꿈을 생각하며 해가 바다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연이라는 것은 어쩌면 긴 시간 중에 잠시 교차하는 것일 뿐이다. 영원한 만남도 영원한 헤어짐도 없다.

돌아보니 해가 바다 너머로 들어가고 있다. 참 오랜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낙조를 만났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작고 까만 조약돌 ㊦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할머니에게 조약돌을 받은 후부터 민준이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무서운 괴물에게 인사를 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

잠자리에 누워서 민준이는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을 조약돌에게 속삭였다. 꿈속까지 쫓아와서 민준이를 괴롭혔던 수많은 괴물들은 점점 작아졌다. 모양도 색깔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 돌 속으로 쏙 들어갔다.

조약돌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온몸이 나른해지며 스르륵 눈을 감고 잠드는 것은 무척이나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책 속의 세계를 마음껏 상상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 시도해보는 일을 할 때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이상하구나. 무언가 달라졌어."

밥을 먹다가 엄마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뭐가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입안으로 밀어 넣으며 누나가 물었다. 대회 일정이 잡히면 누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곤 했다.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삼킨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음식을 씹기도 전에 뱃속으로 밀어 넣었으니까. 대회 직전에는 체급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느라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는데, 먹는 걸 워낙에 사랑하는 누나에게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라고 했다.

"글쎄다. 뭔가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구나. 집에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니?"

"맞아. 나는 요즘 괜히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아."

아빠가 맞장구쳤다. 누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음식 흡입에 들어갔다. 민준이는 주머니 속의 돌을 만지작거리며 빙긋 웃었다. 민준이와 눈이 마주치자 엄마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요새 부쩍 자랐네."

할머니의 말처럼 조약돌이 무거워졌다. 민준이는 큰 그릇에 물을 담아 잠시 조약돌을 담가두었다. 그러고 나면 조약돌이 다시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돌을 받던 날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우리의 마음은 화가와 같단다.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려내지. 무서운 것들과 걱정스러운 일들도 모두 마음이 그려낸 거란다. 우리 민준이가 마음의 도화지에 더러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괴물을 그리면 그건 무섭고 끔찍한 괴물이 된단다. 민준이가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서 그건 물이 좋아서 물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귀엽고 상냥한 물의 정령이 될 수도 있지."



그림 · 강병호

할머니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그려낸다는 말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권도 전국 대회를 며칠 앞두고 지역 신문에 누나의 기사가 실렸다. 도복을 입고 힘차게 발차기를 하고 있는 누나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엄마는 곱게 오려서 냉장고 문에 붙여 놓았다.

그 무렵부터 누나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처음에는 체중조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음식을 잘 삼키지 못했고, 억지로 먹으면 곧바로 토해버렸다. 누나는 학교에도 도장에도 나가지 않았다. 방문을 열어보면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이불을 뒤집어쓰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누나를 볼 수 있었다.

엄마는 죽을 끓여서 누나 방에 들어갔다가 비워지지 않은 죽 그릇을 들고 다시 나오며 한숨을 쉬었다.

"부담감 때문일 거야. 모두들 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찬 아이니까 곧 이겨내겠지."

아빠가 엄마를 위로했다.

'조약돌이 없어도 괜찮을까?'

민준이는 마음에게 물어보았다.

'그래. 괜찮을 거야. 이제 넌 마음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상냥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민준이는 누나의 손에 깨끗이 씻은 조약돌을 쥐여 주었다.

"나 정말 바보 같지?"

"큰 대회를 앞두면 누구나 불안해진대."

"아무것도 못하고 대회장에서 멍청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이 떠올라. 힘차게 발차기를 하려고 해도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며 비웃을 것 같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이 조약돌에게 말해봐. 이 조약돌이 불안한 마음을 모두 가져갈 거야."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누나에게 해주었다. 내일이면 누나가 툭툭 털고 일어날 거라고 마음속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배고픈 게 제일 싫다고 투덜거리며 대회 끝나고 나서 먹을 음식들을 끝도 없이 나열할 거라고.

'내가 보냈던 수많은 괴물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고 잠 속으로 빠져들면서 민준이는 생각했다.

넓고 푸른 강물 속에서 작은 괴물의 씨앗들이 올챙이처럼 꼬물꼬물 헤엄치고 있었다. 괴물들은 점점 커지면서 제각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갔다. 그림자처럼 까만 몸에 노란색 커다란 눈을 가진 빨래 괴물과 보라색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옷장 괴물, 이빨이 천이백삼십칠 개나 있는 냉장고 괴물과 코끼리처럼 긴 코를 가진 물컹물컹한 화장실 괴물이 힘차게 강물을 가르며 헤엄치고 있었다. 환한 햇빛 속에 있는 괴물들은 아주 조금은 귀여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 어디선가 저 괴물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면 그땐 '안녕?' 이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

민준이는 마음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끝〉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08호 현대불교
2016년 8월 3일(7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하늘을 받치고 땅을 디딜 수 있으니 부처님 발은 평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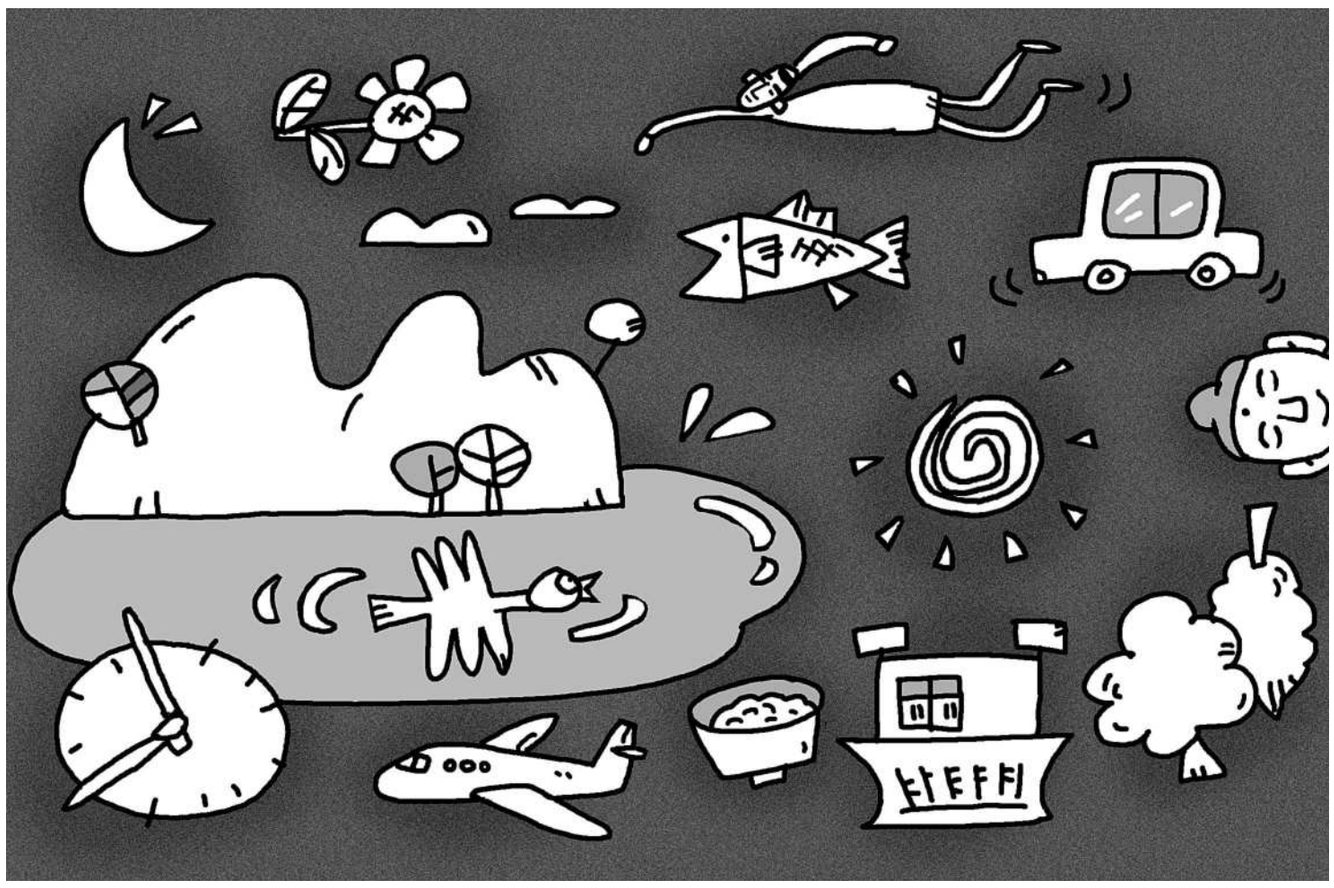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하늘을 받칠 수 있고 땅을 디딜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 발은 평발이라고 했습니다. 왜 평발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무 말이 할 게 많아서 그냥 뒤뚱뒤뚱 이렇게 뛰어갑니다, 지금. 왜 평발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높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제가끔 높습니다. 제가끔 옳습니다, 또. 안 그렇습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 농사를 전공하던 사람에게 펜대를 쥐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라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농사짓는 데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으뜸이요, 회사 하는 사람은 회사 하는 데서 으뜸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데서 으뜸이요, 뱃사공은 물에서 으뜸이요. 안 그렇습니까? 공업가는 공업의 기술계에서 으뜸이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니라 했던 겁니다. 자기 개인 하나를 놓고 높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빠짐없이 높은 것을 얘기한 것이고, 아래로는 내 발 아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평발입니다. 기어 다니는 지렁이 발 하나도 내 발 아님이 없으니 평발이죠. 이 뜻을 판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얕은 것도 높은 것도 둘이 아닙니다. 저 산이 높을 때에 높은 것만 있다면 얕다 높다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얕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 빛이 납니다. 그럴 때에 넓게 본다면 얕은 것도 높은 것도 평등한 겁니다. 그러나 작은 데서 볼 때는 높은 건 높고 낮은 건 낮죠. 그래서 '산과 물이 둘이 아니로되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느니라' 한 겁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변하면서, 화해 돌아가면서 생동력 있게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다른 걸 봐야 하고, 다른 걸 들어야 하고, 다른 걸 먹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러한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천대천세계에 부처님 법 아님이 없다는 사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사랑을 하되 진짜 자비로써 사랑을 해야지 착을 두고 사랑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생명이 생겨서 자꾸자꾸 돌아가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해 가면서 인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그때서부터 내 부모 내 자식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하하…. 그저 이걸로도 태어나고 저걸로도 태어났을 때, 이 집 가서도 태어나고 저 집 가서도 태어나고, 수없이 바꿔 가면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모둠이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 내 자식도 따로 없고 내 부모도 따로 없습니다, 넓게 본다면.

그런데 어떻게 바닷물을 삼킨 그 선지식들이 고기 따로 물 따로, 큰 고기 따로 작은 고기 따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니 한생각을 좋게 생각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마시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모든 게 이 세상에 내가 난 탓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되 그저 나쁘게 돌아가는 것도 잘 돌아가게 하는 건 당신밖에 없다고 믿을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겁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그건 좌선입니다. 누워서 하는 거 와선, 서서 하는 거 입선, 일하면서 하는 거 행선, 이것이 다 그냥 모두가, 앉으나 서나 참선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산 아래를 지나가다가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데, 유마힐 거사가 거닐다가 보니까 꼭 몸이, 맘이 옹졸하게 '아이고, 나는 앉아서 참선을, 좌선을 해야지.' 하고 앉아 있더랍니다,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유마힐 거사가 지나가면서 "앉는다고 앉고 선다고 선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안 돌아가는구먼."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앉았다가 펄떡 일어나서 한생각을 착 돌리니까 그 즉시에 머리가 트이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랬다는 식으로 이 모두가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는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이 있습니까? 넓게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동쪽이 따로 있고 서쪽이 따로 있겠습니까? 동쪽과 서쪽과 둘이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우리가 한군데 사는 데서만 본다면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 번 넘겨다본다면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어요. 그 양면을, 둘이 아닌 양면을 다 우리가 캐치해서 간파할 수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종교든지 가면 그저 '아이고, 우리 남편 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신중당에 놓고 빌고, 이론이나 배우고 지식으로나 배우고 이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제 이것도 좀 알아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정신계의 발전이 될 때가 됐는데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 마음도리 공부를 가르쳤는데 힌두교에선 아주 이 몸으로다가 고행을 너무 많이 하는 까닭에, 이 몸으로다가 고행을 하다가 몸 떨어지면 그 고행도 끊어진다, 이 고행하던 것도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 이겁니다. 남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으로 고행이 아닌 것도 놓고 고행인 것도 놔라. '푹 쉬게 되면, 눈 뜨고 푹 쉬게 되면 진짜 진리를 알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후에 지금 근 삼천 년이 돼 오는데 이렇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또 단군도, 단군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81자를 기준해서. 부처님께선 80종호를 기준했지만 단군 할아버지는 81자를 비유했는데 80종호나 81자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영특하게 모두 여러분에게 살림하는 법과 농사짓는 법과 사람 마음을 쓰고 활용하는 법과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합해서 작용해서 중용을, 스스로서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는 법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세계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들이 계발이 되고 달라져야 세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영원히 이렇게 쳇바퀴 돌듯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생기고요. 만약에 지구의 모든 재료가 부족하게 된다든가 태양계에 어떠한 팽창력이, 열이 생긴다든가 타 버린다든가 또는 은하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별성이 모두 껍데기를 벗고 활력을 띄지 못한다든가 이런다면 우리에 직결된 이 마음부터 벌써 잘못돼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두가 같은 염주알에 돌아가듯 이 전체 우주가 지금 같이 한 염주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약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복으로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이 꽃 한 송이를 놓아도 바로 네 뿌리 내 뿌리가 둘이 아니니 이 마음의 이 향, 이 마음이 천만 개의 마음을 한데 합쳐도 둘이 아니니 내 주인공에 바로, 이게 직접 내 꽃 한 송이를 내 꽃 한 송이에 바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 부처님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생명도 여러분과 생명이 둘이 아닙니다. 이런 컵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출현했을 때에 그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과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광대무변한 법을 이렇게 가르쳐 길을 인도하시면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둘이 아니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니니라. 너희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너희가 악한 마음을 쓰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을 하면 악업을 짓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한다면 바로 선업을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콩 심은 데

☞ 26면으로 계속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푹 쉬게 되면, 눈 뜨고 푹 쉬게 되면 진짜 진리를 알리라

☞ 25면에서 계속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뿌리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쥘 수 없고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여러분의 뿌리, 그 불씨! '내가 나기 이전에 바로 내 씨가 있다더라' 그러곤 바깥으로 휘휘 젓고 찾아요. 하하하…. 화두를 가지고 '이게 뭣고?' 하면서 그저 바깥으로 휘휘 둘러 찾거든. '아휴, 부처님! 나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과거에 뭐 어쩌고저쩌고하고 야단법석이죠. 그러나 만약에, 호박으로 비유해 봅시다. 수박이라도 좋아요. 수박씨를 작년에 받았으면 바로 올해 심죠? 심어서 수박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수박 싹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수박이 벌써 모두 열렸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열려서 바로 수박 속에 단맛이 나고 씨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수박씨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씨는 현실로 나왔는데, 작년 씨를 올봄에 심어서 싹이 돼서 열매가 열려서 지금 수박이 디룽디룽 매달려 있는데 말입니다, 그 수박씨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

대중 수박.

큰스님 지금 내 현실의 수박 싹에 수박이 열린 거기서 찾아야죠?

대중 예.

큰스님 그 씨는 벌써 화해서 싹이 돼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부처님을 찾습니까? 어디 가서 부처님을 찾습니까? 나로부터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저 부처님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방편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라는 방편의 이름도 저 이름 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 이름 타기가. 49년을 설하면서도 나는 한 생각도 해 본 예가 없다고 하신 그 뜻에 의해서 그 형상이 이 세상에 저렇게 생겨났으니 얼마나 위대한 부처님의 이름입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를 막론해 놓고,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 좀 생각들을 깊게 해 보십시오. 작년 씨는, 작년에 씨 받은 거를 가지고 올해 봄에 심었다. 내가 형성됐다, 그 싹으로. 수박이 나한테 열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수박을 깨뜨려서 내가 직접 맛을 봐야 하고 직접 그 씨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그 씨 하나가 수만 개로 나가는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불씨 하나가 수만 개의 불씨가 된다 하는 것도 되지마는 내 한마음에서 천백억화신이 천차만별로 응해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응신으로서 응해 주신다.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씨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거를 저기 질척질척한 데다 심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벌레가 나옵니다. 생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척한 데서 낳는 것, 화해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이 사생이 다 그러그러합니다.

그러니 제일 급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급한 작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수박이 있고, 그 수박 맛을 봐야 바로 내 씨를 내가 찾는다 이겁니다. 수박 맛을 보지 않고는 그 수박 속의 씨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 가정에서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고 관찰해서 지켜보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체험하는 것이 참선의 기초적인 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그거를 실험해서 체험하는 것이 수박 맛을 보는 거나 한가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정도 유유하게 되고 내 가정의 애고도 없어지고 병고도 없어지고 모든 애고, 업, 업식이, 유전성이, 영계성이 모든 게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의 지혜는 세세생생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은 금방에 갈 것이고 넝마는 넝마전에 갈 것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세세생생에 그 차원대로 자동적으로 끼리끼리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제불은 도솔천국에 있느니라. 그리고 항상 중생들과 둘이라고 생각지 않고 내 아픔이라고, 나 아님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항상 평등공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 아님이 없이 응해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인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일러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마디 더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스님네들이 세 살을 먹었든 다섯 살을 먹었든 저 부처님 형상 믿듯 해야 합니다. 모르든 알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잣대를 재는 거지 이 승려들의 잣대는 없습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그대로 승려인 것입니다. 그대로 삭발을 한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잣대지 그 잣대에 부닥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부모와 형제를 다 버리고 모든 거를 전폐하고 이러한 원을 세우고서 깎아 버렸을 때의 그 심정, 그 신의 하나만이라도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에는 삭발 제자고 이차는 유발 제잡니다. 다 전폐하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지금 유발 제자와 삭발 제자가 같이 이렇게 이 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떡 와 보니까 유발 제자도 공부를 해야 하고 삭발 제자도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공부하는 데 제로야, 모두가. 하하하. 공부하는데 안 되겠어요. 세상 더 좀 같이 있게 해 달라고 비대발괄을 하지만, 유발 제자는, 그렇지만 이거 안 되겠어. 따로 떼어 놔야지 안 되겠다 이랬습니다. 하하하…. 그랬더니 마음이 언짢긴 하지만 어쩝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길 아닌 길과 손 없는 손과 정말 발 없는 발로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것까지 얘기했으니 인제….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어린 양같이 있죠, 모두? 한 이삼 년만 있으면 사십이 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린 양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뭐, 입산한 지가 얼마가 됐네, 법랍이 얼마가 됐느냐, 또 법랍이 작으냐 많으냐 이런 것도 여러분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아주 무진설법은 할 수 없을지언정 갖다가 주고 갖다가 먹을 줄은 압니다. 이름은 몰라도 갖다가 주고 갖다가 먹을 줄은 압니다. 그 길은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걸랑 무조건 물어보시고 이 길을 인도받으십시오. 정말입니다. 모든 걸 얕잡아 보고 한다면, 자기가 그릇을 만들지 못해서 그릇에 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절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이십 몇 개를 두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미국이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출중한지 모릅니다. 다른 절의 스님들도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스승에 그 제자군.'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분들은 아주 더 약은 모양입니다. 지나치게 약은 모양이에요. 좀 어리숙하게 모르는 척하고 떡 그릇에 엎드러질 줄을 몰라요. 하하하…. 죽겠으면 지푸라기라도 쥐고 "날 좀 살려 주지 않겠니?" 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그래도 몇 해씩이나 머리 깎고 중노릇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얕잡아선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마디 마저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아래로 내려다보지 마시고 언제나 자기같이, 모자라는 걸 보면 자기 모자랄 때 생각을 하시고 어린 거를 볼 때는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을 하시고, 남이 고통스러워하면 자기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거를 자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굴린다면 사랑의 자비가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아픔으로 살아가시고 그러는데도 그럴 때마다 지극한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 내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러고요. 항상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는 데에 그저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껍데기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알맹이가 너무 여러 개가 돼서 말을 하는 나가 있고 또 급하다고 부르면 얼른 가야 합니다, 또. 하하하…. 이렇게 말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이 도리를 틀림없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에 내가 아니 오고 없는 줄 알지 마십시오. 응해 달라 하면, 급하면 그냥 한 찰나에 듬성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속에는 항상 무시로 찰나찰나 들고 나고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 제자들 속에서 내 에너지를 빼 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자들 에너지 통이나 내 에너지 통이나 똑같으니까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으로서 한 생각을 잘하신다면 또 다 같을 거니까요.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 작년 씨를 올봄에 심으니 싹이 돼서 열매가 열려서
> 지금 수박이 디룽디룽 매달려 있는데 말입니다,
> 그 수박씨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회자 감사합니다. 설법에 이어서, 여러분이 한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과연 주인공은 무엇인지 의증이 나시는 분은 이 앞에 마련된 자리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들고 어디서 오신 누구시라는 존함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큰스님 주소 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름 대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질문들을 하십시오.

사회자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심나는 것 서로 묻고 대답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스님 모든 거를, 교만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빼 버리고 권세도 빼 버리고 나라는 것도 빼 버렸을 때에, 어떠한 용도가 있고 어떠한 걸림이 있을 때에, 어떠한 모르는 게 있을 때에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고요. 절은 한 번만 하십시오.

질문자1(남) 요쪽 골에서 이 소리 해서 저쪽 골에서 또 다른 소리 하는데 그거를 합쳐서 어떻게 하나로 묶겠습니까?

큰스님 지금 하나로 뭉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와 하나가 정신계의 바른쪽 왼쪽 두뇌에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람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와 같이 모두가 그렇게, 이 원리가 지금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듯이.

질문자2(여) 스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마음속 깊이 영광스럽습니다. 스님에게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스님이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참선에 들어서면서 자꾸 울게 됩니다. 가슴에 닿아도 울고 삼라만상을 봐서 마음에 닿는 것이 있어도 울고 전부 울음이에요. 어떤 땐 제가 생각할 적에 '난 왜 자꾸 이렇게 우나. 울지 말아야 될 텐데.' 남이 언짢은 걸 가지고 울고, 남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나서도 울고 그래서 이 우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큰스님 이 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 뿌리로부터 거죽 나무로 왕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해동이 되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주 얼고 언 나라가 봄이 오려면 그 물이 한정 없이, 그 얼음이 녹아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업보가 녹느라고, 그 얼음덩어리가 녹느라고 댁의 눈을 통하고 이 혈맥을 통해서 그 얼음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고가 무너지느라고 그럽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봄이 오느라고 그럽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해동이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다고 그냥 아무 데서나 울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체면이 있지, 아무 데서나 눈을 통해서 해동을 시키면 어떡해? 그냥 아무도 없을 때나 좀 그러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절대 누구 있는 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공부인데요. 정말 자유스럽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92년 7월 5일 시카고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독서삼매는 폭염도 이긴다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요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장난이 아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우리만 더운 것이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더위와의 전쟁이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동과 인도가 50도(쿠웨이트가 54도), 중국이 40도이고, 일본 · 미국 · 우리나라도 32도에서 38도이다. 기상청은 연일 전국 폭염특보를 내리고, 내일이 더위의 절정이라고 한다. 어제 대구는 36도를 기록했다.

도심 상가는 문을 열고 냉방문을 닫아두면 외국인 관광객이 기웃거리다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 손님이 줄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데 최악의 상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나 슈퍼 엘리뇨를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또 내년에도 더위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모든 종교가 지옥에 대한 묘사를 뜨거운 불속에서 받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다. 초열지옥, 화탕지옥, 폭염지옥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지 않고 석유와 석탄으로 오염시킨 인과응보이요, 자승자박이다.

우리 집안에 "불길 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가 있다"는 말을 생각하며 어제 한낮에 건대전철역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청년이 전자기타를 켜고 팝송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무아지경이어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젊은 놈이 더위를 먹고 저러나' 라고 생각했다가 '저 청년이 10년 후에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불현듯 20년 전 산동성 제남시 산동대학교 기숙사에서 7, 8월 한 달 동안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자신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고비를 잘 극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면 무너진다.

대학박사생전형위원회에서 나를 박사연구생으로 특별입학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그 동안 주래상 박사도사교수가 준 '중국 문예미학' 책을 읽고 요약하면서 입학시험을 준비했다. 제남은 중국에서 가장 더운 4대 가마솥(난징 · 충칭 · 우창 · 제남)이다. 우리나라 대구처럼 분지이기 때문에 밤낮없이 끓는다.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른다. 자다가 일어나 하루 밤에 4번 샤워를 해야 했다. 한 달 만에 10킬로그램의 몸무게가 빠졌다. 당시 전력 사정이 열악하여 냉방이 있는 곳은 호텔뿐이다.

나에게 40도의 더위를 견뎌내는 일은 하루하루가 한계상황이요, 고행이요 수행이다. 아내와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서 이대로 물러나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지게 될 때마다 〈금강경〉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전신인 인욕선인(忍辱仙人)의 가르침으로 버텨내고 기다렸고 이겨냈다.

가마솥처럼 끓는 제남에도 피서정토가 있었다. 천불산 만불동 동굴이다. 중국 4대동굴의 불상을 재현해 놓은 거대한 동굴이다. 노나라와 제나라 때 전쟁용 동굴이라고 한다. 동국 입구를 철문으로 닫으면 수소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요새동굴이다. 나는 이곳을 알게 된 후에는 매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와서 아무도 없는 동굴 법당서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 을 독경하고 앉아서 명상을 했다. 앉아서 선정 모양만 했지 만 가지 상념이 머리 속에서 교차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인욕 공능(功能)의 힘은 제남에서의 40도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체험한 '중국 문예미학' 의 독서와 만불동 법당에서 했던 참선 수행의 공덕이다. 필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다.

폭염을 피해서 신선으로 사는 길은 가족과 함께 도심을 떠나 산사를 찾는 템플스테이이다. 더위도 피하고 마음도 다스리는 일석이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여름 독서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시원한 가을에는 책을 별로 읽지 않고, 더운 여름에 집에 틀어박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한다. 감옥에서 독서도 있고, 폭염을 피하는 독서가 있다. 밖으로 날뛰면 더위에 맞아 죽는다.

기자 칼럼

당사자 없는 위안부 재단 성공할까



신성민
취재부 차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 치유재단' 이 7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사실상 출범을 강행한 것이다. 재단 설립 주도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대부분이 설립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자 할머니와 나눔의 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재단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재단 출범 첫날부터가 순탄치 않다. 재단 사무실 주변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김태현 재단 이사장은 '캡사이신 공격' 을 받기까지 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한화 110억 원)과 소녀상 이전을 계속 연계하려 한다는 정황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을 '화해 · 치유재단' 이사직에 제안한 것이다. 나눔의집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다.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여가부 직원 등이 함께 찾아가 안 소장을 먼저 면담했고, 그후 정 국장이 안 소장과 따로 단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안 소장은 "할머니들이 강하게 반발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배반하고 정부 재단에 들어갈 수 있겠냐" 라고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칠게 말하자면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채 진행된 한일 합의는 애초에 이뤄져서는 안될 것들이었다. 일본이 제안한 피해 재단 설립기금 10억 엔 역시 실패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이 오마쥬된다.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자신의 저서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에서 일본 국민기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비판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국민 기금의 공적 성격이 애매해 책임 주체가 명확치 않고, 기금이 국가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전체의 책임' 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무책임 체제가 재생산된다는 것을 들었다.

우에노 치즈코는 위안부 문제가 쟁점이 된 1995년 유엔 베이징 여성회의가 열리기 전 설립된 국민기금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정치적 퍼포먼스' 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까. 일본의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본의 기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에노 치즈코가 비판한 일본 국민기금과 지금의 한국 위안부 재단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애초 한일 합의에서 일본이 출연해 만들기로 한 재단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모양새부터가 "일단 사과금을 줄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에 국한된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도리어 10억엔을 빌미로 소녀상 이전 카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생존한 피해자 할머니들은 위안부 재단에 극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우에노 치즈코가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이유는 "피해 여성들에게 반세기 동안 침묵을 강요한 현재 진행형의 가해에 자신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전쟁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는 것을 일본인은 배워야 한다"고 경고한다.

여기서 해결점은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쟁 당시부터 이후에도 침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들에게 가해의 책임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위안부 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명예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함께 돕는 것이 우선 과제다. 기름진 말의 성찬으로 얼룩질 재단 출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社說

만해 대상 20돌에 부쳐

만해 대상이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만해 대상은 이름처럼 만해 스님의 애민 정신과 생명 · 평화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한 상이다. 백담사 회주 무산 오현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한 만해 대상은 1997년 평화상, 실천상, 학술상, 포교상, 예술상 5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년을 지나오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상(賞)' 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규모는 성장했고, 특히 평화부문은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등을 잇달아 수상자로 선정하며 세계적 상으로 위상을 높였다.

20년 동안 105명(곳) 수상자 및 단체가 나왔고, 수상자 배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6곳에 이른다. 이중 외국인 수상자(단체)는 36명(곳)이다. 노벨상 수상자 6명이 만해 대상을 받았다.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정해 만해 대상을 수여하는 것은 만해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다. 만해 스님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자유와 평등, 평화를 외쳤다. 대부분의 상이 그렇지만, 수상자를 통해 우리는 '나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는 희망을 갖는다.

〈논어〉는 '어진 이를 만나면 그를 본받고자 노력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만나면 자기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라(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라고 조언한다. 실제, 남명 조식 선생은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매일 인사드리면서 현인들을 닮고자 노력했다.

만해 사상을 빛내고 있는 우리 사회, 나아가 지구촌의 현자들에게 우리는 삶의 지남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도 만해 대상은 현자들을 찾아 알려야 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것이 청년기를 맞는 만해 대상이 나가야 할 길이다.

명상산업 발달, 불교엔 기회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명상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은 영덕에 2017년 개원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입해 명상연수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동화그룹, 대웅제약, 동국산업 등도 이미 명상관련 시설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해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행보를 두고 기존 임직원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명상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했다는 평가가 흘러 나온다.

불교계에서는 기업들의 명상산업 투자가 저변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비해 그 준비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인프라 부분은 이미 기업과 불교계가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인다. 2008년 한국문화연수원 개원 이후 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에 기대 명상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기업 측 명상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불교에서 명상을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마음공부로 전하는데 반해 아직 일반 기업들의 접근은 효과에만 머무르고 있다. 불교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발족했다. 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불교계가 명상문화 보급과 함께 불교 가르침에 맞는 심화된 명상을 알리는데도 앞장 서야 한다"고 과제를 밝혔다.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구글의 차드 멍탄은 방한에서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의 접목,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만남 등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명상문화 발전에 노력해야 함을 역설했다. 사회에서 명상은 이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불교계의 꾸준한 발전과 노력이 없다면 미래가 장밋빛 만은 아닐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합동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 / 오후 1시 30분

전계대화상 :
世界佛教徒의 法王 –
우 꾸마라 사야도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 교수아사리 :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의 화신 제13대 에인다 빠라 삼장법사. 연방승가회 부회장 사야도
■ 갈마아사리 : 법왕청 법왕 보좌 비서실장 – 목탁 대승정 | 짜익티오성 사야도

한국본부 전계대화상 | 교수아사리 | 갈마아사리

三師 108證明團합동 建幢(건당)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정중히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이 법석에 모시고자 합니다

석가세존에게 테라와다 불교의 정법을 위촉받은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계첩에 이름을 올릴
3師 108 證明團에 韓國佛教 高僧 元老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 주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주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승려 60만의 불교나라 미얀마 최고의 큰스님과 부종정 사야도, 경전의 화신 13대 삼장법사,
짜익티오성 사야도와 상원의원 활동과 마얀마 신정부 경제특보 이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불교에 보시한
보시의 화신 닥터 킨쉐이 박사가 동참하여 성스런 불교의식을 한국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국제붓다봉사단

대한불교 종단 인권위원회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총괄본부장 :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 하자 大僧正 목 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02)733-5665. 010-3618-6061